

최종보고서(안)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천 문화정책 연계방안 연구
: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2022.12.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문화 정책의 연계성 검토	9
1. 문화적 측면에서 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변화	11
2. SDGs와 문화의 국외 사례	23
3. SDGs와 문화의 국내 사례	54
제3장 인천의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을 위한 현황 조사	95
1. 인천의 SDGs 이행 환경 분석	97
2. 인천의 문화인프라 현황 분석	111
3. 인천문화재단 사업 분석	131
제4장 인천 SDGs와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연계성 분석	139
1. 인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141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연계성 분석	145
3. 소결 및 시사점	166
제5장 SDGs 달성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컨셉과 실천계획	169
1. SDGs 기반 문화 정책의 개요	171
2. 유네스코 문화 2030 지표에 따른 분류	172
3. SDGs 달성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실천계획	177
제6장 이행과 평가	241
1. SDGs 이행을 위한 ESG 경영 구현	243
2. SDGs 이행을 인천문화재단의 실천행동	249
3. 문화 관점의 지속가능성 이행체계를 위한 통계 구축과 평가방안	252

표 차례

[표 2-1] 문화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	17
[표 2-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문화에 관한 목표와 세부목표의 키워드	21
[표 2-3]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문화적 접근 영역과 사례	48
[표 2-4] Reshaping Cultural Policies 목표 및 모니터링 분야와 핵심지표	54
[표 2-5]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 및 특징,	59
[표 2-6] 2020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문항	62
[표 2-7]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 문화영향평가 경과	65
[표 2-8] 지역문화진흥체계의 개념과 내용	71
[표 2-9] 제2차 부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	74
[표 2-10] 제2차 인천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	76
[표 2-11] 2030 비전체계도	83
[표 2-12] 문화도시 지정 현황	87
[표 2-13]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장제작 가이드라인 흐름도	90
[표 2-14] SDGs 문화 국내 사례를 통해 본 문화정책의 시사점	92
[표 3-1] 부문별 인천시 예술인 총 현황(2020년 기준)	111
[표 3-2] 인천시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수(2020년 기준)	112
[표 3-3] 인천시 분야별 복지기관 파견 예술강사 수(2020년 기준)	112
[표 3-4] 인천시 문화예술 사업체 수(2020년 기준)	113
[표 3-5] 인천시 군·구별 전문예술법인단체 수(2020년 기준)	114
[표 3-6] 지역문화예술축제 수(2020년 기준)	115
[표 3-7] 인천시 공연예술작품 공연 건수 및 횟수(2020년 기준)	115
[표 3-8] 인천시 군·구별 공공도서관 수(2021년 기준)	116
[표 3-9] 인천시 등록공연장 수(2019년 기준)	117
[표 3-10] 생활문화공간(생활문화센터) 수(2022년 기준)	117
[표 3-11] 인천시 군·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수(2021년 기준)	118
[표 3-12] 인천시 군·구별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수(2021 기준)	119
[표 3-13]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2021년 기준)	119
[표 3-14]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 및 참가자 현황(2021년 기준)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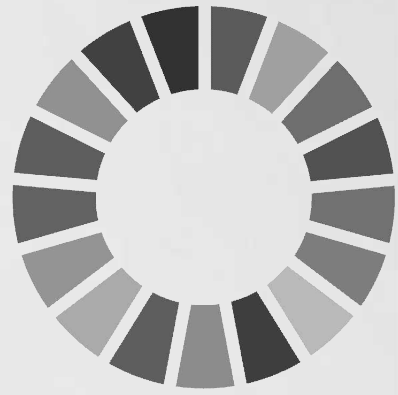
[표 3-15]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및 자료실 이용자 수(2021년 기준)	122
[표 3-16]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연간 관람객 수(2021년 기준) …	123
[표 3-17] 인천시 군·구별 민간박물관 시설현황 및 소장자료 수(2021년 기준) ……	124
[표 3-18] 인천시 시·군·구별 민간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2021년 기준)	125
[표 3-19]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수(2019년 기준) ……	125
[표 3-20] 인천시 영화상영관 수(2020년 기준) ……	126
[표 3-21]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복수응답)_중분류(2021년 기준) ……	126
[표 3-22] 휴가기간 중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2021년 기준) ……	127
[표 3-23] 문화예술활동 공간별 이용률(복수응답)(2021년 기준) ……	127
[표 3-24] 문화예술 관람률(2021년 기준) ……	128
[표 4-1] 2021년 전략 목표, 과제, 사업 ……	143
[표 4-2] 2021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UN SDGs 연관성 ……	147
[표 4-3]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목표 중심성 - 1 ……	151
[표 4-4]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목표 중심성 - 2 ……	151
[표 4-5]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응집 분석 ……	154
[표 4-6] 2021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UN SDGs 연관성 ……	156
[표 4-7]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 연결중심성 - 1 ……	161
[표 4-8]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 연결중심성 - 2 ……	161
[표 4-9]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응집 분석 ……	164
[표 4-10]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응집 분석 ……	165
[표 5-1] 젠더 대응표(젠더 관련 지표 및 점검요소) ……	173
[표 5-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문화에 관한 목표와 세부 목표의 키워드 …	175
[표 5-3] 박물관의 기후행동 프로젝트 ……	185
[표 5-4] 인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위탁 시설 ……	237
[표 6-1] 인천문화재단 직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행동(안) ……	251
[표 6-2] SDGs 기반 인천문화재단의 실천계획과 지표 ……	253

그림 차례

〈그림 1-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 논의의 변화	3
〈그림 1-2〉 2030 아젠다를 위한 문화	4
〈그림 1-3〉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연구의 공간적 범위)	6
〈그림 2-1〉 문화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20
〈그림 2-2〉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모델	22
〈그림 2-3〉 콜롬비아 지식의 씨앗 뿌리기(Sembrando Nuestros Saberes)	35
〈그림 2-4〉 베트남의 미래 과거의 유산(Heritage of Future Past)	36
〈그림 2-5〉 The 4Cs 프로젝트	37
〈그림 2-6〉 미국 MIT의 HASS 수업	38
〈그림 2-7〉 아일랜드의 창조적인 장소 투암 프로젝트	39
〈그림 2-8〉 팔레스타인 문화부의 성 주류화 프로그램	40
〈그림 2-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라플라타(La Plata)	41
〈그림 2-10〉 온두라스의 루타 렌카(Ruta Lenca)의 문화와 유산의 유지	42
〈그림 2-11〉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I Sistema)	43
〈그림 2-12〉 핀란드의 컬처 에스보(CultureEspoo) 2030	44
〈그림 2-13〉 Actors of Urban Change의 헝가리 도시녹화 프로젝트 사례	45
〈그림 2-14〉 시네 레지오의 Green Report 2020	46
〈그림 2-15〉 EU의 All-Around 문화 프로그램	47
〈그림 2-16〉 문화영향평가의 목적	58
〈그림 2-17〉 지역으로 보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지역	64
〈그림 2-18〉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77
〈그림 2-19〉 광역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사업 관련 법률	79
〈그림 2-20〉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환경	80
〈그림 2-21〉 2030 비전체계도	82
〈그림 2-22〉 비전 2030 10대 핵심지표	84
〈그림 2-2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비전 및 정책목표	85
〈그림 2-24〉 전남문화재단 지속가능경영 비전	86
〈그림 2-25〉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콘텐츠,	91

〈그림 3-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전략	98
〈그림 3-2〉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범주, 전략	102
〈그림 4-1〉 인천문화재단 경영전략(2019-2021)	141
〈그림 4-2〉 인천문화재단 경영전략(2022)	142
〈그림 4-3〉 UN SDGs 목표와 연관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 수	148
〈그림 4-4〉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UN SDGs 연관 목표 수	149
〈그림 4-5〉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의 SDGs 목표 중심성-3	152
〈그림 4-6〉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목표 중심성-4	153
〈그림 4-7〉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응집 분석	155
〈그림 4-8〉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연계 목표 수	159
〈그림 4-9〉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목표간 연결중심성	163
〈그림 5-1〉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1	172
〈그림 5-2〉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183
〈그림 5-3〉 인천 서구 생태전환 예술학교	184
〈그림 5-4〉 예술을 활용하는 기후변화 운동	186
〈그림 5-5〉 자연으 보전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예술공원	187
〈그림 5-6〉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 대화	187
〈그림 5-7〉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포럼’ 및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웹홍보물	189
〈그림 5-8〉 서천군 주민공론장 홍보용 카드뉴스	191
〈그림 5-9〉 인천문화포럼	194
〈그림 5-10〉 인천문화예술 40년사 정책토론회	194
〈그림 5-11〉 고려청자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전남 강진)	199
〈그림 5-12〉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과정	200
〈그림 5-13〉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201
〈그림 5-14〉 유카탄 Espacios Educativos 프로그램	202
〈그림 5-15〉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 현황(단위 : 명, %)	203
〈그림 5-16〉 점자 표지 휴지통	204
〈그림 5-18〉 독립기념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206
〈그림 5-19〉 광주관광재단 점자 안내 책자(2021.12.21.)	207
〈그림 5-20〉 ‘만지는 선, 들리는 모양’ 포스터	207
〈그림 5-21〉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217
〈그림 5-22〉 예술인 신문고	224

〈그림 5-23〉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전시포스터 및 활동사진	226
〈그림 5-24〉 전북 부안군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양잠농업 교육프로그램 중 미술활동	228
〈그림 5-2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체계 및 역할	229
〈그림 5-26〉 ‘인천생활문화축제’ 포스터 및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중 ‘재나공’ 홍보 카드뉴스	232
〈그림 5-27〉 환경 주제 지자체별 축제와 콘텐츠, 친환경 건축물 사례	233
〈그림 5-28〉 그린 리모델링의 예시	238
〈그림 6-1〉 SDGs와 ESG의 관계	244
〈그림 6-2〉 인천문화재단 창립 18주년 기념 및 CI 개편 선포식 (ESG 경영 선언)	246
〈그림 6-3〉 인천문화재단 문화-ESG경영 체계 및 로드맵(안)	247
〈그림 6-4〉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의 일부	248
〈그림 6-5〉 환경표지제품 마크	25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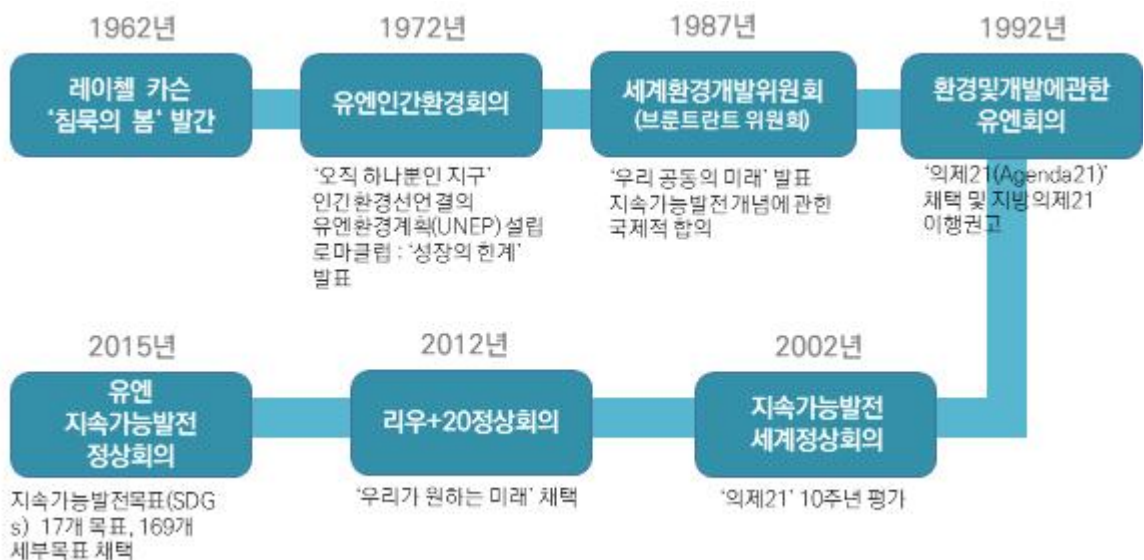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저출생, 인구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를 겪고 있고, 해결을 위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
-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심화시키고, 정책화하며, 인류의 일상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 환경과 인류의 삶에 대한 위기 의식이 감지되며,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 출간,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발표, 같은 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등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불가능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며, 변화를 요구함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국제적인 합의를 갖게 되었고,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따라 개념은 계속 진화하게 되었음



〈그림 1-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 논의의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1992년 UN 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가 설치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개념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1992년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Rio Summit),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 Rio+20 회의)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논의에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존의 측면으로, 다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 향상을 추구하는 균형 개념으로 변화하여 왔음.

○ 지난 2001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 이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문화적 다양성, 교육, 평등, 평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인식의 전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발전 의제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추세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숙을 목표로 단일 가치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전환을 맞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증대하고 있음



〈그림 1-2〉 2030 아젠다를 위한 문화

자료: 유네스코(2018), Culture for the 2030 agenda

○ 현 시점에서 문화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관점의 문화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발전 패러다임을 인천이 선도함으로써 미래사회 모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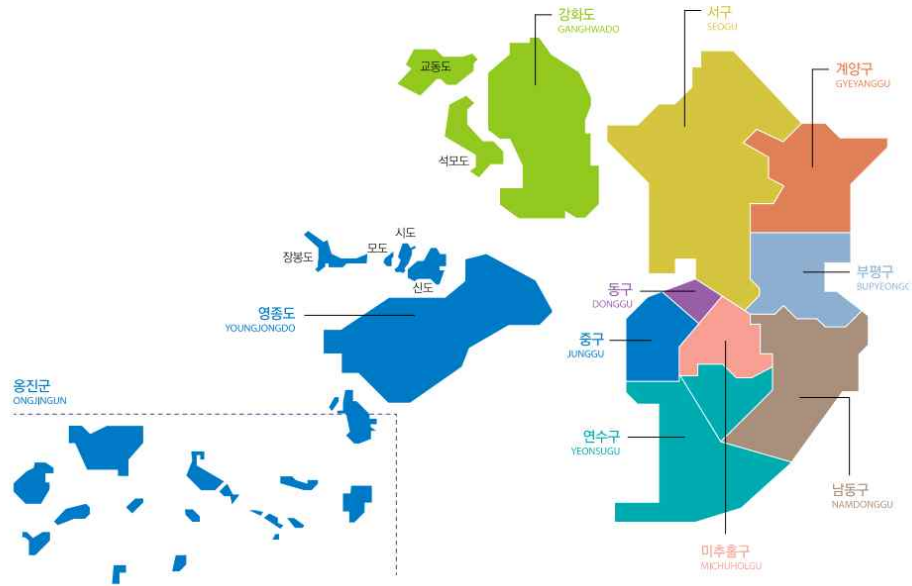
- 최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과 함께 2015년 유엔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인천 78개 지표」내 사회분야에 포함된 문화영역 지표는 도서관수, 공연·전시개최 건수 및 관객비율, 문화단체수 등 정량지표가 대부분이므로 미래 문화환경을 대비하는 지표로 다소 미비한 측면이 있음
-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위기사회에 대응하고 자연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의 환경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표와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SDGs 이행 지속화를 위한 문화적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SDGs의 전 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과 실천력을 지속가능한 목표와 연계하여 조망함으로써 인천의 미래 도시환경과 시민 파트너십에 따른 인천 문화정책을 제시함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발전 이행 로드맵 및 평가지표를 발굴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22년 8월 ~ 12월
- 연구의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일원



〈그림 1-3〉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 제61회 인천통계연보(2021년)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인천의 SDGs 이행 환경분석 및 문화발전 도출을 위한 현황 조사
 - 인천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포함한 자원 조사 및 분석을 통한 SDGs 이행을 위한 환경 분석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방향과 역할을 위한 현황 조사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문화 정책의 미래 전망과 대응 방안의 제시
 - 유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 UCLG, 이클레이와 같은 지방정부 기구 등 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사례와 함께 국내 SDGs와 문화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 및 소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인천 지속

가능발전목표(I-SDGs) 등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속의 문화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서울, 경기, 충남, 광주 등 특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속 문화의 역할과 위상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SDGs 항목별 인천 문화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구체화 하는 4대 전략(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삶,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¹⁾ 수립
- SDGs 17개 목표의 항목별 인천 문화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지속가능한 인천 문화발전 이행 로드맵 및 평가지표 개발

- SDGs 2030 목표달성을 위한 인천 문화발전의 비전과 로드맵 제시
- 인천의 비전과 로드맵의 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평가 지표의 개발
-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문화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체감하는 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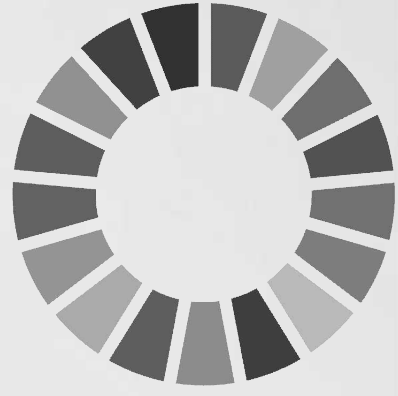
○ 문화적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력 제고 방안 제시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화의 역할을 제시하고, 비전과 로드맵에 부합한 인천 문화발전 프로그램의 개발
-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을 통해 실행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문화적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개발된 지표를 통한 주기적인 평가(2년 단위)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제시
- 매년 시행하는 인천사회조사와 연계해 인천의 문화 지표로서 개발된 지표 반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1) 유네스코(2019)의 '2030 의제를 위한 문화 지표'의 기준으로 4대 전략을 구분할 수 있음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문화 정책의 연계성 검토

1. 문화적 측면에서 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변화
2. SDGs와 문화의 국외 사례
3. SDGs와 문화의 국내 사례

1. 문화적 측면에서 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변화

□ 문화의 정의

- 문화인류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Sir Edward Burnett Tylor, 1832~1917)는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함
-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의 개념을 "예술과 예술적 활동으로서의 문화(좋은 취미로서의 문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과정과 발전(경작, 계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함(Williams 1983)
-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세계선언문에서는 기능적 의미와 인류학적 의미에서 문화를 정의함²⁾
 - 기능적 의미의 관점에서 문화는 인간의 지적 및 예술적 창의성의 다양한 표현(과거 및 현재)을 다루고 전달 및 갱신을 담당하는 개인, 조직 및 기관으로 구성된 활동의 조직된 부분을 의미함. 즉, 예술 및 문화 표현은 주로 유산 및 창의성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 영역인 '문화 부문'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됨
 - 활동 분야로서의 문화에는 문화 종사자, 예술가 및 기타 창의적인 전문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함
 - 영리사업, 예술과 문화 분야의 비영리 기업, 박물관 및 갤러리, 유적지,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 문화 기관, 예술 교육 및 훈련 기관, 예술 및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부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NGO 및 시민 사회
 - 인류학적 의미에서 개인 및 집단 행동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다양한 가치, 규범, 지식, 기술, 개인 및 집단 신념)을 나타냄
 - 이러한 가치와 규범의 의미에서 문화는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자신의 존재와 발전에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무형의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세계선언문, 2001.11.2.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반영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며, 문화적 지속가능성이란 삶의 방식이 그 과정과 전개 경로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

- 특정 시기 특정 장소의 문화를 규정짓는 삶의 방식은 사람이 자연을 또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본질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근현대 자본주의적 산업화 사회의 지구적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문화의 경우 다양성보다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가 만들어낸 보편성을 일반적 특징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 관점의 도시 지속가능성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문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

○ 문화, 문화유산, 문화자원의 개념으로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물론 이러한 정의가 문화와 연계되는 복잡한 주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는 문화의 개념이 갖는 역동적인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음

- 문화는 커뮤니티, 사회 또는 사회 집단을 특징짓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능적, 감정적 기능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음. 이는 미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류의 근본적 권리, 가치 체계, 전통과 신앙을 포함하며, 과거부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생활 또는 동시대적 특징과 커뮤니티의 가치를 아우르고 있음
- 문화유산은 관습, 관행, 장소, 물건, 미적 표현, 가치를 포함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 커뮤니티가 개발한 삶의 방식의 표현이며, 문화유산은 일반적으로 무형 또는 유형 문화 자산을 말함
- 문화자원은 모든 유형과 무형의 유산과 커뮤니티의 생활 문화 요소를 포함함

○ 문화 다양성(Culture Diversity)은 혁신, 창조, 변화의 원천으로, 인류 공통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함. 문화 다양성에 대해 UNESCO와 UNEP는 2002년 고위급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문화 다양성은 변화가 없이 단순히 보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독자성을

가진 주체들의 대화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함. 이는 무엇을 정말로 보존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으로 일상의 대화를 인정한 것임. 여기에서 다양성과 대화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묶는 인과관계는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인류가 말하고 이해하는 일상 언어가 문화 다양성을 지속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다양성은 모든 일상에서 특징의 발견을 이끌며 인간성에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요소로 나타남.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은 개인, 사회, 인류를 통합함
-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의 도덕적인 비전이 지방의 문화적 열망과 가능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더 굳건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 다양성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의 목표에 타당성을 부여하며 도덕적인 비전을 보다 구체화함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정책 변화

- 1987년 브룬트란트위원회가 UN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 이후, UN 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가 설치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개념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1987)에 등장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전적 정의에 해당하는 이 개념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일종의 정치적 결과물로도 볼 수 있음 (Giddings, Hopwood, O'Brien, 2002)
- 이전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 환경 보호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임. 즉 환경 문제는 경제,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임(정기섭, 2019: 13)
- 1992년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Rio Summit),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 Rio+20 회의)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논의에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존의 측면으로, 다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 향상을 추구하는 균형 개념으로 변화하여 왔음

- 지난 2001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이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문화적 다양성, 교육, 평등, 평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인식의 전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하며, 2010년 이미 전 세계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도시인구도 2050년까지 전체인구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담고 있는 도시의 역할과 잠재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논의는 경제, 환경 분야에만 머물러 도시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거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도시 문제를 ‘목표7. 환경의 지속성 보장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의 ‘세부목표 7d. 2020년까지 빈민가에 거주하는 1억 명 이상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하여 다룸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기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관되어 진행되었던 도시 연구의 대부분도 서구의 선진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전통과 발전 경험을 가진 아시아 지역의 도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과정

- 일반적으로 논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가지 영역 외에 일부 연구는 문화를 추가하여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함. 이는 기존의 세 가지 영역이 복합한 현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함
- 문화 정책에 관한 멕시코시티 선언(1982)은 정체성, 가치관, 전통의 매개체로서 문화

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창조성의 원동력인 문화가 개발 과정의 기본적인 측면을 구성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문화발전을 위한 세계 10년(1988-1997), 문화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보고서인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1997)', 스톡홀름 회의(1998년)는 지속가능개발의 문화적 측면을 인정함
-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사회·문화에 관한 국제규약(1966)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하는 비엔나 선언과 행정 프로그램(세계인권회의, 1993)에서 모든 인권이 보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 의존 및 관련이 있음을 강조함. 문화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는 유엔 특별 보고관의 작업에 의하여 최근 더욱 강화됨
-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은 문화 다양성이 인류 공통의 유산이면서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정서적, 도덕적, 정신적 존재가 되어가는 수단으로 설정함
- '문화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2005)'은 문화가 인류 번성의 원천이면서 빈곤의 감소와 제13조(지속 가능한 발전)를 통하여 커뮤니티, 시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함
 - 이 선언은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근원이 되며, 이 견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 영역이 됨
-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의 문화를 위한 의제21(2004)와 '지속가능개발의 4번째 축 문화'선언(2010)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과 절충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에 맞추는 개발 모델 속에 문화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음
- 새천년개발목표기금의 문화와 개발(2006-2012)은 문화에 관한 확실한 고려가 효율적인 개발과정을 이끌도록 하면서, 기록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충실하게 평가된 프로젝트를 통하여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함
- UN 원주민인권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은 제도, 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강화하면서 필요와 열망을 유지하는 개발을 위한 원주민의 권리를 강조함

- 문화 의제 21(Agenda 21 for culture)와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2010년 11월 지방정부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4번째 기둥은 문화”라는 정책 강령을 제시하였음. 이 문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화와 지속가능개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함
 - 첫째, 굳건한 문화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공공정책에서 문화적 측면을 지지함
 - 둘째, 지속가능성의 개념 속에 경제, 생태, 정치, 문화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별함
- EU의 지원을 받는 NoE(Network of Excellence)는 다양한 세계 속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략의 중심 요소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수용능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 UN 결의안 N.65/1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된 약속의 유지”는 개발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기여를 명시적으로 밝힘
- UN 결의안 N.65/166(2010)과 N.66/208(2011)에서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본질적인 기여를 강조하면서, 문화와 개발에 대하여 사회 포용과 빈곤 퇴치의 중요한 요소이자 개발정책과 전략으로 문화를 인지함
-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는 문화에 관한 수많은 자료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문화와 문명의 기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 유네스코 향저우선언(2013)은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중심에서 문화와 직면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요인이자 조력자임을 선언함. 이는 포용적인 사회와 경제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조화, 평화와 안전을 목표를 위하여 문화가 진보된 정책, 전략,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성공적인 기여를 한다는 증거임. 또한 이 선언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국제사회의 요청이었음
- 2014년 유네스코는 발전을 위한 지표(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CDIS)를 발표하고, 문화와 발전에 관한 정의에 부합한 지표 및 평가방안을 제시

- 경제, 교육, 거버넌스, 사회 참여, 성평등, 커뮤니케이션, 문화유산의 7개 영역으로 구분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고, 문화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되었음

○ 2016년 UN 해비타트Ⅲ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17 UN 결의안 A/RES/72/229은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SDGs의 달성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을 재강조했으며, 2018 '2030 의제를 위한 문화'가 발표되면서 SDG 4, 11의 이행을 위한 문화의 역할 제시되었음

○ 2019년 '2030 의제를 위한 문화 지표'가 전 세계 120개국의 문화부 장관이 모여 2030 의제를 위한 문화에 대한 주제와 지표 발표함

- 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삶,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로 구분

연도	국제적 협의	주요내용
1982	멕시코시티선언	• 정체성, 가치관, 전통의 매개체로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
1988-1997	문화발전을 위한 세계 10년	• 문화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보고서인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발행
1993	비엔나 선언(세계인권회의)	• 문화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 강조
1998	스톡홀름 회의	• 지속가능개발의 문화적 측면을 인정
2001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 문화 다양성이 인류 공통의 유산이면서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정서적, 도덕적, 정신적 존재가 되어가는 수단으로 정의
2005	문화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 문화가 인류 번성의 원천이면서 빈곤의 감소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축으로 제시
2006-	새천년개발목표기금의 문화와	• 문화에 관한 확실한 고려가 효율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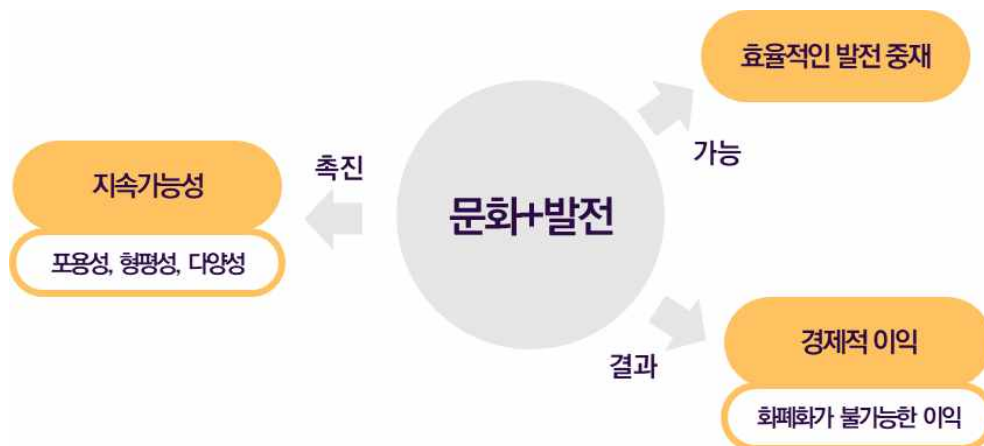
연도	국제적 협의	주요내용
2012	개발	개발과정을 유도
2007	UN 원주민인권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필요와 열망을 유지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원주민의 권리를 강조
2010	지속가능개발의 4번째 축 문화 선언(지방정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요소가 문화라는 정책강령 제시
2010	UN 결의안 N.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의 기여 명시
2011	UN 결의안 N.66/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개발에 대하여 사회 포용과 빈곤 퇴치의 중요한 요소이자 개발정책과 전략이자 주요 흐름에 대한 요청으로 문화를 인지
2012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에 관한 수많은 자료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문화와 문명의 기여에 대해 인정
2013	유네스코 항저우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요인이자 조력자임을 선언
2014	유네스코 발전을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발전에 관한 정의에 부합한 지표 및 평가방안 제시 • 경제, 교육, 거버넌스, 사회 참여, 성평등, 커뮤니케이션, 문화유산의 7개 영역 제시
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
2016	UN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 강조
2017	UN 결의안 A/RES/72/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지속가능발전 : SDGs의 달성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재강조
2018	2030 의제를 위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4, 11의 이행을 위한 문화의 역할 제시
2019	2030 의제를 위한 문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120개국 문화부 장관이 모여 2030 의제를 위한 문화에 대한 주제와 지표 발표(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삶,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로 구분)

[표 2-1] 문화적 측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

□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최근 논의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한다.”는 주장이 더욱 크게 부각됨
 - UN 작업반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문화영역의 실천 활동만이 아니라 통계자료, 지표 및 데이터는 문화가 커뮤니티,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과 함께 개발을 위한 강력한 견인을 한다고 지적함
 - 특히 경제와 빈곤 경감에 있어서 문화적 영역의 기여와 관계가 있고, 문화유산, 문화 및 창조산업,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문화 기반시설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과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밝힘
- 문화가 개발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UN 작업반의 세부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음
 - 문화 정서적 접근은 혁신적이며, 여러 가지 방식에서 복잡한 개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면서도, 빈곤에 대한 경제 및 인권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확실하게 설명함
 - 실제로 문화는 현재의 개발 논의를 확대하고 개발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도록 기여하는 등 현존하는 개발의 접근방식에서 볼 때 혁신적인 힘을 갖고 있음
 - 문화적 배경과 장소 및 커뮤니티의 독특함에 반응하고,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지니면서 개발의 중재에 나서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성, 포용성,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인권의 측면에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인식과 촉진은 국가 간, 다른 문화 간 대화를 용이하게 하면서 충돌을 예방하고, 소수자 그룹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조건을 만듦으로써 개발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함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음
 - **거버넌스로 통합되는 문화** : 포용성, 형평성, 지속가능발전이 진전되도록 개념, 수단, 개발의 실행에 있어서 문화로 통합됨

- **경제 개발과 빈곤 감소를 위하여 문화 영역의 기여를 활용** : 양질의 문화를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자극하면서, 기업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의 하위영역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문화와 창조산업, 문화제도, 문화기반 도시 재생을 촉진함. 또한 문화가 견인하는 경제개발은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독특하면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구성하는 문화적 자산은 보호할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지식의 활용** : 지속가능한 환경계획에서 전통지식과 실천을 통합하고 전통적인 환경 실천과 첨단 기술 간의 시너지를 찾음
- **사회적 결합을 촉진하는 문화 창출** : 사회적 결합을 견고하게 하는 다른 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데, 이는 발전을 유도하는 환경을 창조함. 총돌 또는 재해 이후의 상황에서 특히 사회적 결합과 개발 창업을 촉진하는 청소년들의 예술 잠재력을 활용함



〈그림 2-1〉 문화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자료 : UNESCO(2012),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문화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며,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문화가 SDGs의 전면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주류적 인식이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한 요소에 국한하여 보기 때문임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4번 목표에 ‘문화’에 관한 일부 세부목표가 설정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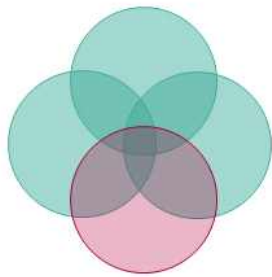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목표	키워드	세부목표 키워드
목표4	양질의 교육	문화다양성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관광 진행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관광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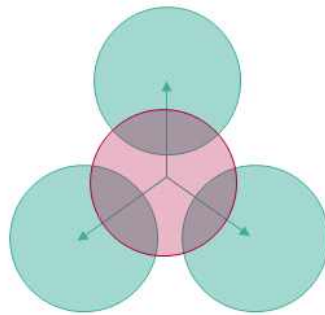
[표 2-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문화에 관한 목표와 세부목표의 키워드

- 하지만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문화가 단독 목표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로 나온 2030 의제는 문화 측면에 대한 몇 가지 명시적인 참조를 포함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반에 걸쳐 문화는 다양한 목표와 대상 전반에 걸쳐 교차 방식으로 통합되는데, 이 목표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는 (...)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조력자임을 인식한다.'
- Desseind 외(2015)는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함. 이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문화가 네 번째 영역으로써 추가되는 지속가능발전 속의 문화, 문화가 세 가지 영역의 중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지속가능발전 자체로써의 문화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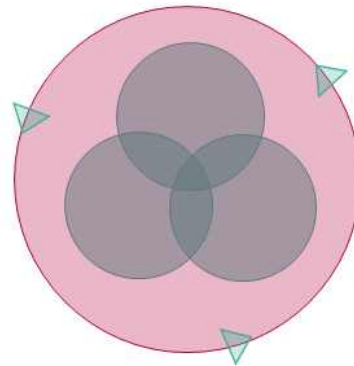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의 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지속가능발전으로서의 문화



〈그림 2-2〉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모델

자료 : Dessein et al., (2015), Culture in for and as Sustainable Development: Conclusions from the COST Action IS1007 Investigating Cultural Sustainability.

- 지속가능발전 속의 문화는 지원하고 스스로 알리는 역할을 하며, 독립적인 4번째 영역으로써 거의 논란의 여지없이 전통적인 지속가능발전의 과정으로 확장되고 있음. 문화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고려와 지속가능성에 긴요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자주적인 영역을 갖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는 보다 영향력 있는 힘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하여 문화가 테두리, 상호 연계, 중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사회, 생태적 요구와 필요 사이에서 각 영역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함
-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간이자 구조로써 문화를 보는 지속가능 그 자체인 문화의 역할이 있음. 문화를 모든 인간 결정과 행동의 근간이면서 지속가능발전 사고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화와 지속가능성이 상호 뒤얽히면서, 지속가능성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역 간의 간격이 사라지기 시작함

2. SDGs와 문화의 국외 사례

1)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논의

□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

- 2016년 UCLG³⁾는 문화를 위한 의제(Agenda 21 for culture)로 걸쳐 21(Culture 21)이라는 운동을 추진하면서 왜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함
 - 문화는 인간 발전으로 통합되며,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기본 구조를 구성함. 지방의 문화 활동에서 시민의 활동적인 참여(시, 춤, 조각, 연극, 음악 등)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와 선택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지방의 문화는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오래되면서 진화하는 문화의 영역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삶과 창조로부터 진화하는 점진적이고 혼합적인 변환을 내포하고 있음
 - 지방의 문화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원이자 사회통합과 평화를 장려하는 수단이 됨. 지속가능개발의 맥락에서 문화는 사회적 구조이며, 지방의 문화정책은 커뮤니티 개발에 있어서 응집력, 유쾌함, 시민권을 촉진하는 핵심이자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문화적으로 알려진 도시개발은 참여 과정을 고취하는데, 문화는 도시 거주자와 세계의 시민으로써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함. 시민이 가진 문화를 갖고 미래를 향하여 정체성과 지방의 지식을 진전시키도록 도시의 과거에 대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음
 - 한마디로 문화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기대하는 바가 투영되는 것임. 특히 문화적으로 세심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은 문화와 정치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하층은 존재처럼 생각되는 개인과 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함. 도시의

3)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UN이라 불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지방자치단체연합(IULA)과 세계도시연맹(UTO)이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UN(국제연합)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자치단체기구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해결해 나가기 위한 비정부 연합체이다. (출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

새로운 상상은 시민들에게 개인과 장소적 감각을 형성하게 함

- 2017년 제주에서 열린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문화를 위한 책무 및 행동’임
 - 여기에서 책무(Commitments)는 문화를 위한 책무(9개)를 뜻하며, 문화권리, 문화유산·다양성·창의성, 문화와 교육, 문화와 환경, 문화와 경제, 문화·평등, 사회통합, 문화·도시계획·공공공간, 문화정보, 지식 및 문화 거버넌스를 의미함
 - 행동(Actions)은 문화를 위한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100개의 행동을 뜻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2014)는 “경제적 및 정치적 생활에서 효과적인 참여는 보다 폭넓게 학습의 전체론적인 틀을 요구하면서, 물리적인 웰빙, 사회와 인지적인 기술, 문제의 풀이와 학습 능력, 문화와 예술, 비판적 사고,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문학과 산술능력을 아우른다.”고 언급함
 - 도시는 지방의 회복력과 개발 잠재력을 향상시키면서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촉진하며 이끄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의 문화적 근원과 창조성을 사용함. 문화 활동과 표현은 환경의 변화 과정을 촉진하고 환경적인 건전성과 지방의 생태계와 연계하여 사회적 결합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고취할 수 있음
 - 표현을 위한 문화 활동과 수단은 도시와 농촌 환경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함
 - 지역 내에서 문화적 자원과 기관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름
 - 주요 문화 기관은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작은 도시에서는 작은 규모가 설치됨
 - 도시는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아니라 문화 산업이 집중함. 그리고 다양성의 정도만이 아니라 문화 서비스와 시장 연계에 있어서 작은 도시와 비교하면 큰 대도시 중심시가지에 위치함
 - 그러나 세계화로 인하여 특징적인 도시의 정체성과 개발의 중요성이 동질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는 중요하게 작용함. 또 경제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한 지렛대이자 촉매제로 사용되고,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사상의 근원으로써 삶의 질과 시민

의 웰빙의 측면에서 폭넓게 인식됨

- 유네스코는 2016년 UN 해비타트Ⅲ를 준비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도시 유산을 통합하는 도전과 잠재성에 주목한 보고서를 발간함
 - 여기에서 전통적인 정체성을 가진 많은 커뮤니티는 역사, 장소, 전통을 통하여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집합적인 권리를 이끌어내고 표현함
- 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는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여김
 - 유엔 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2007)에서 인정하는 고유한 지식, 문화, 전통적인 실천은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에 집합적으로 구성된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에 크게 기여함
 - 원주민은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고 만드는 권리를 가지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보장하여야 함. 여성, 어린이, 다른 소수자 그룹의 권리는 동일하게 중요한데, 이는 문화적 정책이 다른 어떠한 차별 또는 반대를 강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최근 SDGs 달성을 위해 문화의 가치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문화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⁴⁾
 - 300개 이상의 출판물에서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문화적 특성이 17개 SDG 모두와 SDG 목표의 133개(79%) 달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음
 - 다만, 문화적 가치가 SDG의 목표 달성 26%를 설명하지만, 그 연관성은 문화적 특성과 지표에 따라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함

□ 해비타트Ⅲ의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강조

- 2016년 해비타트Ⅲ에서 채택한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선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전제 속에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4) Xinzhu Zheng etc(2021), Consideration of culture is vital if we ar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e Earth, Volume 4, Issue 2 : 307-319.

의 참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경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제시함

- 이 안에도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문화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10. 새로운 도시의제는 문화 및 문화적 다양성이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개발 이니셔티브에서 적극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시, 인간정주지 및 시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한다. 문화는 자원의 책임 있는 이용에 공헌하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증진 및 이행에 있어 문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 컬처 21(Culture 21)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으로써 평화와 사회 융합을 위한 문화

- 문화는 커뮤니티 내의 인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민참여, 커뮤니티 권한 부여, 사회 융합을 하게 함. 문화 프로그램은 새로운 이민자를 포함한 신규 이주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함
- 지방의 문화 활동과 표현은 지식을 제공하고, 인지도를 높이며,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주민들을 관련시키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음
- 지역 문화와 문화적 접근 방식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이해와 교환을 촉진할 수 있음
- 문화 정책은 간혹 서로 다른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만드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설명 부족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있어서 유용하며, 상호 문화적 대화를 통해서도 갈등은 해소할 수 있음
- 문화 행위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과정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

○ 문화와 경제개발

- 문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진보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는 문화 및 창조 산업, 사회, 문화 및 경제를 교차시키는 활동의 기초를 형성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매우 강력하게 문화적 요소를 통합함. 한편, 전통 공예품은 국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동차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소비제품에는 문화 디자인이 포함됨. 소비재의 가치는 디자인과 상징적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은 문화적 표현과 그 과정을 통하여 고유 제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눈에 띄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
- 지방 문화는 영화, 온라인 제품, 게임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콘텐츠를 제공함.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경제적 교환을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창조 경제에 크게 기여함
- 지방 문화 활동과 표현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 유산, 문화 산업, 예술 및 공예,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및 문화 인프라는 수익 창출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 문화 다양성은 경제적 진보와 연결되어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수 있음
- 문화 활동이 기업의 역량 및 기술을 육성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지방 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중에게 말하고 새로운 시각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적절한 파트너십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문화는 소득, 고용 및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경제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책과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에 민감해야 하며,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정성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지방 정책입안의 문화

- 지방정부는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점에만 충실하기보다 시민들의 우선순위에 문화 정책을 집중하여야 함. 시민 중심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 이 접근 방식은 제공되는 문화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하고, 문화적 제안 및 기회를 다양화하며, 도시 정책 개발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지방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의 전통적 역할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각자 고유한 관심사와 함께 공유되는 관심사가 있음.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접근법은 각 부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최근 지방정부의 경향임
- 모든 정책 및 개발 결정을 위한 문화적 시각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는 지역계획에서 문화적 차원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관한 문화유산의 관리와 지역개발에 관한 다양한 지침적인 문서도 중요할 것임
- 민첩하고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정책과 행동을 지속가능발전의 경로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시민권, 참여, 민주주의

- 문화 다양성과 문화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정의된 기준보다는 거주에 기반을 둔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시민의식 개념의 일환으로 홍보해야 함. 특히 이 변화의 주체는 이주자, 청소년 및 여성에게 해당됨
- 문화 다양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산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촉매제임. 폭력을 경험하거나 분할되어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문화는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문화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소외되거나 빈곤한 사람들 또는 불우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자신의 편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함
-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은 함께 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다문화 전략과 그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異)문화 전략을 통합하여야 함
- 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만들고 양성 평등을 장려하여야 함. 양성평등 문제를 문화 정책의 중심에 두는 전략도 고려하여야 함.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문화 활동의 가시성과 지위를 높이고, 홍보하며,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

- 문화유산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들과 공동체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자원임. 무형의 문화유산과 건축 유산의 의미와 관습은 계속 살아 있으며 끊임없이 진화함. 이들을 역동적인 방식으로 삶과 사회에 통합되어야 함

- 도시는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역 유산과의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갖고 있음. 문화는 종종 처음 정착한 옛 사람들과 해당 사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토지, 장소, 경관, 산, 바다, 강 등의 요소에 의미를 부여함
- 따라서 경관에 대한 사고는 모든 공간(심지어 훼손된 환경까지도)이 환경적이면서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재평가해야 함을 인식하게 함
- 도시 개발 계획과 정책은 유산 보존 및 창조적 실천과 통합되어야 함. 특히 문화적 쟁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유산의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기억, 창의, 공존을 막고, 균질화만을 촉진하며, 시민의 문화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하게 됨
- 이미 목록으로 정리된 문화유산 외에도 상세한 유산 목록과 문화유산의 지도화(mapping)가 필요함

○ 공간계획, 문화 기반시설, 공공의 공간

- 공공공간은 도시의 정체성과 경관을 위한 열쇠이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의 장소임. 공유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속하고 문화 또는 교육과 같은 다른 일반 재화와 체계적인 관계를 맺음
- 도시 디자인과 인프라는 디자인과 사용의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관련성과 공명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디자인의 측면에서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우리 스스로가 보여야 하고, 사용의 측면에서는 도시의 공공장소와 기반시설이 다양한 거주자로 하여금 문화적 실행과 표현을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구조와 도시 공간은 그 양식이 구조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공간으로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함
- 도시 및 지역개발의 계획과 정책, 건축 및 용도지역제는 문화 및 문화유산과 통합되어야 함. 이는 단순한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문화적 행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명확한 문화 콘텐츠로 몇 가지 행동을 식

별하게 함

- 문화유산의 영향평가 및 문화영향평가는 주요 개발 활동이나 도시에서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어야 함
- 문화적 기반 시설은 공개 대화, 반복적 운영 및 지역 관리를 위한 참여 공간을 개발할 수 있음. 이러한 참여 방식은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망 있는 시설에서도 모든 규모로 발생할 수 있음
- 역사적인 도시 공간은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으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함. 앞산과 뒷산, 강과 하천, 공원을 포함한 도시의 자연 유산은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하며, 이 요소들은 신중한 보존, 관리 및 도시 개발 계획과의 통합을 요구됨

○ 문화와 지방 커뮤니티

-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 청년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음. 창조와 문화 참여 과정은 지평을 상상하며 확장하고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 문화적 경험은 자기 지식, 자기표현, 자기 결정, 삶의 만족과 행복을 넓히는 역량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평생 학습은 예술을 포함하는데, 예술과 교육에서 예술과 청소년으로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모든 수준의 교육 시스템에는 문화 간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 포함되어야 함. 다양성, 창조성, 유형 및 무형 유산의 인정과 가치 평가가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전달, 혁신적인 표현, 문화적 연계를 위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기술 개발이 포함됨
- 지역의 미디어를 장려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수용하여 도시의 공공 영역으로 다양한 범위의 시민들을 끌어 들이고 참여하도록 해야 함
- 문화적 차원을 커뮤니티 재생의 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모든 문화적인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반시설과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를 존중하여야 함. 문화적 이니셔티브는 불량주거지 개선, 원도심과 주변지역의 재생, 새로운 지구와 근린지역의 창설 등의 모든 지방 도시화 과정에서 필수적임. 이는 기억과 유산, 창의력, 다양성, 지식공유 및 참여가 지속가능성과 지방의 시민 정신에 대한 주요 가치를 다루기 때문임

○ 회복력과 기후변화

- 전통적인 지방의 지식 및 건축 기술은 경우에 따라 지역 환경 조건에 가장 적합함. 문화는 기후 변화 및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지방과 역사적인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상황에 알맞은 회복력에 대한 현지의 지식을 제공함
- 문화는 생태 발자국의 영향, 슬로우 푸드처럼 생산 및 소비의 혁신적인 패턴을 바꾸고, 환경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다시 연결하는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예술적 활동은 공개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하고 지방의 환경과의 연계를 장려하며 집단행동을 촉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만들 수 있음

□ 영국 문화원의 SDGs와 문화를 연결하는 방안

-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은 2020년 잃어버린 기둥(the missing pillar)에서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적 기여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함
- 전반적으로 SDGs를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SDGs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에서 9개의 권장 사항이 제시함
 - SDGs의 언어를 채택
 - 예술 및 문화 부문의 분명한 과제는 SDGs의 언어를 통합하고 채택해야하는데, 이는 주요 기관이나 단체에서 업무의 영향을 더 잘 전달하여 SDG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해당 부문이 목표에 투자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경제적, 특히 사회적 영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예술과 문화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중요함
 - 기관과 단체의 내부 용어를 SDGs에서 UN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식적으로 매핑하여 연관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SDGs의 언어를 예술 및 문화 부문에 적용하여 링크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관련성 있게 만들어야 함

- SDGs에서 예술과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제안된 언어 변화와 함께 예술 및 문화 부문 전반에 걸쳐 역량 구축을 제공하여 해당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SDGs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작업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 모범 사례를 강조하고 해당 부문이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며, 훈련의 예는 참여적 전달 방법이나 수혜자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예술 및 문화 분야의 실무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갖는 보다 넓은 사회적, 경제적 차원과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유네스코는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5년 협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점차 대화를 전환하고 있음
- 문화 계획을 개발, 전달 및 평가할 때 공동체의 구성원 및 파트너와 협력
 - 커뮤니티 구성원 및 파트너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SDG에 따라 커뮤니티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임
 - 공동체 구성원 및 파트너와 협력하면 문화 중심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지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술과 문화를 통해 개별 SDGs에 대응하는 특정 결과를 옹호
 - 개별 SDGs에 대응하여 설계된 프로그램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러 부문에서 예술과 문화를 활용하여 SDG 목표 및 지표에서 강조된 특정 정책 결과를 옹호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주류화할 주요 목표 및 지표를 선택
 - 일부 SDG는 분야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SDG 1(빈곤종식), SDG 5(성평등), SDG 17(파트너십)과 같이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목표를 주류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SDG가 있음

- 조직이 목표를 수립하고 유네스코의 새로운 문화 주제 지표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에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병렬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음
- 모든 프로그램이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일련의 지표를 선택함으로써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옹호할 수 있음
-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종단적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기준 데이터를 수집
 - 지속가능발전은 장기적인 과정이며 즉각적인 여파에 대한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움. 상황에 접근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 작업을 제공하는 데 있어 현장의 장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SDG 목표 및 지표 달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의 자료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집되고 소득 및 일상 생활의 변화, 참여한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 한편,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 조직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질적 및 양적 지표가 모두 필요함
- 이해관계자, 미디어 및 디지털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 다양한 SDG의 목표가 특정 정책의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문화 계획을 광범위한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와 연결하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음
 - 프로그램에 모니터링 도구 및 대상이 포함된 명확한 소셜 미디어 전략이 있는지 확인하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정책 목표를 통합하면 구체적이고 지역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자립적인 사회 운동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SDG에 대한 참여를 높임

- 디지털화는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사회 생활, 연결성, 경제 및 문화 기관을 변화시키면서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며, 디지털 참여의 성장으로 문화적 경험과 청중의 접근 및 상호 작용이 크게 재편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함
- 디지털 기술은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창조경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일자리 창출과 국제 시장의 기회를 창출함
-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창조 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출현과 변혁적 변화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음. 디지털 기술의 상호작용적이고 몰입적인 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함
- SDGs를 달성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에 비추어 볼 때,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거버넌스 및 인센티브의 틀을 공정성, 투명성, 공공 접근 및 개인 정보 보호 권리와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균형, 창의를 위한 새로운 시민문화 육성, 고도로 디지털화된 미래를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음
- 기후위기를 포괄적인 주제로 다루기
 - 전 지구적인 지속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 및 문화 작업과 전략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통합할 수 있음
 - 또한 모든 SDG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문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음

2) SDGs와 문화가 결합한 국외 사례

□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목표별 주요 사례

○ SDG 1 : 빈곤종식

- 콜롬비아 지식의 씨앗 뿌리기(Sembrando Nuestros Saberes)
 - 6개의 토착 공동체와 협력하여 문화 유산을 복구하고 강화하여 문화적 생존, 지속 가능성 및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집회, 현장 방문, 문화 유산 지도 작성 및 문서화, 맞춤형 세대 간 워크숍 및 연구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능력 구축 및 보호를 위해 장로들과 함께 제공함
 - 프로그램 주제에는 민족 생태 관광, 창조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이해 관계자 및 동맹국과의 협력이 포함되며, 지역 사회는 국가 공예품 박람회 및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학습, 교환 및 문화 유산의 가시성과 이해를 공유



〈그림 2-3〉 콜롬비아 지식의 씨앗 뿌리기(Sembrando Nuestros Saberes)

자료 : 영국문화원, <https://www.britishcouncil.co/>

- 베트남의 미래 과거의 유산(Heritage of Future Past)
 -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의 음악 및 영화 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

- 소수민족 및 농촌 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 유산 분야는 지역 사회에서 지역 역량을 보호하고 구축하기 위한 교육, 보존, 지역 사회 기반 관광, 연구 및 문서화에 중점을 둠
- FAMLAB(Film-Archive-Music Lab)은 현대적 관행, 실험 및 혁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예술가, 창작 활동가 및 기관과 연결하며, 문화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공개 협의 및 고위급 토론을 통해 정책 입안자 및 청중과 교류함



〈그림 2-4〉 베트남의 미래 과거의 유산(Heritage of Future Past)

자료 : 영국문화원, <https://www.britishcouncil.co/>

- 케냐의 #CultureGrows
 - 청소년 참여 및 기술을 촉진하여 문화 유산의 가시성, 소유권, 접근성, 포괄성 및 전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파트너인 Book Bunk와 함께 이 프로젝트는 오래된 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문화, 학습 및 참여의 중심지로 만들

- 아프리카 디지털 유산(African Digital Heritage), 마운트 케냐 대학교(Mount Kenya University) 및 스코틀랜드 서부 대학교(University of West of Scotland)와 협력하여 개인 및 조직에 기술 및 이전 가능한 기술을 제공함
- HEVA 동아프리카 기금과 함께 종자 보조금은 케냐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문화 유산을 홍보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했음

○ SDG 4 : 양질의 교육

- EU의 The 4Cs 프로젝트
 - '갈등에서 창의성과 문화를 통한 공생으로'라는 EU의 창의 유럽 프로그램 (Creative Europe Program)이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 협력 프로젝트



<그림 2-5> The 4Cs 프로젝트

자료 : 4Cs 홈페이지, <https://www.4cs-conflict-conviviality.eu/>

- 예술과 문화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갈등 현상을 다루는 창의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 제작을 통해 관객 개발에 기여함

- 이 프로젝트는 문화 간 대화의 개념적 틀을 발전시키고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만남을 통해 공생을 촉진하는 공공 예술 및 문화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시회, 예술 및 연구 레지던시, 영화 상영, 중재 연구실, 워크숍, 컨퍼런스, 출판물, 온라인 플랫폼 및 여름 학교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이 활동은 대부분 관련 기관과 국가에서 비유럽 예술가, 큐레이터 및 기타 문화 창작자(즉,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 출신)가 예술 컬렉션 및 문화적 관행과의 상호 작용을 반영하는 작업을 개발하도록 초대하며, 그들은 유럽의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상황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반영하여 비유럽의 교육, 문화, 문화에 대한 더 큰 인식에 기여하는 새로운 해석적 틀을 제공함



〈그림 2-6〉 미국 MIT의 HASS 수업

자료 : MIT 홈페이지, <https://shass.mit.edu/>

- 미국 MIT의 인문, 예술 및 사회과학(HASS) 수업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인문, 예술 및 사회 과학(HASS)’ 학습은 학부 교육의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고, MIT의 커리큘럼은 지난 50년 동안 모든 학부생이 문학, 언어, 경제학, 음악, 철학,

연극 및 역사와 같은 주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요구하도록 크게 발전해, 모든 MIT 학부생은 총 수업 시간의 거의 25%를 차지하는 최소 8개의 수업을 들음

- HASS를 도입하는 동기는 혁신가가 되기 위해 미래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인간의 복잡성, 즉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인문학, 예술 및 사회 과학에서 배양된 강력한 사고 방식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창조적인 장소 투암(Creative Places Tuam)

- 창조적인 장소 프로그램은 예술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2016-2025년 위대한 예술 작품 만들기 전략에 대한 약속으로 추진됨



〈그림 2-7〉 아일랜드의 창조적인 장소 투암 프로젝트

자료 : CP Tuam 페이스북

- 주요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주요 자산, 자원 및 야망을 파악하고, 창조적인 장소(Creative Places)는 지속적인 공공 예술 투자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없었던 전국 지역 사회를 위해 개발된 파일럿 프로그램임

- 아일랜드 서부의 창조적인 장소(Creative Places Tuam, CP Tuam)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되는 최초의 3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의 협동 예술을 위한 국가 개발 기관인 Create가 주도함
- CP Tuam은 창의성과 예술 참여에 대한 풀뿌리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부유하고 참여적인 사람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레지던시, 커미션, 창의적인 교류 및 개발의 날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 SDG 5 : 성평등

- 팔레스타인 문화부의 성 주류화 정책

- 팔레스타인에서는 가부장적 사회, 직업제한, 지역 사회의 지원부재로 인한 제한으로 여성들이 문학, 공예, 농업 생산, 영화, 예술 등과 같은 생산의 맥락에서 문화에 기여했지만, 정책과 활동에 대한 여성의 관점과 기여가 거의 없었음



<그림 2-8> 팔레스타인 문화부의 성 주류화 프로그램

자료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und

-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여성과 청년들 사이에서 성장 둔화와 높은 실업률로 고

통받고 있었음. 공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문화 다양성 개념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문화 관련 활동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창출하는 것이었음

-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성별 관점의 주요 격차 식별, 문화부 기능직 인력의 수요 평가를 거쳐, 성 주류화 실행계획을 수립함
- 유형 및 무형 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수립하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했으며, 문화 유산과 창조 산업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생계를 개선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 SDG 8 : 양질의 일자리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라플라타(La Plata)
 - 다양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로 창조산업과 문화기반시설은 삶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라플라타의 경우, 610명의 실업자 청년과 성인에게 무대 관리 및 기타 공연 예술 기술에 관한 직업 훈련을 제공함



〈그림 2-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라플라타(La Plata)

- 문화와 창의성 분야의 고용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

며, 역사적인 지역의 공예, 음악, 무용, 시각 예술, 전통 요리, 연극 등과 같은 무형 유산에 크게 의존

- 온두라스의 루타 렌카(Ruta Lenca)의 문화와 유산의 유지
 - 이 지역의 중요한 관광 및 문화 명소는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 유산에는 공예, 축제 및 전통, 예술, 음식 및 자연 의학이 포함됨
 - SDG 기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계획을 통해 청소년과 여성을 포함한 취약한 농촌 인구의 빈곤 수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체 수혜자 중 60% 이상이 여성임
 - 이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원주민 그룹, 민간 부문을 통합하고 젠더 기반 폭력과 알코올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와 동맹을 구축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을 취함



〈그림 2-10〉 온두라스의 루타 렌카(Ruta Lenca)의 문화와 유산의 유지

자료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und

○ SDG 11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I Sistema)

- 1975년 Maestro José Antonio Abreu가 베네수엘라에서 설립한 소셜 액션 음악 프로그램으로 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집중적이고 즐거운 음악 만들기에 중점을 둔 명확한 원칙에 따라 어린 나이부터 음악 앙상블 참여를 제공함
- 특히 불우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 공동체 센터에 기반을 두고 진행함
- 엘 시스테마 훈련의 중심은 클래식 오케스트라 앙상블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합창, 민속 음악, 재즈 및 특수 요구 프로그램도 모두 제공되며 이러한 앙상블과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중시함



〈그림 2-11〉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I Sistema)

자료: 엘 시스테마 홈페이지, <https://elsistema.org.ve/>

- 교육 세션은 일주일에 6일, 하루 3~4시간 동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은 또한 수련회와 집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고, 참가비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임

- 현재 수십 개의 오케스트라와 700,000명 이상의 학생이 있으며 1,000,000명으로 확장할 계획임
- 현재 이 프로그램은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확산 중에 있으며, 그 성과는 더욱 증대되고 있음
- 핀란드의 컬처 에스보(CultureEspoo) 2030
 - 에스보 시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창의적이고 대담한 문화 도시가 되기 위한 2030 목표를 세우고 노력 중임
 - 각 부문간의 연계와 협력이 진행 중이며, 도시는 실험적이고 호기심 많은 접근을 통해 번영을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이 도시의 정신, 거주자의 일상, 물리적인 도시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그림 2-12〉 핀란드의 컬처 에스보(CultureEspoo) 2030

자료: Eurocities Culture Forum 자료집(2018)

- 컬처 에스보 2030은 문화와 예술을 도시의 미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도시 계획, 건설, 학습, 사회 서비스 및 건강 관리에서 보다 가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 신념은 문화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

의 장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임

○ SDG 13 : 기후변화

- EU의 도시 변화를 위한 배우들(Actors of Urban Change)
 - 도시 변화를 위한 문화 및 다분야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도시 변화를 위한 배우들(Actors for Urban Change)는 미트오스트(MitOst)의 프로그램이며, 로버트 버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에서 지원함
 - 도시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도시를 위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유럽 전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함



<그림 2-13> Actors of Urban Change의 헝가리 도시녹화 프로젝트 사례

자료 : <https://www.actorsofurbanchange.org/>

- 현재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나,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모델적인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음

- 시네 레지오(CineRegio)의 Green Report 2020

- 시네 레지오는 유럽의 지역 영화 펀드 네트워크로서 현재 12개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및 영국의 50개 지역 영화 기금을 대표함
- 이 보고서는 폐기물 관리, 운송, 영화제의 녹색 인증을 포함한 영화 제작의 지속가능성의 실행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의 모델을 제공함
-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 ROCK (창조 및 지식 도시의 문화 유산 재생)의 녹색 문화 로드맵 : 환경 활동이 도시의 문화 부문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방안
- 변화를 위한 예술 보고서 : SDGs 달성을 위한 예술의 역할 개요
- 이벤트 관리자 및 주최자를 위한 교육 도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제



〈그림 2-14〉 시네 레지오의 Green Report 2020

자료 : https://www.cineregio.org/publications/green_regio_report_2020/

○ SDG 17 : 파트너십

- EU의 All-Around 문화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튀니지, 리비아와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 지역의 7개 국가에서 젊은이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연합이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All-Around Culture는 4년 동안 구현된 5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 협력적이고 상호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36개 문화 단체의 안정성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해당 맥락 내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증가시킴

- 32개의 연구 및 24개의 제작 보조금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문화 및 시민 이니셔티브를 지역 사회 기반 및 상황에 맞는 예술 제작을 지원하는 공동 실험실과 함께 촉진하며, 아랍 지역 및 유럽의 30개 문화 단체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을 교환함



〈그림 2-15〉 EU의 All-Around 문화 프로그램

자료 : <https://allaroundculture.com/>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학습 요구를 연결하고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 및 관행을 더 넓은 커뮤니티와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식 교환을 연습하며, 문화에 대한 열린 접근과 개입 국가의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조치를 옹호하는 플랫폼을 구축함

□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목표별 특징과 주요내용

- 문화예술연합의 네트워크인 컬처 액션 유럽(Culture Action Europe, CAE)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에서 문화 구현 - 의제 2030에서 문화의 역할”에서 문화는 17개 목표 모두에 기여하므로 SDG 프레임워크에 횡단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체적으로 네 번째 기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문화를 통합할 것을 요구함⁵⁾
 - CAE는 2030 의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 EU 기관이 17개의 SDG 이행과 관련된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문화를 통합할 것을 촉구함
 - CAE는 17개 SDG 각각을 이행하는 데 문화와 관련 있는 활동영역을 제시함
- 컬처액션유럽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목표별 활동 영역을 정리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들이 통합으로 펴낸 「SDGs의 지방화에 있어서의 문화」에서 검토한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발전 자발적 보고서(Voluntary Local Reviews, VLR)에 나온 사례들을 <표 2-2>에 정리하고, 일부 목표별 대표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함

목표	특징과 주요내용	사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서비스에 대한 취약 계층의 접근 보장 • 경제·사회적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 빈곤 문화예술인의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투트가르트 2020: 가족 카드 및 보너스 카드 • 케냐: #CultureGrows • 콜롬비아: 지식의 씨앗 뿌리기 • 베트남: 미래 과거의 유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소비 및 재배와 관련된 관습 및 행동패턴 변화 • 문화적으로 적절한 음식 • 문화 경관 및 문화 행위자에 대한 식량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카탄: 시군구 거주 노인 예술가를 위한 식품 공급 프로그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와 약물 중독을 다룰 때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는 문화의 역할 •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의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파울루 2019: 교통 교육 및 검사 조치 • 타오위안 2020: 마약, 금연→ 걷기 • 부에노스아이레스 2020: 문화 콘텐츠

5) Culture Action Europe, “IMPLEMENTING CULTURE WITH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culture in Agenda 2030”

목표	특징과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문화·여가 정책의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대중에게 제공(연극, 오페라, 발레, 박물관 및 갤러리 투어, 오디오북, TV 시리즈 등) • 광저우 2021: 노인 문화 및 스포츠 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전통 문화에 대해 배움 • 포괄적인 문화 기회 창출 • 문화 및 행동 변화와 생태 및 문화 인식 촉진 • 학교 정규교과과정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의 강화 • 도시 문화 미학과 농업 지식을 증진 •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문화의 보급에 대한 문화 활동 • 문화다양성 교육 •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문화예술분야 전문교육인력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The 4Cs 프로젝트 • 아일랜드: 창조적인 장소 투암 (Creative Places Tuam) • 미국 MIT의 인문, 예술 및 사회과학 (HASS) 수업 • 하마마츠 2019: 어린이들이 예술과 음악, 지역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신베이 2019: 새주민 자녀 교육 프로그램 • 코르도바 주 2020: “지방의 관심을 받는 박물관 및 문화 기관 - 미술 전시회에 포괄적인 참여 • 캔터베리 2019: University of Kent의 새로운 문화 변화 프로젝트 • 산타페 2019: 연극, 시청각 예술, 음악, 무용, 시각 예술 및 문화 산업을 위한 예술적 형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생성 • 브장송 2018: Bisontines 공립 초등학교 문화교육 • 유카탄 2020: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 Espacios Educativos 프로그램. 유카탄의 농촌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공동 창조 • 에스포 2020: 컬처콜 프로그램 • 하마마츠 2019: 문화와 평생학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도구를 활용하여 성 평등을 다루고 인간,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자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 • 예술에 대한 여성의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레스타인 문화부의 성 주류화 정책 • 슈투트가르트 2020: STOP - 가정 폭력에 대한 슈투트가르트 규제 파

목표	특징과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공공·민간 문화기관 및 단체의 여성 처우 개선, 경력단절 해소 및 불균등한 기회 제공 문화부문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체제 구축 및 기초조사 실시 	트너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자원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오위안 2020: 수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 협력: Taoyuan River Education Center, 문화 및 역사적 기지 및 하천 탐험 체험장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교육,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술적 연구 및 혁신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로오리존치 2020: 유적지의 액센트 조명을 포함한 가로등의 에너지 효율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산업/콘텐츠산업 분야 청년 창업·창직 활성화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강화 코로나19로 활동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문화 전문가 보조 예술가를 위한 저렴한 작업 공간 만들기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 및 창조 부문의 역량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타 렌카(Ruta Lenca): 문화와 유산의 유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9: 라플라타(La Plata). 문화, 물질 및 자연 유산을 보호 상파울루 2019: 문화부의 1218 문화 및 창조 경제 프로그램 타오위안 2020: 지속 가능한 관광, 스마트, 저탄소, 관광 어항 뉴욕 2019: 예술가를 위한 저렴한 작업 공간 만들기 타이베이 2020: 도시 안내 시범 프로젝트(해설사)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람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개발 지원 유연한 풀뿌리 커뮤니티 주도 공간을 포함하여 개방형 개념으로 인프라에 접근 문화 기반 시설을 위한 참여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프로토콜을 촉진 영세 콘텐츠기업의 강소·중견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투트가르트 2020: 미래문화실험실 프로젝트 바이켄 2020: KulturArvOpplevelser ['Culture Heritage Experiences']는 Buskerud의 문화와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 및 시장 적응 체험 제품의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학제 간 프로그램

목표	특징과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산업/콘텐츠산업과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전 산업영역에 확대·적용(산업의 문화화)과 문화·예술분야의 산업 육성(예술의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저우: 문화창작산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원주민 집단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사회생활에의 편입, 종교적 권리의 인정, 종교간 대화 촉진 •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문화의 역량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리스톨 2019: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 개선(Ujima Radio) •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9: Migrants in BA 프로그램 • 하마마츠 2019: 하마마츠 이문화 도시 비전 • 바르셀로나 2020: 바르셀로나의 문화 간 계획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문화시설 및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창작공간 제공 • 도시 및 지역계획의 핵심에 문화를 통합 • 도심 유희공간의 문화적 재생 확대 및 부작용(젠트리피케이션) 완화 • 공공 문화공간의 확보와 접근성 강화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과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문화영향평가’활성화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자치 실현 • 문화 행위자 간의 대화와 만남 • 도시 간의 국제 문화 교류 • 유형 및 무형 문화 유산 • 예술 및 문화 생산, 창조 경제 및 예술 및 문화 권리 • 훈련과 교육. •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를 강화 • 문화재 - 재난에 대한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EI Sistema) • 핀란드: 컬처 에스보(CultureEspoo) 2030 • 스코틀랜드 2021: 역사적 환경 전략, '시간 속의 우리의 위치' • 더칭 2017: “아름다운 마을” 프로젝트(생활, 일 및 여행에 적합한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 겐트 2020: 디지털 이니셔티브 • 광저우 2021: Yong Qing Fang 시범 프로젝트(2019 아시아 도시 경관상) • 라파스 2018: 2018년 이베로-미국 문화 수도(UCCI(Union of Ibero-American Capital Cities) 지정)

목표	특징과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농촌 개발 정책에 문화적 차원을 통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가능성 표준을 문화 및 자연 유산 및 목적지 관리에 통합_폐기물 관리 문화 및 창조 부문에서 디지털 방식 문화 종사자 및 작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촉진, 지원 및 보조 희소 자원의 공유와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문화 프로젝트의 출현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코틀랜드 2021: LED 조명으로의 전환, 모든 사이트의 대중 교통에 대한 액세스 설명 및 정보, 케이터링과 소매 시설이 제공되는 지역 및 스코틀랜드 조달, 해당 지역의 산책에 대한 사이트 정보, 동식물에 대한 식별 가이드, 재활용 프로세스 등 타오위안 2020: 청소년 액션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기후 비상 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문화 활동을 포함 문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도시 변화를 위한 활동가들 (Actors of Urban Change) 시네 레지오(CineRegio): Green Report 2020 스코틀랜드 2021: 자동차없는 거리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문화적 관행에 대한 지원을 어업 정책에 통합 연안 생태 보호(연안 문화 경관 보호) 인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오위안 2020: Xinwu Stone Weirs 보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공원 및 문화 경관에서와 같이 문화 및 자연 유산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녹지공간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소프트 파워와 같은 자연 환경 및 자연 기반 전통과 인간의 관계의 문화적 맥락 육상 생태계에서 인간 행동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행동 패턴을 촉진하는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저우 2021: 하이주(Haizhu) 국립 습지공원: 매년 200여 개의 문화행사 뉴욕 2018 시모카와 201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예술산업/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시장지배적 사업의 독과점 방지, 표준계약서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르셀로나 2020: Intercultural Plan of Barcelona 뉴욕 2019: CreateNYC, CUNY

목표	특징과 주요내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산업/콘텐츠산업 분야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분쟁조정 기능 강화) • 예술산업/콘텐츠산업 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촉진 • 메세나 등 문화·예술분야 기부 확대와 이의 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구축 • 인권과 평화와 공존의 문화 • 비폭력 문화 •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일환으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 • 평화 증진 등 대외 관계 전략에 문화적 차원 통합 	<p>Cultural Corps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투트가르트 2020: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 폭력 예방 프로젝트 (MiMi)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권,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에 관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인식 제고 • 공공 문화진흥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및 행정체계 구축 • 민관 협력형 문화정책 의사결정 체제 구축 • 참여 예산 편성에서 문화적 인식 제고 도구 활용 • 문화 참여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빈곤 문제 해결 • 청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행위자와 지역 간의 문화 간 대화 및 파트너십을 위한 역량 구축 • 문화 서비스 제공을 도울 수 있는 비정부 행위자와 협력 • 문화 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All-Around 문화 프로그램 • 하와이 2020: Hawai'i Green Growth Local2030 Hub • 슈투트가르트 2020: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지역 권한 강화" • 하마마츠 2019: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계약 • 상파울루 2020: 법률 14.887/2009에 따른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평화 문화를 위한 지역 협의회의 창설

[표 2-3]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문화적 접근 영역과 사례

* 지방정부명 다음의 숫자는 Voluntary Local Reviews 발행연도임

자료 : Culture in the Localization of the SDGs: An Analysis of Voluntary Local Reviews; 7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Cities - Key Themes and Examples in European Cities;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3. SDGs와 문화의 국내 사례

- SDGs와 문화정책의 접목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적 관점에서 SDGs와 문화정책의 이해 및 문화지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의 이해도를 높임
- SDGs와 관련성이 높은 문화지표, 문화영향평가제도, 지역문화진흥계획, 지속가능한 관광 등의 문화지표와 문화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특광역시와 기초지자체 및 기관의 SDGs와 문화접목 사례를 통해 인천광역시 SDGs와 문화발전 정책에 반영

1) SDGs와 문화지표 및 문화영향평가

(1) 문화지표

□ SDGs와 문화정책 (재)구성(Reshaping Cultural Policies, UNESCO)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ESCO)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즈음에 200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이행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과 모니터링 지표를 제시한 ‘문화정책 (재)구성(Reshaping Cultural Policies)’를 발표
- ‘문화정책 (재)구성(Reshaping Cultural Policies)’에는 ①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지원 ②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 및 예술가와 문화전문인력의 이동성 증진 ③ 지속가능발전체제와 문화의 통합 ④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등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모니터링 분야와 핵심지표를 제시

목표	모니터링분야	핵심지표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지원	문화정책	다양한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창조, 생산, 배급, 접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 지원
		정책 결정에 다수의 정부 관계 기관의 참여 고지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국의 적극적인 지원
	공공서비스 미디어	미디어의 자유와 다양성을 위한 법률 지원

		공공서비스 미디어 목표의 법적 규정과 보장
		모든 사회 단체의 욕구에 충족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
	디지털 환경	인터넷의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법률 지원
		디지털 환경에 시민사회 참여 증진과 디지털 창조를 격려하는 정책 방안
		역동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문화산업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법률 및 재정 지원
		정책 계획과 실행에 시민사회의 참여
		협약을 비준하고 증진하는데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예술가·문화 전문인력의 이동성 증진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글로벌 사우스(south)에서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이동을 추진하는 비정부기구의 계획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문화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지원하는 법률적 기반
		문화상품의 국제적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문화서비스의 국제적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조약과 협정		여러 포럼에서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증진하는 당사국
		국제적·지역적 조약과 협정에 본 협약을 반드시 참조
		협약을 참조하는 국제적·지역적 조약과 협정을 실행하는 정책 방안
지속가능발 전체제와 문화의 통합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 계획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계획에 문화를 통합함
		문화자원의 배급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소수집단이 문화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프로그램에 문화를 통합함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창조산업 분야의 인간과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적 지원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양성평등	문화부문에서 성평등한 법률적 체제 보장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여성을 지원한 정책 방안
		문화활동, 상품, 서비스에 접근하는 여성의 기회를 증진하는 정책 방안
	예술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지원
		예술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정책 방안
		예술가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 방안

[표 2-4] Reshaping Cultural Policies 목표 및 모니터링 분야와 핵심지표

출처: 노영순, 국제사회 의제 분석: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문화정책, 웹진 문화관광(2017.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www.kcti.re.kr/>)

□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 목표로서 문화(Culture As a Goal in Post-2015 Development Agenda)⁶⁾

- 국제예술문화협회(IFACCA), Culture 21, 국제문화다양성연맹(IFCCD), 컬처액션 유럽(Culture Action Europe) 등 문화예술 관련 국제단체들은 2014년 5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목표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고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Culture As a Goal in Post-2015 Development Agenda'를 발표
- 이 선언문에서는 문화를 포용적 사회 및 경제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조화,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 지속가능성의 조력자(enabler)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동인(動因, driver)으로 규정하면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10가지 목표(targets)를 제시
 - 목표 1: 모든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문화를 통합하기,
 - 목표 2: 정책, 법·제도를 통해 모두가 문화로의 동등한 접근과 참여를 허용하기
 - 목표 3: 문화, 예술 및 창조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 확대하기
 - 목표 4: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citizens)의 수 확대하기
 - 목표 5: 문화 분야에 전체 공공재정의 최소 1% 투자하기
 - 목표 6: 문화를 빈곤 해소와 포용적 경제발전의 지렛대로 삼기
 - 목표 7: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체제와 액션플랜을 수립하기
 - 목표 8: 문화를 기반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
 - 목표 9: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가전략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하기
 - 목표 10: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해 문화를 활용하기
-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사회 실천의제의 이행당사국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 전 영역에 적용되

6) IFACCA, Culture21, IFCCD, Culture Action Europe, 2014.05.

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문화는 상대적으로 더욱 소홀히 다루어져왔음

-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포용(inclusiveness), 회복(resilience), 평등(equity), 안전(security), 평화(peace)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롯한 각종 새로운 국제사회의제가 담고 있는 가치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문화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전략은 물론 각국의 문화정책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Post-2015 체제와 한국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문화부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이 요구됨⁷⁾

□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 ‘문화|2030 지표’⁸⁾

-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과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주제별 문화지표(문화|2030 지표)를 개발함
- 문화|2030 지표는 목적지를 찾아 갈 때 현재까지 도달한 정확한 위치를 보여 주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의 이정표와도 같은 존재로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초 작업임
- 문화|2030 지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있어 문화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체계임
- 이 지표들은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 문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SDGs와 정책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영역 간 연계를 촉진하는” 문화의 역할, 즉 문화의 “횡단적” 기여를 평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문화|2030 지표 또한 문화가 지닌 특성인 다면성을 고려하여, “i) 환경과 회복력, ii) 번영과 생활, iii) 지식과 기술, iv) 포용과 참여”라는 네 가지 주제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삼고 있음

7) 노영순, 국제사회 의제 분석: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문화정책, 웹진 문화관광(2017.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www.kct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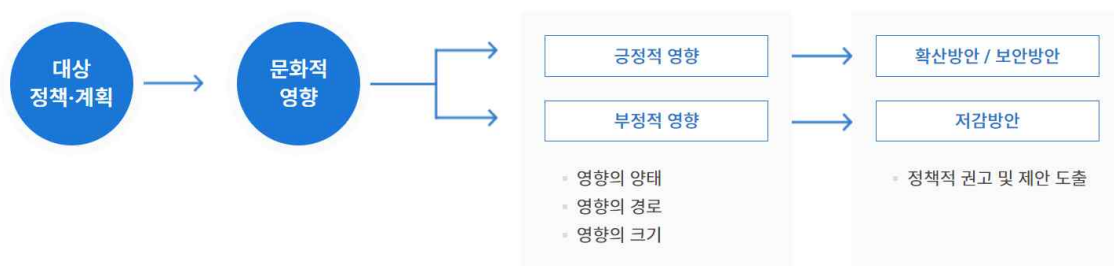
8) 유네스코(UNESCO, 2019). 문화|2030 지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들 4가지 주제는 총체성이라는 문화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여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 주제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다면적인 역할, 그리고 다양한 영역을 가로 지르는 횡단적 기여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이를 통해 2030 의제 내 주제별 지표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아울러 이 지표 체계는 문화부문에서 유네스코의 임무와 관련이 있으면서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가 이미 수집되고 있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2) 문화영향평가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임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법 제5조제4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됨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
 -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



〈그림 2-16〉 문화영향평가의 목적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s://www.kcti.re.kr/web/>)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

을 방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함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그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정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 등을 차등 적용
 - 자체평가는 진단평가와 약식평가, 전문평가는 기본평가·심층평가·전략평가로 구분

구분	평가 유형 및 특징			
	자체평가		전문평가	
평가형식	정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방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	
평가심도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전략평가
	수준 진단 문화영향평가	기초 수준 문화영향평가	보통 수준 문화영향평가	종합 수준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 + 전문가자문단 검토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 + 전문가평가위원 평가	제3의 전문평가수행기관 (전문가평가단 평가)	제3의 전문평가수행기관 (전문평가단 평가·정책 담당자)
평가기간	1개월 이내	1~2개월	4~5개월	5~6개월

[표 2-5]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 및 특징,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s://www.kcti.re.kr/web/>)

-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는 3대 평가영역(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에 따른 공통지표와 각 평가대상을 고려한 특성화지표로 구분됨
 - 공통지표는 평가영역별 2개 지표, 총 6개 지표별로 세부 고려사항을 검토 평가
 - 특성화지표는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 개발과 적용 구성
- 문화기본권 영역
 - 문화기본권 영역은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과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2개 평가지표로 구성됨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을 고려하여 평가
 - 도시 문화향유권: 정책대상(지역민)이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하거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 참석하는 등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하는 권리
 - 문화환경권: 정책대상(지역민)이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문화환경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을 고려하여 평가
 - 문화참여권: 지역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연습·발표 등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정보문화향유권: 사업에 대한 문화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민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민이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정체성 영역

- 문화정체성 영역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2개 평가지표로 구성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을 고려하여 평가
 - 문화유산보호: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에 대한 물리적인 보존·보호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보존·보호까지 포함하며, 비록 지정·등록되지 못했어도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대한 보존·보호까지도 고려
 - 문화유산향유권: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을 방문, 관람, 감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시에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함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평가
 - 지역공동체: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공통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

- 갈등발생가능성: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원들 간의 부정적인 갈등, 분열,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
- 사회적합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공동 결정의 형태

○ 문화발전 영역

- 문화발전 영역은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의 2개 평가지표로 구성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를 고려하여 평가
 - 문화다양성권리: 특정 집단의 문화를 표현·진흥·전달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생산·보급·유통·향유 방식 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을 통해 특정집단의 문화적 독점 혹은 특정 기류에 의한 문화적 획일화를 거부하는 권리
 - 문화평등권: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활동을 배제하지 않고 존중·이해·관용하는 것
 - 문화격차: 문화의 상업화로 인해 지역민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차이를 만들고 문화 소비에 소외되는 일부 계층을 형성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을 고려하여 평가
 - 창의성 발전: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사고, 경험, 도전의 기회를 촉진 혹은 견인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함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이 나타나는 것
 - 미래지향성: 사회 및 사회구성원이 향후 일어나게 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

평가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사업으로 문화접근성이 저하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표현기회와 창작활동이 저하되는가? • 사업자는 사업 계획 및 시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문화정체성	3.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기본적 가치에 훼손을 주었는가? •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가 저해되는가?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문화를 훼손하는가? • 사업으로 사회적 관계 속 구성원 간 분열과 대립이 유발되는가? • 사업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 문화예술인과 지역단체 간 교류와 협력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
문화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지역 내 문화적 획일화에 영향을 주는가? • 사업으로 지역사회 소수집단의 문화적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가? • 사업으로 문화 소비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파생될 수 있는가?
	6.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사회구성원들의 창의성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 • 사업이 지역사회 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표 2-6] 2020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문항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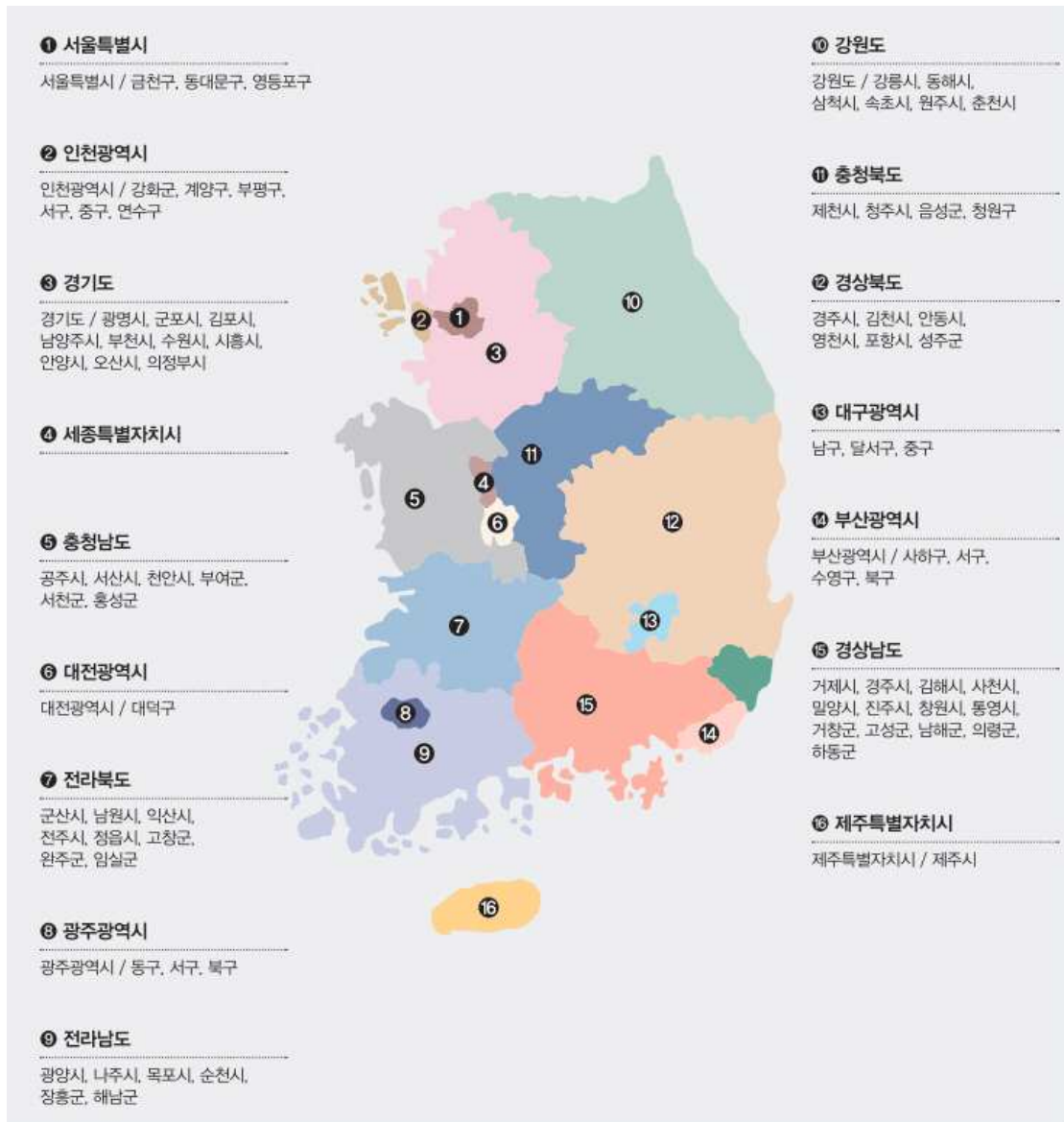
□ 문화영향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법률 제12134호, 2013.12.30.)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01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55건의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8년부터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

으며, 2018년 서울특별시 2건, 경기도 1건, 2019년 서울특별시 3건, 경기도 4건, 2020년 경기도 2건 문화영향평가 자체 시행

-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영향평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은 서울, 부산, 경기, 전남, 충북, 기초는 서울 성북, 경기 성남, 강원 춘천임(2020.12. 기준)
- 문화영향평가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단계는 아님. 제도 도입 당시 농림부, 교육부, 국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평가의 대상범주와 영역은 오히려 줄었음. 정부 각 부처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축소됨
- 서울시는 2015년 평가의 기본방향을 연구하고, 2016년 평가모델과 조례안을 개발하여 2017년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해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나, 평가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등 총 4건을 평가함. 2020년 이후로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시행 초기와 비교해 현재결과는 미미한 상태임
- 인천시의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역사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공원조성사업 등 실시됨
- 2016년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시범사업)
- 2018년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전문평가 I:기본평가), 인천 강화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천 계양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천 중구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년 인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약식평가)
- 2020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계획(전문평가 I:기본평가),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사업계획(전문평가 III:전략평가)



〈그림 2-17〉 지역으로 보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지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영향평가 이렇게 한다

연도	추진내용
2013	• 「문화기본법」 제정(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및 법 제5조제4항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2014	• 「문화기본법」 시행(2014.3.31.)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교통부의 4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5호, 2014.9.11.)
2015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및 강원도의 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2016	• 총 1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2017	• 총 1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영향평가(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평가)시행지원 1건 포함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29호, 2017.8.1.)
2018	• 총 3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주 월성(신라왕궁) 발굴·복원사업 등 총 2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실시 - 문화영향평가의 확산을 위하여 10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활용한 약식평가 10건 추진(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 서울특별시 총 2건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경기도 총 1건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2019	• 총 3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실시

[표 2-7]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 문화영향평가 경과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주: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시행한 자체 문화영향평가 총 11건 포함한 결과임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중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지표물 개발 및 표준 평가지침 마련 공시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명시,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 문화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향평가의 운영체계를 반영
 -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이 필요함⁹⁾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문화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도입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지역 여건에 맞게 평가체계의 재구성이 필요
- 문화영향평가는 법정 평가로 안정적 제도 조건을 갖췄으나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데는 법상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평가로 축소돼 확산이 어려운 상황임
 - 평가 목적도 ‘계획 및 정책의 개선’의 영향과 함께 지역에 미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고려¹⁰⁾
- 영향평가영역의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의 3가지 영역의 6가지 평가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지향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 창의성의 가치와 연관성을 갖고 있음
-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는 Goal.4 양질의 교육, Goal.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Goal.10 불평등 감소, Goal.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Goal.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등과 관련됨
- 인천시 ‘문화영향평가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관된 ‘문화적 가치’의 확산 필요
- 부산시의 수영구 문화도시조성사업의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문화재단과 시행
 - 인천시도 문화도시 및 문화시책 사업의 ‘인천형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 제안

9) 김면·이경진·김윤경(2020),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 서울연구원(2021),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2) SDGs와 문화정책 및 문화도시

(1) SDGs와 지역문화정책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조례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를 근거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함. 2021년 6월 기준으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이 진행되고 있음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119개 세부 목표와 236개 지표로 수정·보완되었음. 제4차 기본계획 비전은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으로 설정되었으며, 4대 전략으로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번영)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평화·협력)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가 제시됨
- 지속가능발전을 지역 단위에서 실천하기 위한 하위 법령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117개의 관련 조례가 운영 중
 - 광역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19개의 조례가 제정,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98개의 조례가 제정
 -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 98개 중, 광역 단위(구)에서는 서울 11개, 인천 5개, 광주 1개, 부산 1개 총 18개이고, 기초 단위(시·군)에서는 경기 30개, 강원 8개, 충북 2개, 충남 14개, 경북 5개, 경남 9개, 전북 5개, 전남 7개 총 80개임
 - 유형은 크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에 관련된 조례'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광역 및 기초지자체 현황은 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25개 총 36개 지자체에서 수립

-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 광주, 부산,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총 11개
- 기초지자체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서대문, 종로, 은평(5), 경기 수원, 고양, 광명, 양평, 여주, 화성, 고양, 평택(8), 인천 남구, 부평(2), 강원 춘천, 원주(2), 전남 여수, 담양(2), 전북 전주(1) 충남 당진, 논산, 부여(3), 경남 진주(1), 충북 청주(1) 총 25개임(2022)
- 서울 양천, 경남 통영, 경기 양천, 충북 충주 등 기초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

□ 지역문화 계획 및 법률

○ 지역문화관련 주요 법률

- 지역문화 관련 주요 법률로는 1994년 제정·시행한 『지방문화원진흥법』과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으며, 2014년 3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까지 지역문화 법령이 3개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됨
- 2020년 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역문화 관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추진됨
- 위와 같은 법률 제정으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필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의 역할과 의미가 부각되었음. 또한 지역으로의 권한이행의 추세에 더불어 지역문화에 대한 업무와 정책적 추진행위에 있어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적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법』은 동법 6조와 3조에서 지역문화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법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음. 이는 지역문화의 진흥에 대한 노력을 제도적 틀에서 행해

지게 하여 법정계획으로써 그 지위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있는 여건 조성의 3가지로 제시(동법 3조)

○ 『문화기본법』의 제정

- 2013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문화융성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문화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됨.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음. 문화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었으며 국민의 문화 활동의 참여, 향유의 평등과 개인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접근 기회를 보장함
-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동법 8조)
- 동법 제4조 국민의 권리 조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함

○ 지역문화 관련 조례의 유형

-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지원과 관련하여 포괄적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며, 지역의 문화 관련 조례는 다음의 유형으로 분류됨
- 문화재단으로 대표되는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지역 문화시설의 설립,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진흥에 관한 조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 17개 특별시·광역시자치단체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140개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2022. 09). 이중, 지역문화에 대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에서 별도 제정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도, 경상남도의 5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로 파악됨(문화체육관광부, 2019)

- 기본계획에서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는 4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문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특광역시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의 7개, 기초자치단체는 81개로 확인됨(2022. 09)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제1차)의 주요내용 및 정책목표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5년 주기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됨.
-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통해 중앙단위에서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에서는 각종 조례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직체계에서도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정책관, 지역문화과,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에는 문화예술과,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 자원체계에서도 지역문화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재정 자원이 마련, 지역문화예술 데이터와 실태조사로 지역문화정보 및 지식이 구축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지역문화정책체계의 법적 체계, 조직 체계, 자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개념	내용 및 예시	
법적 체계	지역문화 지원 및 활동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부여의 근거가 되는 것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조례 등 - 조직 설치, 계획 수립, 인재 양성 등 명시	
조직 체계	지역문화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단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지자체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재단, 문화시설 등	
지원 체계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투입 연료의 역할을 수행	인적자원	민간 문화 활동가, 문화 전문인력, 지역문화 단체 및 공동체, 자원봉사자 등
		재정자원	공공재원, 시장금융, 기업메세나, (크라우드)펀딩등
		지식자원	지역문화와 관련 정보·지식·과학·기술 등

[표 2-8] 지역문화진흥체계의 개념과 내용

출처: 정상철(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과 연계된 사회적 여건 변화와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 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3가지의 추진 목표를 설정함. 또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발굴 창조로 제시함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체계

- 지난 제1차 기본계획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주민의 낮은 인식과 참여, 지역인재의 육성과 활용, 지역 문화 재정의 확보, 지역별 차별화된 문화정책 등에 대한 후속계획으로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함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 설정 아래, 자치·포용·혁신이라는 3대 핵심가치와 4개 전략, 15개의 핵심과제, 36개

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지역의 문화재정을 현재 전체의 1.6%인 3조 7,000억 원에서 1.8%인 5조 9,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과 같은 지역규모에 따른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기존 12.7%p에서 10%p로 낮출 것을 계획 목표로 제시함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 지역문화 주체(조직)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역 안에서 각 조직들이 서로 연결성을 확보하고 기능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
- 중앙 단위의 지역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역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지역문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별, 직능별(행정, 연구, 예술 현장 등), 세대별 다양한 구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

□ 부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 부산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부산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라는 비전 설정 아래, ‘해양문화도시, 융합창조도시, 포용문화도시, 문화협치도시’의 4개 목표와 10개 전략, 26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됨
-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박물관 수 ‘19년 30개소에서 ’24년 35개소 증가, 부산형 무화영향평가 모델개발·시행 ‘19년 0개소 ’24년 연간 3개사업 확대, 문화재정 비율 증대는 문화예산/총예산(비율) ‘19년 1.8%에서 ’24년 2.3% 증가 목표로 제시함
- 계획의 특징은 해양문화도시, 남북문화교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청년 문화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문화특구 지정 및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함
- 예산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금제 추진을 위해 현행 개별 보조금을 포

관보조금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문화예술 보조금사업 도입을 검토함

- 부산시민문화헌정 제정 및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함

○ 부산시 SDGs의 목표 및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연관성

- 부산시 SDGs 경제분야의 ‘모두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속가능 경제성장’,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의 세부목표와 부산시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도시’ 및 ‘문화예술인 권리를 보장하는 창조도시’의 세부 핵심과제가 연관성을 가짐
- 부산시 SDGs 사회분야의 ‘교육불평등 해소와 평생학습 기회 보장’의 세부목표와 부산시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시민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의 전략과 세부 핵심과제가 연관성을 가짐
-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로 사회통합 촉진’, ‘사회정의와 인권 존중의 자치분권도시 실현’의 세부목표와 부산시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행정 혁신도시’, ‘참여와 협치를 구현하는 문화분권도시’, ‘세계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의 전략과 세부 핵심과제가 연관성을 가짐

전략	핵심과제	SDGs
세계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①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자유구역 조성' ② 국제문화교류 거점 확립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③ 시민 평화문화 공감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추진'	SDGs 17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도시'	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② 전통성 강화를 위한 '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③ 지역성 확산을 위한 '권역별 해양문화지역 조성'	SDGs 16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	① 다양성 확산을 위한 '경계문화예술활동 육성' ② 시민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일상문화활동 지원강화' ③ 시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문화기회 확대'	SDGs 4
행복을 공감하는 '공유문화도시'	①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가치 확산 ②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맞춤형 문화재생' ③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문화 환경 조성'	SDGs 12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도시'	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문화시설 조성' ② 지역문화 특화발전을 위한 '문화특구지정 추진' ③ 시민중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선'	SDGs 9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도시'	①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융합형 예술시장 창출' ② 기술기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공간 조성' ③ 시민중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선'	SDGs 9, 12
문화예술인 권리를 보장하는 '창조도시'	① 문화예술인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문화예술인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②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인력 양성' ③ 문화예술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SDGs 8
시민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① 시민 문화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체계 개선' ② 시민 문화학습 강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SDGs 4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행정 혁신도시'	①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시민문화권리 선언' ②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재정 확대'	SDGs 16
참여와 협치를 구현하는 '문화분권도시'	① 문화분권 실천을 위한 '문화자치 기반 조성'	SDGs 16

[표 2-9] 제2차 부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

출처: 부산광역시 제2차(2020~2024)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 인천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 인천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함께 가꾸며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설정 아래, ‘시민 문화자치도 증가,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 삶에 대한 행복도 증가’의 3개 목표와 4개 전략, 16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됨
- 시민 문화자치도 증가를 위해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은 ‘19년 12억원에서 ’24년 25억원 증가,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천사회지표 ‘19년 2.97점/5점에서 ’24년 3.5점/5점, 삶에 대한 행복도 증가를 위해 인천사회지표 ‘19년 5.87점/10점에서 ’24년 6.5점/10점을 목표로 제시함
- 다른 광역 시도 시행계획에 비해 문화다양성 존중을 통한 포용적 문화도시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 제정(‘20), 이에 기초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예정.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인식조사 실시 계획함
- 인천 시민유산제도를 도입함. 시민들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공감하는 유산에 대해 인천시가 보호·보존·활용을 지원함
- 기존 지역특화산업의 문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과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육성을 강조함. 영상콘텐츠산업, 음악콘텐츠산업, 융합콘텐츠산업,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지역특화 생활관광 콘텐츠 육성 및 스마트 마이스산업을 특성화함
- 도시지역(구)과 도서지역(군), 원도심과 신도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지역문화재단 설립 여부에 따라 문화격차가 크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함
- 인천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함. 인천시와 자치구의 주요 사업 중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을 담당하는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평가 환류 체계 마련 등이 있음

○ 인천시 SDGs의 목표 및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연관성

- 인천시 SDGs 경제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경제도시’의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지역 인재 일자리 선순환 체계 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육성정책 추진’의 세부목표와 인천시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지역문화 자원 발굴·활용 진흥 전략’의 세부 핵심과제가 연관성을 가짐

- 인천시 SDGs 사회분야의 ‘지역발전을 창조하는 인재양성 도시 구축’의 목표 아래 ‘보편적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교육 질 및 교육 형평성 제고’의 세부목표와 인천시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의 전략과 세부 핵심과제가 연관성을 가짐
-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도시 구현’의 목표 아래 ‘문화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예술 복지 보편화’ 세부목표와 인천시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의 전략과 세부 핵심과제가 연관성을 가짐

전략	핵심과제	SDGs
문화자치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 추진기반 구축 • 지역문화 협력체계 강화 • 문화자치 재정 확보 • 문화자치 역량강화 	SDGs 16, 17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 지역별 생활문화운동 다양화 •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리 증진 • 문화다양성 증진 및 가치 확산 	SDGs 4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 발굴 및 융합적 활용 활성화 •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 • 스마트 미이스산업 특성화 	SDGs 8, 9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문화도시 조성 지원 • 문화기반시설 전략적 확충 • 문화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확대 • 사회혁신형 문화활동 지원 	SDGs 12, 16

[표 2-10] 제2차 인천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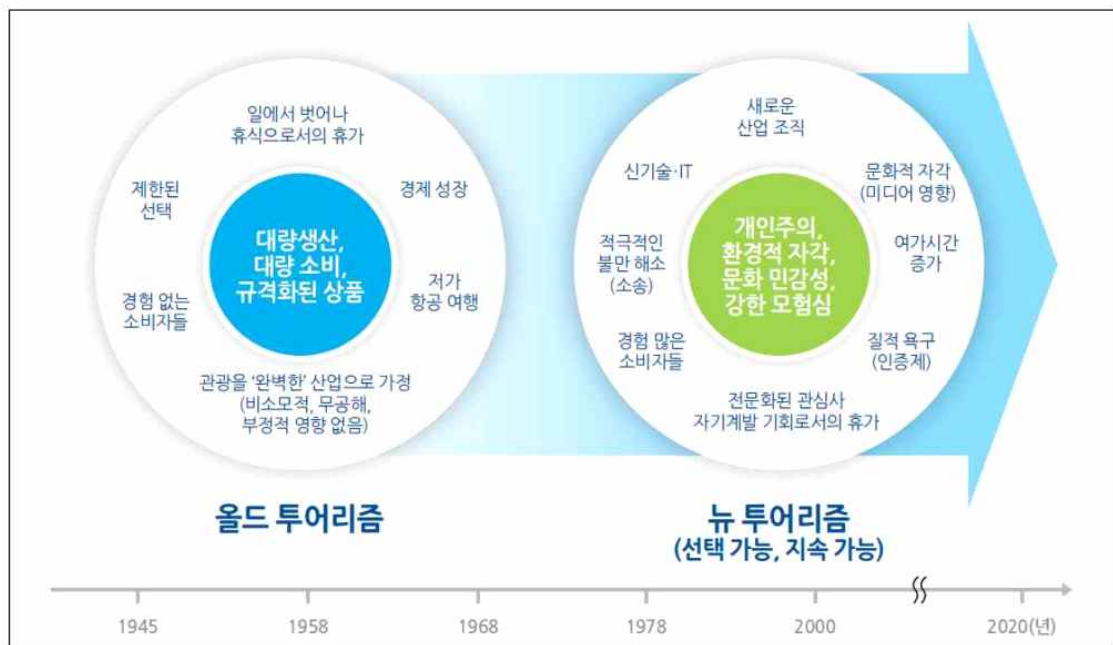
출처: 함께 가꾸며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 인천-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2020~2024)-, 인천광역시

□ SDGs와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 지속가능관광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광부문의 실천 개념으로 2005년 유엔환경계획 (UNEP)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지속가능관광을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광객, 관광산업, 환경,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으로 정의

- 지속가능관광은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며,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은 해당 지역의 환경, 지역사회 및 문화와 조화되어 이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관광상품임(WTO, 2001; WITC, 95)



자료: Deloitte Anjin Review(2015 No.5), 미래 관광 산업의 새로운 핵심 가치

〈그림 2-18〉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김경태 · 이인배 · 권미정(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충남연구원

- 세계적 차원의 관광트렌드 및 전망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증가, 관광산업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국내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래 관광 트렌드의 패러다임 및 형태는 문화, 예술, 의료, 생태, 어드벤처, 엔터테인먼트 등이 다각화되고, 각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뉴 투어리즘(New Tourism)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¹¹⁾
- 대안관광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은 비록 대중관광에 비해 관광수요와 사업규모가 적은 편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높은 편임. 최근 들어 특별목적관광과 같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

11) 김경태 · 이인배 · 권미정(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충남연구원

함에 따라 많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의 일환인 커뮤니티 기반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지질관광, 공정관광, 걷기여행, 자원봉사관광, (소수)민족관광, 농촌관광 등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유형임¹²⁾
-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법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09년 「관광진흥법」 제 48조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조항이 신설되면서 포함됨.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3.)고 제시함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8년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연구’를 통해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비전과 전략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지속가능한 관광 아·태지역 컨설팅 회의’를 개최하고, 37개 신청 국가 및 기관 중에서 ‘10개년 계획의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10 YFPSTP)’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선정됨. 이후에도 2017년 ‘지속가능관광 포럼’을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신규과제 발굴 연구’를 통해 5대 영역에서 15개 정책 과제를 도출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주요 평가지표와 SDGs의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범주에 속하는 생태관광, 공정관광, 농촌관광 등의 평가지표 개발과 인증제도 도입 시행 필요
- 인천시의 강화도 갯벌과 관방유적, 옹진군의 섬과 해양문화, 개항장과 근대 역사문화, 고인돌과 세계유산 등 다양한 생태문화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과 프로그램 및 SDGs 연계한 문화도시 활성화 필요

(2) SDGs와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 공익법인이며,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을 법적 근

12) 김남조·김상태(2017),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학원론』, 한국관광학회

거로 두고 있음¹³⁾

-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재단 조례 등이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의 근거로 작용



<그림 2-19> 광역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사업 관련 법률

자료: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2020),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 연구

-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은 지역문화재단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규정
 - 지역문화재단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현재 117개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
 -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광역문화재단은 전국의 17개 모든 광역 시·도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기초문화재단은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43.86%에 설립(2020. 12.)

□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모델¹⁴⁾

-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의 위상 정립 및 정책네트워크 체계 구축
 - 광역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과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문화재단의 정책

13) 배관표(2021.12),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

14) 임학순, 예술경영 웹진 467호(2021.1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미래(<https://www.gokams.or.kr/webzine/>)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 지역문화 생태계의 소통자·연결자·조정자 역할 및 파트너십 강화

- 예술가와 예술가의 연결, 예술가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연결, 예술가와 디지털 플랫폼의 연결, 문화예술 인력과 비문화예술 인력의 연결 등 창조적 혁신 환경 조성

○ 지역문화예술의 가치 옹호자와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자 역할 강화

-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보하여 지역문화정책의 합의와 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는 역할을 수행

환경 영역	내용
문화예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창작 안전망 이슈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 생활권 문화생활 이슈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정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 분권,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등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 지역소멸 현상, 사각지대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라이프 스타일, 문화트렌드의 변화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 저출산 고령사회, 여가 사회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경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산업, 문화경제, 문화관광, 콘텐츠산업의 변화 전망과 지역문화재단 과제
기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기술과 예술의 연계와 융합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 온라인 뉴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기후변화 및 재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환경 변화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 코로나19와 그 이후,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 코로나19 뉴노멀 현상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국제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문화예술 교류 협력 트렌드와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그림 2-20〉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환경

자료: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2020),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 연구

○ 지역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예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가치 인식을 가질 필요

□ 부산문화재단 2030 비전과 전략

-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부산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 예술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의 변화, 시민의 문화 주권 확보 방안 마련, 문화 분권에 따른 정책과 거버넌스 기능 강화,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기관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과제
 -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재단으로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의 수립 과정은 대·내외 문화 환경 분석 및 비전 2020 평가 반영, 부산시 문화비전 2030 연계 해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시민·문화예술인 의견 수렴 해 내부 구성원 책임 집필
-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의 비전과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미션을 설정
- 5대 전략과제와 20개 추진과제, 65개 실천과제의 실천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실현 가능한 다양한 기획들이 조합을 이룸
 -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 ‘플랫폼형 지원체계로 예술 생태계 회복’을 지향하며,
 -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 문화권 확산’을 강조하고,
 -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을 선언하며,
 - ‘소통과 협력으로 책임 있는 열린 경영 실천’을 다짐
- 부산문화재단 2030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담은 비전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2-21〉 2030 비전체계도

자료: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2019)

○ 부산문화재단 2030의 5대전략 및 25개 추진과제, 부문별 65개 실천과제는 부산시 문화비전과 SDGs의 목표를 결합하여, 부산시 문화비전과 SDGs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립된 2030 비전으로서 특징을 지님

-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의 부문별 추진과제는 SDGs 1, 3, 5, 9, 10, 13, 16 목표 실천과제와 연관됨
- ‘플랫폼형 지원체계로 예술 생태계 회복’의 부문별 추진과제는 SDGs 1, 8, 9, 11, 12 목표 실천과제와 연관됨
-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 문화권 확산’의 부문별 추진과제는 SDGs 3, 4, 8, 10, 11, 12 목표 실천과제와 연관됨
-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의 부문별 추진과제는 SDGs 11, 17 목표 실천과제와 연관됨

- ‘소통과 협력으로 책임 있는 열린 경영 실천’의 부문별 추진과제는 SDGs 5, 9, 12, 16 목표 실천과제와 연관됨

전략과제	추진과제	SDGs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UN SDGs) 문화적 실천 문화예술 영향력 확대 정책 R&D 역량강화 커뮤니티 아트로 부산 특화 사회문제 해결 문화다양성 확산으로 사회 갈등 완화	SDGs 16 SDGs 9 SDGs 1,3,10,13 SDGs 5,10
플랫폼형 지원체제로 예술 생태계 회복	목적과 대상에 따른 창작 지원 사업 재구조화 공간 기획력 강화로 창작 공간 특성화 인문과 기술 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공정한 보상 체계로 예술인 생활안전망 마련	SDGs 8,12 SDGs 11 SDGs 9 SDGs 1,8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 문화권 확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참여 기회 확대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선도 예술과 시민을 잇는 창의 인재 육성 정보 공유 통한 문화 접근성 강화	SDGs 3,11 SDGs 4,10 SDGs 8,11 SDGs 10,12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	문화 협력 위한 아시아 문화연대 조직 과거와 미래를 잇는 新조선통신사 교류 다각화 자매우호도시 해양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부산-남북문화교류 사업 추진	SDGs 17 SDGs 17 SDGs 11,17 SDGs 17
소통과 협력으로 책임 있는 열린 경영 실천	민관 동반성장 도모로 거버넌스 내실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문화 자원 증대 변화 관리 경영 체계화	SDGs 16 SDGs 5,9,16 SDGs 12,16 SDGs 16

[표 2-11] 2030 비전체계도

출처 :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2019)

- 부산문화재단 2030의 실천과제는 10대 핵심지표의 실현을 통해 ‘문화예술로 시민의 삶이 행복하게 변함’, ‘예술 활동의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됨’, ‘창의, 포용, 개방성이 가득한 도시 브랜드가 구축됨’의 궁극적 결과를 얻고자 함
- 부산시 문화비전 2030의 10대 핵심지표는 ‘시민 건강 증진’, ‘시민 문화 참여도 증가’, ‘문화 접근성 향상’, ‘예술인 일자리 확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수 증가’, ‘도시 포용력 증진’, ‘국제교류 확대’, ‘문화 정책 만족도 증진’, ‘제도 개선 반영 비율 향상’, ‘문화 자원 증대’로 SDGs의 지표와 부산시 시민 행복지표, 지역문화 실태조사 지표를 토대로 작성됨

- 부산시 문화비전 2030의 비전 실천 로드맵 및 10대 핵심지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2-22〉 비전 2030 10대 핵심지표

자료: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2019)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콘텐츠 프로젝트 추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 사업을 신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근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 사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 중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를 선택하여, 그 의제를 문화예술과 콘텐츠로 확산하고, 도민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추진운영위원회'는 2021년 '회복'(코로나19 일상에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공모·심사를 통해 총 7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



〈그림 2-2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 경남문화예술진흥원(<https://qcaf.or.kr/>)

□ 전남문화재단 지속가능경영

- 전남문화재단은 사회적책임경영을 통해 ‘문화로 꽃피는 전남, 예술로 행복한 도민’의 미션과 ‘전남의 미래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선도기관’의 비전을 지향
- 사회적 가치 실현의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사회적 가치 기반 마련(2019~2021) : 사회공헌 과제 발굴, 사업연계 특화프로그램 발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가치 확산(2022~2024) : 사회적 가치 내재화, 특화프로그램 발굴 전파,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2025~2027) : 사회적 가치 고도화, 프로그램 공유·확산, 지역사회 상생협력 확대



〈그림 2-24〉 전남문화재단 지속가능경영 비전

자료: 전남문화재단(<http://www.incf.or.kr/>)

(3) SDGs와 문화도시

□ 문화도시 조성사업

-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에 근거한 법정도시이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시를 말함
 - 문화도시 정책사업은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City's Culture Plan)로 시민이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
 - 문화도시 사업은 각 도시가 가진 독특한 창의성을 활용 문화적 성장기반을 구축
-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꾸려갈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평가와 컨설팅 그리고 심의를 거쳐 예비도시로 지정
 - 1년간 예비사업 수행 후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법정 문화도시의 지위, 사업비, 거버넌스와 시민 협력을 중요시하는 체계적인 과정 설계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200억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 지원
 -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시민 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추진
-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

문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
1차 문화도시	7곳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2차 문화도시	5곳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완주군, 춘천시
3차 문화도시	6곳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표 2-12] 문화도시 지정 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2. 03), 정책브리핑

□ 원주 문화도시

- 원주시는 2019년 10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데 이어, 2019년 문체부의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7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되어 사업추진
- '문화도시 원주'라는 도시 브랜드에 맞게 '시민 모두가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의 주체가 되는 36만 500개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함
 - 2018년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됨. 1년 동안 저항 실천의 도시, 협동나눔의 도시, 생명존중의 도시, 일상예술의 도시, 포용성장의 도시, 소통공감의 도시 등 6개의 의제를 테마로 문화도시 방향을 정함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81개 실천과제를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시민 중심의 '원주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실행하는 것을 비롯해 원주형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해마다 원주 문화박람회를 개최해 추진 과정을 지역과 공유
 - 그림책 특화사업도 확장하며, 그림책 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문화예술교육센터로 기능을 확장해 그림책 기반의 도시문화생태계를 구축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 2004년 시작,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의 창의성을 반영하는 도시 간 국제협력 플랫폼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행동과 혁신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사업
 - 공예와 민속 예술/디자인/영화/미식/문학/음악/미디어 예술 총 7개 분야
 - 2022년 현재, 7개 분야에 80개국 246개 도시 가입, 한국은 총 7개 분야에 11개 도시 가입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지속가능 문화도시 협력체계 구축,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 '바로 지금' 공동선언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강원도교육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K(주) C&C,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사회적협동조합 세계시민교육센터 등 7개 기관이 참여
- 각 기관은 잔반제로 챌린지, 페트라떼 챌린지,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몸짱 챌린지, 환경 캠페인 챌린지, 캔크러시 챌린지 등 6가지 실천 활동에 바로 돌입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예술가의 삶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개발한 이오(2X5) 프로그램을 원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운영
- 강원도 및 지역 내 협력체계 안에서 문화도시 원주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힘을 보탬
-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화도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결점을 찾아 공유하고, 도시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실천방안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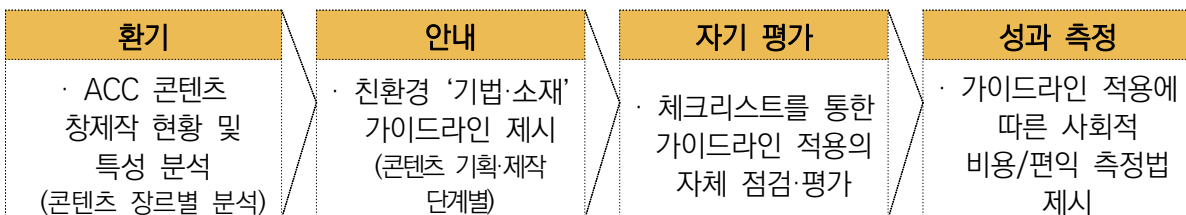
□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와 과제

○ 도시에 문화정책을 입힌 문화도시 사업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역화와 문화도시의 지속성에 대한 모두의 고민
- 사람이 사는 도시,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사람이 어울려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 그리고 그 문화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음
- ‘SDGs의 지역화’는 지역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임
- 특히 SDGs의 기획과 이행은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에서 적용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규정하고, 계획하며,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 SDGs의 모니터링은 세부목표의 관련 성과를 지리적, 인구학적으로 자료를 세분화 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또한 유엔 해비타트회의 주요 의제 및 ‘모두를 위한 도시’의 실현 개념은 곧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도시임을 강조함

□ ACC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지구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과 내용을 적용한 콘텐츠 창제작에 대한 방향 설정
-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및 정책 환경 분석
 - 정부의 그린뉴딜, ESG, 탄소중립, 폐자원 절감, 녹색산업 등 환경 분야 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문화·예술 부문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대응 정책과 사업, 규제·육성 분야, 관리체계 등 조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성 도출 및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한 가이드라인 도출 및 지속가능한 창제작과 자원순환을 지향 국내외 기관·단체 운영 사례 반영
-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ACC 그린뉴딜가이드북』(2020년 제작)에서 다룬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창제작 실천법을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정립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의 정량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측정법 마련



[표 2-13]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흐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21년 ‘ESG경영을 위해 디자이너, 기획자, 창작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행한 가이드북’ 자료임
-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제작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에서도 SDGs와 접목한 지속가능한 예술 창제작 실천 사례 발굴 및 적용 필요



〈그림 2-25〉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콘텐츠,
 자료: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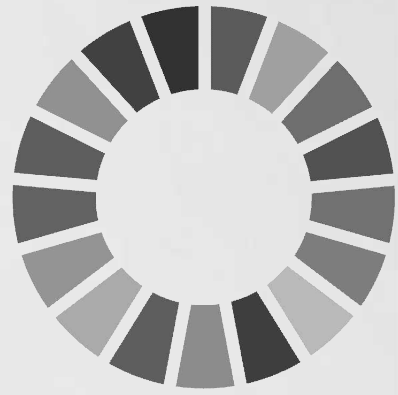
4) 시사점

- SDGs와 문화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문화정책과 문화지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연관성이 있으며, 2030 문화지표와 문화영향평가, 지역문화진흥 시책과 문화도시, 등 주요사례와 분석 및 평가의 시사점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사례 및 주요내용	평가 및 시사점
문화지표 및 문화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와 문화정책 재구성 ①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지원 ②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 및 예술가와 문화전문인력의 이동성 증진 ③ 지속가능발전체제와 문화의 통합 ④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 등 •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 ‘문화2030 지표 ① 환경과 회복력, ② 번영과 생활, ③ 지식과 기술, ④ 포용과 참여 4가지 •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시범평가 및 2016년부터 본격 시행, 201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 • 문화영향평가영역의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의 3가지 영역의 6가지 평가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지향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 창의성의 가치와 연관성 있음 • 인천시의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역사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공원조성사업 등 실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2030 지표 네 가지 목표 설정, 모니터링 분야, 핵심지표들은 하나의 활동 부문으로서 문화의 역할 및 “여러 SDGs와 정책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영역 간 연계를 촉진하는” 문화의 역할, 즉 문화의 “횡단적” 기여를 평가 도움 • 4가지 주제는 총체성이라는 문화의 본연의 성격을 반영하여 서로 그물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중장기적 안목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인천시 ‘문화영향평가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관된 ‘문화적 가치’의 확산 필요 •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지표는 Goal.4 양질의 교육, Goal.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Goal.10 불평등 감소, Goal.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Goal.16 평화, 정의, 제도 등 관련됨 • 인천시와 자치구 문화거점시설의 주요 사업 중 문화영향평가 심의기구 구성과 운영, 평가 환류 체계 마련

<p>SDGs와 지역문화 및 문화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통해 중앙단위에서의 법적 체계를 구축.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 •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필요가 증가하고 지역문화의 역할과 의미가 부각됨.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적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 공익법인이며,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5장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한편으로는 법적체계, 조직체계, 자원체계가 심화, 다른 한편 중앙차원, 광역시도 차원, 시군구차원으로 지역문화진흥체계가 확대 •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에 근거한 법정도시이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시 • 부산시 SDGs의 목표 및 지역문화 시행계획의 연관성을 고려한 부산문화재단의 2030 비전 수립 • SDGs 연계한 ACC(아시아문화전당), 지속가능한 창제작 가이드라인 및 'ESG경영을 위해 디자이너, 기획자, 창작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이드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역화와 문화도시의 지속성에 대한 모두의 고민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필요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예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가치 인식 필요 • 부산문화재단 2030의 5대전략 및 25개 추진과제, 부문별 65개 실천과제는 부산시 문화비전과 SDGs의 목표를 결합하여, 부산시 문화비전과 SDGs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립된 2030 비전으로서 특징을 지님 • 경남과 전남문화재단의 지속가능발전 문화행동 및 지속가능경영 추진 • 'SDGs의 지역화'는 지역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 과정임 • 인천시와 자치구 문화재단과 주요 문화예술 거점시설 및 단체 문화예술가와 전문가의 SDGs와 접목한 지속가능한 예술 창제작 가이드라인과 실천 사례 발굴 및 적용 필요 • 인천시의 강화도 갯벌과 관방유적, 옹진군의 섬과 해양문화, 개항장과 근대 역사문화, 고인돌과 세계유산 등 다양한 생태문화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과 프로그램 및 SDGs 연계한 문화도시 활성화 필요
--------------------------------------	---	--

[표 2-14] SDGs 문화 국내 사례를 통해 본 문화정책의 시사점



3

인천의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을 위한 현황 조사

1. 인천의 SDGs 이행 환경 분석
2. 인천의 문화 현황 조사 및 분석
3. 인천문화재단 현황 조사 및 분석

1. 인천의 SDGs 이행 환경 분석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환경과 회복력)

- “환경도시”와 관련한 “고유의 경관가치 창출” 전략에서 제시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 및 계획의 실행수단”은 SDGs Goal.11 측면에서 이해하고 공공재로서 관리 필요
 - “고유의 경관가치 창출”의 이행 전략으로서 한남정맥 일원 경관보전 방안 마련,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 및 계획 실행수단 마련을 제안
 -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고 바다와 섬이 함께하는 인천의 경관자원을 공공재로서 이해하고 그것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문화 기반의 건축 가이드라인 필요

(번영과 생활)

- 숙명적으로 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인천으로서 “국제해양도시”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을 활용한 역사, 문화벨트 조성” 전략은 SDGs Goal.4와 G11과 관련한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역사문화 공간을 활용한 역사, 문화벨트 조성”의 이행 전략으로서 해양역사문화거점 조성, 다양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제안
 - 개항의 시기 물자와 인력의 교류가 왕성했던 역사적 장소이자 위치적 특성상 유지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 내 농업과 어업의 1차 산업이 혼재하는 바, 각 문화가 독자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지식과 기술)

- “스마트 기반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 전략은 SDGs Goal.4에 연관되는 것으로서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즉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의 검토를 시사
 - “스마트 기반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의 이행 전략으로서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공간 구축,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 및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제안

-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신체적 장애 등으로 해당 기술이나 매체에 접근이 제한되는 장애인, 경제적 사유로 접근이 제한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실현 여부를 고민한 실행 계획과 정책 필요

(포용과 참여)

- 문화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계획의 내용 측면에서도 인천시민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포용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됨
 - 시민계획단의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중심의 국제, 문화, 해양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목표 및 전략을 구체화
- “시민행복도시”와 관련한 “원도심 활성화”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원도심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며 SDGs Goal.11에서 제시하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논의
 - “원도심 활성화”의 이행 전략으로서 도심재생축 거점개발, 역세권 입체·복합화를 통한 집약 개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집약적 도시 공간 마련을 제안
 - 내항이라는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항구도시로서의 경관과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영위되도록 하는 포용적 계획과 실행이 요구됨

“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글로벌 국제도시 위상 강화 · 지속 가능한 환경”
 다같이 누리는 **시민행복 도시**,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 도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미래로 발전해 가자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 3-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전략

자료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25)

(환경과 회복력)

- 해당 계획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와 대등한 위계의 문화부문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 및 사회부문의 일부 추진전략이 그 내용상 문화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환경부문의 “청정한 해양환경 및 생태친화적 자원 조성” 목표에서 제시된 해양관광의 키워드는 SDGs Goal.12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상 문화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해양이라는 생태자원을 관광의 대상으로서 향유하는 인문·사회적 행동양식이며 그 이행방안으로 제시된 <레저문화 프로그램 수> 지표는 생태자원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유도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함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를 위한 세부목표 “산림자원 관리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는 SDGs Goal.15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상 생태자원의 향유를 염두 한 문화영역의 전략이며, <산림 휴양시설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같은 지표를 통해 가늠하듯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성과 자원의 보존을 넘어 건강한 활용을 고민하는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목표로 판단됨

(지식과 기술)

- 사회부문의 “지역발전을 창조하는 인재양성 도시 구축”을 위한 “보편적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교육 질 및 교육 형평성 제고”의 세부목표는 SDGs Goal.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문화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일반적임

(포용과 참여)

-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현”의 목표는 내용상 SDGs Goal.4, 10과 연관되며, <다문화지원센터 이용인구 비율>의 지표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도시 내 다양한 인종과 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영역의 역할을 요구함
- SDGs Goal.1, 11과 연관된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도시 구현”의 세부목표인 “문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예술복지 보편화” 역시 내용상 문화영역으로 이해됨
- 또한 각 부문의 핵심전략과 세부목표, 그 이행방안에서 문화 측면의 역할과 과제를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 시민참여와 인식변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등 계획의 이행기 재로서 시민문화 형성 등 문화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문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전략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방안과 평가지표로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및 <1인당 1일 물 사용량>을 제시한 바,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촉진 활동 필요
- “에너지 효율적 이용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한 이행방안인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이나 <태양광발전 참여 건수> 역시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시민주도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참여 촉진 필요
- “기후 변화대응 종합 안전예방 대책 수립” 목표를 위한 평가지표인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모두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바, 다양한 참여 독려와 방법론적 지원 필요
- 경제부문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어촌”의 평가지표인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면적>과 <로컬푸드 매장 수> 등은 그 가치를 지지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관련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다양한 소비 지원이 필요
- 사회부문 전략인 “시민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체계 실현”을 위한 <청소년 비만율>, <생활습관 유병률> 등의 지표는 식습관 개선은 물론 예방의료 측면의 노력을 시사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 해당 계획에서는 문화 주체와 활동, 공간, 공동체, 산업, 연동과 협영, 재원의 8개 범주별 추진전략과 21개 정책과제를 제시
- 계획실행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한편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SDGs 측면의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문화와 관련한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며 계획실행의 주체와 공간, 사업의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한 계획으로 평가됨

(환경과 회복력)

- “문화활동” 범주에서 제시한 “인천 역사문화가치의 재조명 및 현재화”와 관련한 <문화

유산 활용 다각화〉 등의 사업은 SDGs Goal.12와 관련되며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논의하는 내용임

- 상기 범주의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체계 확산” 전략에서 제시된 〈섬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지원〉과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의 사업들은 SDGs Goal.15에 관련한 것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논의하는 내용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관점의 계획으로 평가됨

○ 그러나 SDGs 측면의 문화적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창조성 확보를 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관련한 다문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도농복합도시, 해양 및 섬문화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됨

(번영과 생활)

○ “문화주체” 범주의 “창작인력 역량 강화” 전략과 “문화활동” 범주의 “예술적 창조 기반 강화” 전략과 관련한 사업 모두는 SDGs Goal.8과 관련한 것으로서 예술인 등 문화 분야 종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며 문화 창조성을 지향하는 내용임

○ “문화공간” 범주의 전략과 세부사업들은 SDGs Goal.1, 4, 11에 관한 것으로서 일상에서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공 공간 등 인프라 조성에 관한 내용임

○ “문화산업” 범주에서 제시된 “문화산업 기초기반 마련” 전략 관련 세부사업들은 SDGs Goal.8과 관련한 것으로서 문화 기반의 경제발전을 논의하는 계획이며 문화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

(지식과 기술)

○ “문화주체” 범주의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도시” 전략을 위해 〈인천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반 마련〉 사업을 확대토록 계획하였는데, 이는 SDGs Goal.1, 4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천시민 모두의 문화 향유를 위한 포용적 노력으로 해석됨

- “문화활동” 범주에서 제시한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전략과 〈시민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의 세부사업 역시 삶터와 일터의 구분 없이 일상에서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SDGs Goal.1, 4와 연관됨

(포용과 참여)

- “문화활동” 범주에서 제시한 “문화예술 활동의 국제적 기반 마련” 전략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문화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SDGs의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지향한 계획임
- “문화공동체” 범주의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협력” 전략의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 플랜 수립>과 같은 사업은 SDGs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계획임
- “문화연동” 범주에서 제시된 “영역 간 연동”과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정책기반 마련”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도시경관, 문화관광, 마이스산업 등의 연계를 비롯하여 문화 기반의 도시발전을 논의하는 각종 제도와 거버넌스를 논의하며 SDGs 측면의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을 지향
- “문화협영” 범주에서는 “민관 협영”, “시군구 정책연계”와 “문화도시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며 정책협의체나 문화포럼과 같은 SDGs 측면의 거버넌스 지향
- 그러나 해당 계획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등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방안 논의에는 이르지 못함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측면의 보완이 요구됨



<그림 3-2>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범주, 전략
 자료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환경과 회복력)

- 네 번째 전략에서 제시한 “문화기반시설 전략적 확충” 과제에서는 <원도심 재생 연계 문화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즉 문화적 권리보호를 지향하고 있어 SDGs Goal.1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번영과 생활)

- 두 번째 전략의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리 증진” 과제는 SDGs Goal.8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인천 문화예술 사회적금융 운영, 예술인과 기관·기업을 매칭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예술인의 자립을 모색한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한 과제로 평가됨
- 세 번째 전략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진흥”의 핵심과제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자원 발굴 및 융합적 활용 활성화” 과제는 SDGs Goal. 12와 관련한 것으로서 문화를 통한 경제를 논의하며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모색
 -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과제에서는 <인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디아스포라영화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난민과 새터민 등 다양한 디아스포라 계층과 소수자의 삶에 관심을 갖는 포용적 과제로 평가됨
 -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로컬관광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하며 SDGs Goal.12와 관련한 로컬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 문화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의도

(지식과 기술)

- 두 번째 전략의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과제는 SDGs Goal.1, 4와 관련한 것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일상 속 접근성 강화를 목표하며 생애주기별·가족형태별 시민문화예술교육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생활권 연계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제시

(포용과 참여)

- 해당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과제에서는 SDGs에서 지향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 창조성 등의 가치를 표방
 - 계획목표 중 “시민 문화자치도 증가”는 SDGs의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

으며,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 목표와 관련한 과제들은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논의하는 SDGs Goal.1, 4와 직접적으로 관련됨

- 첫 번째 전략인 “문화자치 기반 조성”은 SDGs Goal.1과 직접적으로 연관
- 두 번째 전략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은 그 자체로 SDGs에서 강조하는 문화를 통한 포용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SDGs 기반의 전략과제로 이해되며, 세부 과제 역시 SDGs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SDGs의 가치를 지향
 - “지역별 생활문화활동 다양화”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도서지역·산업단지·원도심 등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문화적 포용성, 다양성, 형평성 지향
 - “문화다양성 증진 및 가치 확산” 과제에서는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같은 사업을 통해 섬 문화, 백령도 등 접경지역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항도시 인천으로서 다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이주노동자 문화교류를 모색
- 네 번째 전략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의 핵심과제는 SDGs 측면에서 문화적 형평성, 포용성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됨
 - “문화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확대” 과제 역시 Goal.1과 관련한 것으로서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사업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시도하며 문화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지향
 - “사회혁신형 문화활동 지원” 과제에서는 <문화적 사회혁신실험 사업>을 통해 소규모 주민참여 사회혁신실험을 지원하는 등 문화적 창조성을 지향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발전계획(2019-2023)

- 해당 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상은 “시민의 공감 아래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협력하여 만드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인천”으로서 인천시의 정체성을 ‘역사문화도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별 전략을 제시

(환경과 회복력)

- 첫 번째 전략인 “문화유산과 인천 브랜드”의 세부과제로 제시된 “역사문화자원 기반의 도시재생” 과제는 SDGs Goal.11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됨
- 두 번째 전략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을 위한 세부과제, “강화해양관광유적과 강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토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SDGs Goal.15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전통지식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임
 - 두 번째 전략에서 제시하는 세부과제들은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을 지향

(번영과 생활)

- 첫 번째 전략인 “문화유산과 인천 브랜드”에서는 ① 인천 유산의 세계화와 ② 인천 유산의 가치 보존 과제를 제안
 - 인천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강화의 ‘고려역사문화특구’를 제안, 문화와 결합된 지역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SDGs Goal.11에 부합
 - 강도 역사 경관 길과 역사 콘텐츠 개발 과제의 경우 지역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SDGs Goal.12에 부합
 -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세부과제는 SDGs Goal.12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근대 건축물 등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와 상품화 노력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추구
- 두 번째 전략인 “인천형 문화유산보호 패러다임 구축”에서는 ①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제고, ② 문화재 유형별 효율적 보존 관리 과제를 제안
 - 인천 무형문화재 기록,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콘텐츠화 방안은 지역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노력으로서 SDGs Goal.12에 부합
- 세 번째 전략인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전략의 실천과제인 “문화유산형 사회적 기업 육성”의 과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노력으로서 SDGs Goal.9에 부합
 - 또한 그 과정과 수단인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SDGs Goal.12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점에서도 이해됨

(지식과 기술)

- 세 번째 전략의 실천과제인 “생활 속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지역문화자원 교육이라는 점에서 SDGs Goal.1과 SDGs Goal.4에 부합
- 네 번째 전략인 “문화유산 교육과 연구” 전략 하에 ① 학교 및 시민 교육 활성화 ②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과제를 제안
 - 네 번째 전략에서 제시하는 과제들은 그 내용상 SDGs Goal.4에 부합
 -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시된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양성이나 문화유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은 세부과제는 문화분야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라는 점에서 SDGs Goal.8과 연관

(포용과 참여)

- 해당 계획에서는 과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역할,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동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SDGs Goal.16의 거버넌스를 지향
 - 인천시 문화재과는 정책입안자로서 시청 내, 그리고 대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로서 인천역사포럼에서는 계획의 실천을 점검 및 평가, 시 정부와 민간 연구자 단체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세부 과제별 실행 경로를 구체화하도록 제시함
- 첫 번째 전략인 “문화유산과 인천 브랜드”와 관련한 세부과제로서 “고려 역사문화 중심 남북 문화 교류”는 SDGs Goal.17 파트너십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다양성 확보 노력으로 이해 됨
 - 근대역사 공간조성과 콘텐츠 구성의 경우 문화인프라의 접근성 향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SDGs Goal.1에 부합하며 콘텐츠 개발은 그 자체로서 문화 창조성을 추구
- 세 번째 전략인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전략을 위한 실천과제는 ①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확대, ② 문화유산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

-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를 위해 제시된 시민 참여 중심의 역사문화축제, 지역 대표 축제 선정과 같은 과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련한 SDGs Goal.12에 부합하며, 시민 참여와 교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Goal.11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해됨
 - 장애인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적 형평성, 포용성을 추구할 뿐 아니라 SDGs Goal.1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 마련 노력으로 풀이됨
 - 실천과제로서 제시된 “문화유산 거버넌스 확립”은 SDGs Goal.16에 부합
- 네 번째 전략의 실천과제인 “취약계층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는 형평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권리보호로서 SDGs Goal.1에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됨

□ 민선8기 정책 과제(시장 공약)

- 민선8기 정책 과제로서 현 시장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희망 인천 플러스’와 ‘시민 행복 플러스’ 기조 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제시

(환경과 회복력)

- 10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시된 과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다수인데, 특히 옹진군과 강화군의 경우 교통 관련 사업이 지배적임
- 백령공항, 연안여객성, 제2영흥대교, 서울5호선 연장, 서도 연도교 등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과 접근성 강화에 관한 과제가 다수인데, 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SDGs Goal.11에 부합
 - 해양섬마을 박물관, 접경지역 복합체험문화공원과 같은 문화 인프라의 확충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Goal.11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섬주민의 기본 문화서비스 추구를 위한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Goal.1과도 연관됨
- 미추홀구의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의 경우 내용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련한 SDGs Goal.12의 노력으로 풀이됨

- 남동구 소래습지공원의 국가정원 추진과 승기천·장수천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은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노력이라는 점에서 SDGs Goal.1과 11에 부합할 뿐 아니라 내용상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Goal.15와도 관련
 - 특히 승기천은 행정구역 상 연수구와 남동구의 세력권에 위치하므로 시 차원의 건축 및 행정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며, 이는 Goal.16 거버넌스의 영역임
 - 남동구를 대상으로 논의된 노후산단 정비 및 문화·여가 복합공간 재생, 88체육관 재건축 및 스포츠 콤플렉스의 경우 같은 맥락에서 Goal.11에 부합할 뿐 아니라 내용상 문화시설,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Goal.1과도 연관됨
- 계양구와 서구의 경인아라뱃길 워터파크나 해양친수공간, 계양 문화스포츠센터와 같은 과제 역시 문화인프라 확충과 공공재로서 공공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SDGs Goal.1과 11에 부합하나 수변공간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Goal.15 측면의 접근 필요
- 동구의 동인천역세권 도시재생,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 조성, 원도심 한옥마을·유럽풍 마을 컨셉 도입과 같은 구상은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SDGs Goal.11에 부합
 - 다만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나 한옥마을, 유럽풍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의 정체성과 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SDGs Goal.16과 관련한 절차적 보완 필요

(번영과 생활)

- 기초자치단체별로 중구의 을왕산 영상클러스터는 관련 산업군을 통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SDGs Goal.9에 부합
- 동구의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나 화도진축제 활성화는 모두 문화유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로서 SDGs Goal.12에 부합

(지식과 기술)

- ‘희망 인천 플러스’ 기조 하에 음악대학 및 전문도서관 설립과 같은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내용상 SDGs Goal.4에 부합
- ‘시민 행복 플러스’ 기조 하에 제시된 과제는 다문화·한부모 가정과 탈북자 지원 강화, 무상교육과 여성의 취업 확대, 장애인 고용 확대 등임

- 어린이집~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 자체로서 SDGs Goal.4에 부합

(포용과 참여)

- ‘희망 인천 플러스’ 기조 하에 문화·예술 예산 증액과 음악대학 및 전문도서관 설립, K-pop 아레나 건립, 인천세계축제,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을 제안
 - 문화인프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Goal.1과도 관련되며, 공공 공간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Goal.11에 부합
- ‘시민 행복 플러스’ 기조 하에 제시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과제는 내용상 Goal.5에서 강조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양성평등 기반 조성으로 이해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Goal.10과도 연결됨
 -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탈북자 지원 등의 과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포용을 위한 Goal.4의 영역이며, 장애인 고용확대 과제는 고용과 복지, 사회적 안전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Goal.10에 부합
- 미추홀구의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절차상 Goal.15, 16과 관련한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관리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거버넌스 수반이 요구
- 연수구의 생활체육комплек스, 송도유원지 주변 자동차매매단지 이전과 시민공간 조성이나 부평구의 캠프마켓을 시민공원화 사업은 문화인프라 확충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거주지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SDGs Goal.1과 11에 부합

□ 소결 및 시사점

(환경과 회복력)

-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 및 계획의 실행수단”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고 바다와 섬이 함께하는 인천의 경관자원을 공공재로서 이해하고 그것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문화 기반의 건축 가이드라인 필요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관련한 다문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도농복합도시, 해양 및 섬문화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지식과 기술)

-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기반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 전략과 관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의 검토를 시사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실현 여부를 고민한 실행 계획과 정책 필요

(포용과 참여)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민행복도시”와 관련한 “원도심 활성화”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항이라는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항구도시로서의 경관과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영위되도록 포용적 계획과 실행 필요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내 다양한 인종과 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영역의 역할을 요구, 특히 시민 참여와 인식변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등 계획의 이행기재로서 시민문화 형성 필요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에너지 효율적 이용 기반 구축” 전략과 관련하여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촉진 활동이나 시민주도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참여 촉진 필요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취약계층 등을 포용하지 못해 문화적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측면의 한계 노정
- 민선8기 정책 과제에서 제시된 미추홀구의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의 경우 절차상 Goal.15, 16과 관련한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관리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거버넌스 수반이 요구됨
 - 동구의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나 한옥마을, 유럽풍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의 정체성과 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SDGs Goal.16과 관련한 절차적 보완 필요

2. 인천의 문화 인프라 현황 분석

(번영과 생활)

□ 문화인력

○ 인천시 문화예술인 수는 2020년 기준 약 2,900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음악(23.4%) 관련 종사자수가 가장 많으며 뒤이어 연극(17.3%), 미술(14.7%), 영화(11.6%) 순으로서 전체의 약 67% 수준을 차지

- 문학과 사진, 무용 등 상기 외 부문의 종사자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문별 예술인이 고르게 분포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됨

(단위: 명, %)

구분	문학	미술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인원	236	421	37	670	72	80	495	334	209	137	178	2,869
비율	8.2	14.7	1.3	23.4	2.5	2.8	17.3	11.6	7.3	4.8	6.2	100

[표 3-1] 부문별 인천시 예술인 총 현황(2020년 기준)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 인천시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는 전국 현황의 2.8% 수준으로서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며 부문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음악 관련 사업체 종사자수가 전국 대비 4.9%, 만화 부문은 4.2%와 같이 상대적으로 관련 인력이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애니메이션(1.5%), 광고(1.4%), 콘텐츠 솔루션(1.1%), 방송(0.6%) 부문은 그 비중이 높지 않음
- 건강한 문화예술 산업생태계를 통해 예술적 창조성 강화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산업부문 간 활발한 교류와 매개가 요구되는 상황임

(단위: 명, %)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합계
전국(명)	154,909	11,230	65,464	83,303	10,497	5,472	50,239	68,888	36,505	93,182	31,963	611,551
인천(명)	4,444	472	3,198	2,510	380	81	295	994	1,166	3,222	365	17,126
비율(%)	2.9	4.2	4.9	3.0	3.6	1.5	0.6	1.4	3.2	3.4	1.1	2.8

[표 3-2] 인천시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수(2020년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20년 기준)」

○ 인천시 전역의 복지기관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수는 17명으로서 문화적 권리보호와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편성하는 한편 양적 보완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노인과 아동 관련 시설 파견 강사는 각각 5명, 장애인 시설 파견 강사는 7명임
- 전체 강사 중 미술 분야가 5명으로 가장 많은데, 미술 강사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시설 모두에 파견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노인 시설에 파견되는 강사는 미술, 사진, 음악 분야 밖에 없으며, 아동의 경우 국악, 미술, 음악 분야로 제한적임
- 특히 신체적 장애에 따라 선택의 폭이 더욱 제한적인 장애인 시설에 파견되는 강사조차도 사진, 음악 분야가 결여되어 있음

(단위: 명)

구분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합계
노인	-	-	1	3	-	-	1	5
아동	1	-	2	-	-	-	2	5
장애인	1	2	2	-	1	1	-	7
합계	2	2	5	3	1	1	3	17

[표 3-3] 인천시 분야별 복지기관 파견 예술강사 수(2020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부자료(2020.3.27.)

□ 문화산업

- 문화예술 사업체의 구성과 규모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양질의 일자리 증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지표임
-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 문화예술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4.5%로서 관련 종사자 수의 비중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양한 분야의 산업군이 형성된 반면 그 규모 측면에서는 분야별 편차가 상당한데, 문화예술 부문 종사자의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출판(2.9%), 영화(2.7%), 콘텐츠솔루션(2%), 방송(1.8%), 광고(1.3%), 애니메이션(1.2%)의 경우 전국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 이러한 현황은 해당 분야 문화예술 인력의 역외 유출 가능성을 시사

(단위: 개, %)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합계
전국(개)	25,244	6,144	33,138	11,541	916	490	1,055	6,337	2,700	9,949	2,022	99,536
인천(개)	725	296	2,301	602	25	6	19	84	94	313	41	4,506
비율(%)	2.9	4.8	6.9	5.2	2.7	1.2	1.8	1.3	3.5	3.1	2.0	4.5

[표 3-4] 인천시 문화예술 사업체 수(2020년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20년 기준)」

- 기초자치단체별 전문 예술법인단체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희망하는 문화예술 부문 종사자의 활동 기반과 여건이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미추홀구의 경우 관련 단체가 19개로서 가장 많은 반면 연수구(3개)와 서구(3개), 강화군(1개)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동구와 계양구, 옹진군은 관련 현황이 전무함
 - 지역별로 관련 단체가 많지 않다보니 활동장르도 제한적인 상황이라 관련 인력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예술적 창조성 강화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관련 산업기반에 대한 조정, 정비가 요구됨

(단위: 개)

구분	계	법적형태			활동장르					
		사단법인	임의단체	재단법인	음악	무용	전통	연극	시각예술	기타
중구	6	2	3	1	2	-	-	1	2	1
동구	-	-	-	-	-	-	-	-	-	-
미추홀구	19	10	9	-	3	2	4	4	3	3
연수구	3	-	3	-	1	1	-	1	-	-
남동구	6	3	3	-	2	-	-	-	2	2
부평구	8	-	7	3	3	1	1	-	1	2
계양구	-	-	-	-	-	-	-	-	-	-
서구	3	-	2	-	-	-	1	1	-	1
강화군	1	1	-	-	-	-	-	-	1	-
옹진군	-	-	-	-	-	-	-	-	-	-
총계	46	16	27	11	11	4	6	7	9	9

[표 3-5] 인천시 군·구별 전문예술법인단체 수(2020년 기준)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20.3.17. 검색),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현황」

*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이트 내 전문예술법인·단체리스트 주소 중 '남구'로 표기된 단체는 '미추홀구'로 합산함

- 지역축제는 시민들 간 교류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며, 축제를 통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조성 측면에서도 논의가 가능함
- 인천시 지역문화예술축제는 계양구와 서구,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인천시 4개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2개를 포함해 연간 20개의 축제 개최
- 공동체의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다양성과 예술적 창조성 측면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최되거나 관련 논의가 전무한 몇몇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 필요

- 축제의 규모나 콘텐츠, 행정/재정적 지원 여부에 따라 집계되지 않은 지역축제의 경우는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창조성 관점에서 접근 필요

(단위: 개)

구분	중구	동구	북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계
군구	3	1	1	2	1	1	-	-	5	-	20
인천시	4				IFEZ	2					

[표 3-6] 지역문화예술축제 수(2020년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지역축제 개최계획」

- 인천시에서 공연되는 문화예술작품의 수는 전국 현황과 비교하여 5.1% 수준이며 공연 횟수는 1.4% 수준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연극의 경우 전체 공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공연 횟수도 전국 대비 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나 문화예술공연 부문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진흥과 소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과 공론화 필요
 - 소비재로서 시장 원리에만 일임하게 될 경우 문화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창작 활동 역시 제한 우려

(단위: 건, 회)

구분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건	회	건	회	건	회	건	회	건	회	건	회
전국	9,089	62,139	645	847	4,629	5,430	2,424	51,747	517	1,015	874	3,100
인천	467	846	10	15	180	199	59	532	20	52	32	48
비율	5.1	1.4	1.6	1.8	3.9	3.7	2.4	1.0	3.9	5.1	3.7	1.5

[표 3-7] 인천시 공연예술작품 공연 건수 및 횟수(2020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2), 「2021 문예연감」

* 17개 시도 문화예술활동 건수 중 공연예술 분야 자료만 추출하여 정리, 공연 횟수의 경우 창작초연과 재공연 횟수를 합산함

(포용과 참여)

□ 문화기반시설

○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257개소를 포함하여 인천 전 지역에 315개가 분포하는 반면 시설별 지역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도서관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서구(73개소, 약 23%)와 남동구(51개소, 약 18%)에 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옹진군의 경우 전체의 약 1%(2개소) 수준으로서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나 문화적 권리보호는 제한적인 상황임
-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의 분포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미추홀구와 연수구, 부평구에 전체 공공도서관 58개 중 28개가 위치하며 전체의 약 49%를 차지, 지역별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됨을 시사

(단위: 개)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수				작은도서관 수		
		계	교육청	지자체	사립	계	공립	사립
중구	15	4	-	4	-	11	-	11
동구	13	3	1	2	-	10	1	9
미추홀구	30	10	1	9	-	20	3	17
연수구	40	10	2	8	-	30	7	23
남동구	51	5	1	4	-	46	5	41
부평구	41	8	2	6	-	33	7	26
계양구	37	6	1	5	-	31	11	20
서구	73	9	1	8	-	64	8	56
강화군	13	2	-	2	-	11	4	7
옹진군	2	1	-	1	-	1	1	-
총계	315	58	9	49	-	257	47	210

[표 3-8] 인천시 군·구별 공공도서관 수(2021년 기준)

출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2022.9.15.검색), 「공공도서관통계보기 2021년 통계결과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2022.9.15.검색), 「작은도서관통계보기 2021년 통계결과지표」

* '남구'로 표기된 지역은 '미추홀구'와 합산함(2018년 7월 1일자로 남구→미추홀구 구 명칭 변경)

- 등록공연장은 전체 39개소 중 서구에 8개소(20.5%), 남동구에 7개소(17.9%)가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공연 서비스 향유가 용이한 반면 도서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공연장이 한 곳도 위치하지 않아 공연장 역시 기본 문화서비스 추구가 제한적인 상황임

(단위: 개)

구분	계	공연장	
		공공	민간
중구	5	5	-
동구	1	1	-
미추홀구	5	5	-
연수구	5	3	2
남동구	7	6	1
부평구	5	2	3
계양구	3	3	-
서구	8	6	2
강화군	0	-	-
옹진군	0	-	-
총계	39	31	8

[표 3-9] 인천시 등록공연장 수(2019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e),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생활문화센터는 인천시 전체에 10개가 위치하는데, 이 중 남동구와 서구, 강화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옹진군의 경우 타 시설과 다르게 생활문화공간이 2개소로서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단위: 개)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계
개수	2	1	1	2	-	1	1	-	-	2	10

[표 3-10] 생활문화공간(생활문화센터) 수(2022년 기준)

출처: 지역문화진흥원(2022), 「전국 생활문화센터 리스트」

○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으로 분류되는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경우 타 시설과 비교하여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연수구와 남동구가 각각 4개소(19%), 3개소(14.3%)로서 타 지역 대비 다소 시설 집중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동구와 옹진군에는 문예회관이 없으며 문화의집은 연수구에만 1개소 위치

(단위: 개)

구분	계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중구	2	1	1	-
동구	1	-	1	-
미추홀구	2	1	1	-
연수구	4	2	1	1
남동구	3	2	1	-
부평구	2	1	1	-
계양구	2	1	1	-
서구	2	1	1	-
강화군	1	1	1	-
옹진군	1	-	1	-
총계	21	10	10	1

[표 3-11] 인천시 군·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수(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은 인천시 전역에 34개가 위치하는데, 이 중 미술관이 5개소이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와 미추홀구 2곳(각 1개소), 강화군 3곳으로서 미술 전용 관람시설과 서비스 접근성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임을 시사

○ 박물관의 경우 전체 29개소 중 9개가 중구에 위치하며 미추홀구 4개, 도서지역인 강화군에도 4개가 위치하여 타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접근성이 양호한 상황임

- 옹진군은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소비, 관광개발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

(단위: 개)

구분	계	박물관	미술관
중구	10	9	1
동구	1	1	-
미추홀구	5	4	1
연수구	3	3	-
남동구	3	3	-
부평구	2	2	-
계양구	1	1	-
서구	2	2	-
강화군	7	4	3
옹진군	-	-	-
총계	34	29	5

[표 3-12] 인천시 군·구별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수(2021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은 박물관의 경우 83건, 미술관은 13건이며 이 중 중구와 미추홀구의 미술관에서는 각각 9건, 4건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중구에 위치한 박물관의 프로그램 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미추홀구와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등 지역적 편차를 보임

(단위: 개)

구분	공공박물관			공공미술관		
	공공 박물관 수	프로그램 수	1관당 프로그램 수	공공 미술관 수	프로그램 수	1관당 프로그램 수
중구	5	22	3.7	1	9	7
동구	1	11	26	-	-	-
미추홀구	-	-	-	1	4	4
연수구	2	17	8.5	-	-	-
남동구	1	2	2	-	-	-
부평구	1	8	12	-	-	-
계양구	1	4	-	-	-	-
서구	2	19	11.5	-	-	-
강화군	3	-	2.3	-	-	-
옹진군	-	-	-	-	-	-
총계	16	83	66	2	13	11

[표 3-13]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공공도서관 58개소에서 정기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은 1,390건으로서 시설 당 평균 24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구 637건, 부평구 309건, 계양구 103건에 과반수가 집중되어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강화군은 도서관 2개소에서 정기 프로그램 6개를 운영하는 등 도서지역은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용진군의 경우 도서관이 1곳 위치하나 정기/비정기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등 문화포용성 측면의 한계가 노정됨

(단위: 개, 명)

구분	공공 도서관 수	합계		문화프로그램		1회성 문화프로그램	
		강좌 수	참가자 수	강좌 수	참가자 수	강좌 수	참가자 수
중구	4	113	36,259	45	4,747	68	31,512
동구	3	95	42,329	48	24,468	47	17,861
미추홀구	10	101	14,760	79	12,263	22	2,497
연수구	10	807	101,445	637	54,423	170	47,022
남동구	5	229	38,722	79	9,152	150	29,570
부평구	8	365	116,082	309	13,523	56	102,559
계양구	6	279	19,979	103	13,863	176	6,116
서구	9	172	55,909	84	25,277	88	30,632
강화군	2	7	968	6	926	1	42
용진군	1	-	-	-	-	-	-
총계	58	2,168	426,453	1,390	158,642	778	267,811

[표 3-14]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 및 참가자 현황(2021년 기준)

출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2022.09.25.검색), 「공공도서관통계보기 2021년 통계결과표」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는 일반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합산함

○ 공공도서관의 비정기 프로그램은 계양구(176건)와 연수구(170건), 남동구(150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됨

○ 기초자치단체별 정기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수구 54,423명(45.8%), 부평구에 13,523명(22.2%)과 같이 전체의 68%가 집중

- 비정기 프로그램의 참가자 역시 계양구(22.6%), 연수구(21.9%)와 남동구(19.3%)에 과반수가 집중되어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별 프로그램 참가자는 부평구가 전체의 약 27.2%를 차지하며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설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던 연수구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는 전체의 23.8%로서 서비스 공급 대비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강화군(0.2%), 미추홀구(3.5%), 계양구(4.7%) 등도 프로그램 참가자 비중이 전체의 5% 미만 수준으로서 이용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도서관의 방문자와 자료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방문자수는 연수구가 29.4%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뒤이어 서구 19.1%,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12.2%, 11.5%와 같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평균 방문자수 역시 연수구(20.7%), 남동구(16.2%), 서구(15%) 순으로 많았지만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군민의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실 이용을 위한 방문목적은 부평구가 23.7%로 가장 높고, 뒤이어 서구 18.5%, 연수구 17.9%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 이용객은 남동구 18%, 부평구 17.3%, 서구와 연수구가 각각 13.4%, 13%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임

(단위: 개, 명)

구분	공공 도서관수	방문자 수	평균 방문자 수	자료실 이용자 수	자료실 평균이용자 수
중구	4	526,345	131,586.3	575,292	143,823
동구	3	209,969	69,989.7	415,909	207,954.5
미추홀구	10	606,165	60,616.5	1,036,275	129,534.4
연수구	10	2,272,853	227,285.3	1,894,797	236,849.6
남동구	5	889,176	177,835.2	1,310,292	327,573
부평구	8	940,924	117,615.5	2,516,465	314,558.1
계양구	6	775,947	129,324.5	765,885	153,177
서구	9	1,478,892	164,321.3	1,957,556	244,694.5
강화군	2	37,506	18,753	120,943	60,471.5
옹진군	1	1,364	1,364	4,578	4,578
총계	58	7,739,141	1,098,691.3	10,597,992	1,823,213.6

[표 3-15]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및 자료실 이용자 수(2021년 기준)

* 공공도서관 2018년 통계결과표에서 미추홀구를 남구로 표기하여 작성됨. 출처 내 남구는 미추홀구로 작성 (2018년 7월 1일자로 남구→미추홀구 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동구(이룸청소년도서관 2021년 신설 방문자 수 0명 합산 포함)

-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수는 연수구(29%)와 중구(28.4%), 강화군(16.3%) 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며 시설 이용에 지역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평균 관람객수 역시 해당 지역이 과반수를 차지
 - 동구의 경우 전체 관람객 비중은 크지 않은 반면 평균 관람객은 전체의 약 18.7% 수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
- 공공미술관의 경우 전체 관람객의 82.2%가 중구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미술관 1개소가 위치한 미추홀구의 이용률이 저조함을 시사

(단위: 개, 명)

구분	공공박물관			공공미술관		
	공공박물관 수	관람객 수	평균 관람객 수	공공미술관 수	관람객 수	평균 관람객 수
중구	5	58,106	11,621.2	1	11,819	11,819
동구	1	18,979	18,979	-	-	-
미추홀구	-	-	-	1	2,554	2,554
연수구	2	59,254	29,627	-	-	-
남동구	1	8,803	8,803	-	-	-
부평구	1	8,938	8,938	-	-	-
계양구	1	7,438	7,438	-	-	-
서구	2	9,717	4,858.5	-	-	-
강화군	3	33,413	11,137.6	-	-	-
옹진군	-	-	-	-	-	-
총계	16	204,648	101,402.3	2	14,373	14,373

[표 3-16] 인천시 시·군·구별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연간 관람객 수(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전국문화관광기반시설 총람」

-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인천시 전역에 13개가 위치하며 이 중 중구와 미추홀구에 각각 4개소가 분포, 미추홀구는 공공박물관이 부재한 상황이라 민간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박물관의 소장자료는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약 98%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지정 문화재 수준의 자료는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단위: 개, 건, 점)

구분	계	구분		소장자료		
		사립	대학	소장유물개수		지정 문화재 개수
				건	점	
중구	4	4	-	949	4,434	-
동구	-	-	-	-	-	-
미추홀구	4	3	1	42,119	53,816	1
연수구	1	1	-	48,900	55,800	18
남동구	2	2	-	200	3,000	-
부평구	1	1	-	-	359	-
계양구	-	-	-	-	-	-
서구	-	-	-	-	-	-
강화군	1	1	-	208	693	-
옹진군	-	-	-	-	-	-
총계	13	12	1	92,376	118,102	19

[표 3-17] 인천시 군·구별 민간박물관 시설현황 및 소장자료 수(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연수구지정문화재(국보 1점, 보물 14점, 인천 유형문화재 3점)

** 미추홀구지정문화재(인천 무형문화재 1점)

- 민간박물관 13개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021년 기준 71건이며 이 중 미추홀구가 전체 프로그램의 39.4%(28건), 뒤이어 남동구와 중구가 각각 35.2%(25건), 21.1%(15건)를 차지
 - 미추홀구와 중구는 민간박물관이 각각 4개소로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이 위치하여 산술적으로 프로그램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1관당 프로그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동구가 12.5건으로서 시설운영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미술관 3개소는 모두 강화군에 집중되어 1관당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 관련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문화활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천시민의 문화적 권리보호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양, 수준, 내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필요

(단위: 개, 건)

구분	민간박물관					민간미술관				
	민간박물관 수			프로그램 수	1관당 프로그램수	민간 미술관 수			프로그램 수	1관당 프로그램수
	계	사립	대학			계	사립	대학		
중구	4	4	-	15	3.75	-	-	-	-	-
동구	-	-	-	-	-	-	-	-	-	-
마추홀구	4	3	1	28	7	-	-	-	-	-
연수구	1	1	-	3	3	-	-	-	-	-
남동구	2	2	-	25	12.5	-	-	-	-	-
부평구	1	1	-	-	-	-	-	-	-	-
계양구	-	-	-	-	-	-	-	-	-	-
서구	-	-	-	-	-	-	-	-	-	-
강화군	1	1	-	-	-	3	3	-	36	12
옹진군	-	-	-	-	-	-	-	-	-	-
총계	13	12	1	71	26.25	3	3	0	36	12

[표 3-18] 인천시 시·군·구별 민간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일상 속 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는 지역 간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시사

- 해당 시설은 인천시 전역에 73개가 위치하는데, 이 중 계양구가 4개소로서 다소 미진한 상황이며 옹진군은 관련 시설이 부재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 마련 필요

(단위: 개)

구분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계
문화 오아시스	10	8	8	8	10	8	4	8	9	0	73

[표 3-19]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수(2019년 기준)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2020.4.14.)

* 사업 포기 1개소 포함

- 인천시 전역에 영화관은 27개가 위치하며 전체 상영관수는 169개, 이 중 서구에 영화관 6개가 위치하며 중구와 미추홀구, 부평구에도 각각 4개의 영화관이 위치한 반면 옹진군에는 해당 시설이 전무하여 문화적 권리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상영관 보유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모가 큰 영화관이 위치한 곳은 남동구와 연수구, 부평구와 계양구로서 시설 당 평균 8~9개의 상영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

(단위: 개)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총계
영화관	4	1	4	3	3	4	1	6	1	0	27
상영관	16	1	24	24	27	30	8	38	1	0	169

[표 3-20] 인천시 영화상영관 수(2020년 기준)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2020.3.12. 검색), 「영화상영관 정보」

* 영화상영관 정보 내 영화관 주소에 미추홀구를 남구로 표기한 공우 미추홀구로 합산함
(2018년 7월 1일자로 남구→미추홀구 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문화활동

- 인천시민의 휴일 여가활동을 복수응답 허용을 통해 조사한 결과, 휴식활동(95.8%), 사회 및 기타활동(94.6%), 취미·오락활동(93.7%) 순으로 빈번하게 조사됨
- 이 외에도 관광활동(60.6%)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관람활동(46.9%), 문화예술 참여활동(32.6%) 등 포괄적 의미의 문화관점에서 인천시민의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시민들의 여가활동 장려하는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책 필요

(단위: %)

구분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취미 오락활동	관광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	95.8	94.6	93.7	60.6	46.9	45.4	36.6	32.6

[표 3-21]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복수응답)_중분류(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 휴가기간 중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예술활동을 복수응답 허용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29%가 휴가기간 중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관광활동을 문화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인천시민의 휴가 중 문화활동은 약 82%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상에서의 여가와 휴가기간의 여가활동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일상에서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생활문화 부문의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향상과 별도로 휴가기간 등 특정 시기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단위: % / 휴가 경험자 대상)

구분	관광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	81.8	59.6	18.1	22.8	8.0	3.0	6.1	21.2

[표 3-22] 휴가기간 중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이용공간을 복수응답을 허용해 확인한 결과, 기본 문화 서비스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 도서관(10.1%)과 주민자치센터(8.4%)에 대한 이용률이 다소 높았으며 박물관(6.6%) 이용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설이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원, 문학관, 문화의집 등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단위: %)

구분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대학부설문화교실	시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공연장
-	0.8	1.7	1.7	0.4	0.2	10.1	6.6	-	0.2	-	-	0.6	8.4	2.4

[표 3-23] 문화예술활동 공간별 이용률(복수응답)(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예술활동 중 콘텐츠 관람 현황을 복수응답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화관

람 비율이 과반수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영화 관람이 인천시민의 보편적인 문화예술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람 형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여 관람 형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고민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콘텐츠가 기획되고 이는 문화적 다양성, 창조성과 직결됨

(단위: 명, %)

구분	표본 수	영화 관람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연극공연 관람	연예공연 관람	전통예술 공연관람	음악회 관람	무용공연 관람
-	624	50.3	7.6	5.5	5.0	6.4	0.2	0.8	0.5

[표 3-24] 문화예술 관람률(2021년 기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문화예술관람 활동” 항목표를 참고함

□ 문화정책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노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현황을 확인
- 2017년 기준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인천이 배리어프리 문화기반시설 7개(실제로는 5개)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전국 229개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1,874개 중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시설은 총 39개(2.08%)로서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인천시의 경우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문화기반시설은 연수구(해돋이도서관), 남동구(소래역사관), 강화군(강화군립도서관, 강화자연사박물관), 부평구(부개도서관)이며, 연수구(2014, 2016)와 남동구(2011, 2012)가 2회씩 인증을 받아 7개로 집계됨
- 공연장과 전시장, 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으로서 지역사회 문화적 포용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공연장과 전시장, 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은 56.1% 수준임
 -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가 62.5%(2017년 기준)로서 관련 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음
 - 인천시의 경우 해당 시설을 갖춘 공연장, 전시관, 공공도서관은 총 7개로서 중구, 남구(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에 각 1개소가 있음
 - 반면 동구와 계양구, 옹진군은 관련 시설이 전무하여 임산부 등의 문화적 권리보호가 미흡한 상황인 바, 문화적 포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

□ 소결 및 시사점

(환경과 회복력)

- 민간박물관의 소장자료는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지정문화재 수준의 자료는 연수구에만 소장되어 있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번영과 생활)

- 문화예술공연은 소비재로서 시장 원리에만 일임하게 될 경우 문화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창작 활동 역시 제한되므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진흥과 소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론화 필요
- 일상에서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생활문화 부문의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 향상과 별도로 휴가기간 등 특정 시기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구분하여 다각적 지원 노력 필요

(포용과 참여)

- 문화기반시설로서 도서관의 지역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옹진군의 경우 도서관이 1곳 위치하나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등 문화포용성 측면의 한계가 노정됨
- 미술 전용 관람시설과 서비스 접근성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임

- 일상 속 시민의 생활문화 향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의 경우 옹진군은 관련 시설이 부재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 마련 필요
- 인천시 전역의 복지기관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수는 17명으로서 문화적 권리보호와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편성하는 한편 양적 보완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람 형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여 관람 형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배리어프리 문화기반시설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미흡한 상황인 바, 문화적 포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

3. 인천문화재단의 사업 분석

(환경과 회복력)

□ 지역문화 부문

- 지역문화 부문의 사업은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고찰하고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가치 창출을 목표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지지하는 SDGs Goal.11의 관점에서 이해됨
 - 경인길을 관통하는 통로였던 제물포라는 지역의 의미와 도화동 옛 상수도 가압펌프장이라는 공간자원을 결합해 이주와 이동, 공동체에 대해 문화예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협업하는 <제물포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진행
 -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평화예술 프로젝트>는 접경지역의 지역자산 조사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문가 좌담회를 비롯한 평화총서 발간을 통해 평화 관련 예술 프로젝트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고찰하는 기획 마련
 - 평화문화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인천 서해접경지역 포구 종합학술조사에서는 강화도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위치했다가 사라진 포구에 대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포구와 마을, 주민들의 생활사를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링과 일러스트 작화를 진행
 - <인천 해양역사문화 탐구> 사업은 강화, 옹진군 소속의 부속도서와 관련한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조사로서 인천의 해양역사문화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섬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한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SDGs. Goal.15와 Goal.12의 관점에서 이해됨
 - 강화도 해안 일대에 축조된 돈대, 외성, 포대 등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통해 관련 기초자료 확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강화 관방유적 조사연구> 진행
-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대한 문화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문화재단에서도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 구성
 - 재단 창립기념일과 연계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플로킹 행사 진행, 시각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점자 안내자료 제작 지원

(번영과 생활)

□ 지속가능경영 부문

-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는 “사회적가치 구현 경영체계 구축”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 안정적·효율적 조직운영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
 - 2019년까지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윤리경영과 상생 및 협력 기반의 경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전략목표로서 인권경영과 효율을 강조
- 기업과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통한 문화제휴 협력 사업은 과정 및 절차 측면에서 SDGs Goal.16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은 지역 예술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예술인, 단체를 후원하고 예술인은 기업의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공동기획하며 창의적 예술 활동을 실현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양측의 역할을 조율하고 독려하며 호혜적인 관계 형성과 결과를 야기하도록 협력
 - ‘하나금융티아이’와 함께 시민, 예술가는 금융 IT기업과 연계된 기업맞춤형 문화제휴협력사업, 장르를 제안하고 기업에서는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및 전시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연계되는 상호 호혜의 관계 속에서 지역문화를 진흥
 - ‘올림푸스 한국’과 함께 하는 <아이엠카메라 희망여행> 사업 역시 인천문화재단과 올림푸스 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하는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과 지역문화예술이 상생하고 활성화하는 지속가능성을 표방

(지식과 기술)

□ 시민문화 부문

- 시민문화 부문의 사업은 내용 상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SDGs Goal.4와도 연관됨

- <작은미술관>에서는 인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중한 나의 하루> 비대면 프로그램을 비롯해 만석동의 이야기를 담아낸 <우리 마을에서...> 판화 워크숍과 같이 교육 참여자의 결과물을 전시화하여 시민들의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의 예술력 강화에 기여
-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는 전문음악교육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웠던 섬 주민들을 위해 전문 연주자들을 현지에 파견, 주민들의 연주실력 향상을 돕고 그 결과물을 공연화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을 문화예술의 향유자에서 생산자로 도약하도록 지지
-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신중년, 노년과 같이 세대별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실현,
- 2019년 시작한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은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등 일부 세대에게 집중되어 왔던 문화예술교육을 전 연령, 특히 일반 성인에게까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서 전 세대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며 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력 제고에 기여

(포용과 참여)

□ 창작지원 부문

-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거점을 활용한 예술서비스 확대와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SDGs Goal.1과 연관됨
-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역과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하는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0년에는 공연과 목공, 답사, 음반제작, 박람회, 뮤지컬, 축제, 영상, 노동 등 각기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참여단체의 장점과 특징을 살린 사업을 기획
- 해당 사업은 일상과 삶을 소재로 한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갈등과 시선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이의 폭을 좁히는데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를 지지

- 상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암전공간 청각콘서트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다수자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한 창의적 시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 예술적 자유를 위한 시민 모두의 문화 참여를 지지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화의 기능을 강조한 사업임
- 〈우.주.인 프로젝트〉는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기획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객체에서 주체로 도약하는 문화 트렌드를 반영, 생활문화 활동의 초점을 향유자에서 생산자로 상향하고자 한 기획의도가 엿보임
- 예술인 〈서로x지원〉 사업은 장르 간 결합, 협업을 바탕으로 예술인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창작자 간 범 장르적 새로운 경험, 시도를 위해 기획된 사업인데, 이는 2020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화한 것으로서 Goal.16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님
- 〈바로 그 지원〉 사업은 신진예술가를 기획, 지원하는 것으로서 신진예술가들이 인천에서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람과 공간, 자원과의 연결을 돕는 프로젝트일 뿐 아니라 그 절차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의의를 지는데, 공모참여자과 동료작가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와 관람객 모두가 심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준수

□ 시민문화 부문

- 시민문화 부문의 사업전략은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으로서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교육을 통해 시민 문화력 제고를 위한 과제 수행
 - 2019년까지는 시민의 문화 참여기회와 문화다양성 확대,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사업전략을 수정하여 생활문화와 시민문화력을 강조
- 시민문화 부문의 사업 대다수도 SDGs Goal.1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문화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참여를 지지
 - 〈서해 평화예술 프로젝트〉는 도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기획 한 사업으로서 섬주민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포용을 지지

- <예술정거장 프로젝트>는 인천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이자 일상의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예술작품을 통해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서 문화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사업이며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도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교통공사, 예술작가 간 거버넌스를 형성하며 포용적 문화를 지지
 -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은 동아리 발표 활동에 필요한 관련 비용 지원과 동아리 모임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SDGs Goal.11의 관점에서 공동체 간 교류와 그 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 확보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관련 사업으로 이해됨
 - <동네방네 아지트>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 발굴과 그곳에서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9개 군·구의 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문화공간 활성화를 지원하며 문화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지지
-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SDGs Goal.16과 연관된 거버넌스를 지지
-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현장 소통 강화, 협치를 위해 <시민문화협의회>를 운영, 인천문화재단의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정례화
 - <우리 만나>는 인천 내 8개 생활문화센터와 인천시, 인천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한 협력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기초문화재단과 생활문화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포용과 참여의 문화 정착과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진흥에 기여

□ 지역문화 부문

- 지역문화 부문의 사업전략은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굴”로서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의 문화가치 창출,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과 관련한 과제 수행
- 2019년까지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와 인천형 문화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전략목표로서 지역문화가치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과 연관된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국제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SDGs G.17 관련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 경주

- 인천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중국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임진예성포럼>을 개최, 향후 인천, 경기, 중국과 북한 연구자의 공동 연구를 위한 초석을 다지며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2019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한중일 청년 작가들이 인천에서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중일 문학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3국의 문화예술단체 교류, 합창제, 작가교류전 등의 국제적 문화협력 프로그램 진행
 - 인천문화재단은 대만 남부의 항구도시 가오슝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개항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지
- 지역문화 부문의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시민참여 확대와 네트워크 구성 등 SDGs Goal.16과 연관된 거버넌스를 지지
-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를 발족, 인천문화재단도 이에 참여하여 공동연구과제와 정책토론회 등을 주도
 - 수인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재단(인천, 경기, 연수, 수원, 안산, 화성 등)과 포럼 운영, 연수문화재단과는 협업전시 <수인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진행
 - 민관협력 문화정책 네트워크 <인천문화포럼>를 통해 지역 문화정책 현안을 연구한 지 7년차를 맞이하였으며 예술창작,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문화 확산·활용의 4개 분과회의를 통해 문화현장과 밀착한 실질적 의제 발굴, 정책화에 기여

□ 소결 및 시사점

-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예산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공론화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단의 사업예산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의 확대 노력과 관심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2020년 사업비의 증가율이 높는데, 2019년(29,307,005,000원) 대비 약 24% 증가한 36,343,244,267원의 재정을 확보했으며 2021년 사업비는 42,343,281,422원으로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5% 수준임
 - 4개 부문의 사업예산 규모를 비교했을 때, 시민문화 부문의 사업예산이 44.1%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창작지원(34.8%), 지속가능경영(11.5%), 지역문화(9.6%)순 임
 - 부문별 사업예산의 변동은 지속가능경영 부문이 가장 큰데, 2019년 전체 사업예산의 14.5%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11.5%으로 축소된 반면 시민문화 부문은 같은 기간 42.2%에서 44.1%로, 창작지원 부문은 33.5%에서 34.8%로 상향되었으며 지역문화 부문의 사업예산도 9.7%에서 9.6% 수준으로 소폭 감소함
-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창작지원, 시민문화, 지역문화, 지속가능경영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은 문화창조성, 문화다양성, 문화적 권리보호와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문화 실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

(환경과 회복력)

- 지역문화 부문의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고찰하고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가치 창출을 목표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지지하는 SDGs Goal.11과 연관됨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대한 문화의 역할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시민 일상에서의 실천을 촉구하는 문화영역의 노력은 미미한데, 특히 내용상 환경 부문에 이슈가 부재함

(번영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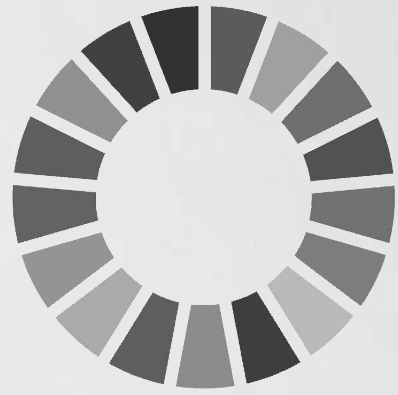
- 지속가능경영 부분의 사업은 기업과 예술인(단체), 인천문화재단 간 문화제휴 협력 사업으로서 그 과정 및 절차 측면에서 SDGs Goal.16 거버넌스와 연관됨

(지식과 기술)

- 시민문화 부분의 사업 다수는 내용 상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SDGs Goal.4와 연관됨

(포용과 참여)

- SDGs Goal.1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창작지원 부분의 사업은 창조적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문화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
- 시민문화 부분의 사업 대다수는 SDGs Goal.1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문화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표
- 부문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과 연관된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국제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DGs G.17 관련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 경주
- 재단에서는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비롯한 시민참여와 네트워크를 지지하는데, 이는 문화적 권리보호와 거버넌스를 다루는 SDGs Goal.16과 관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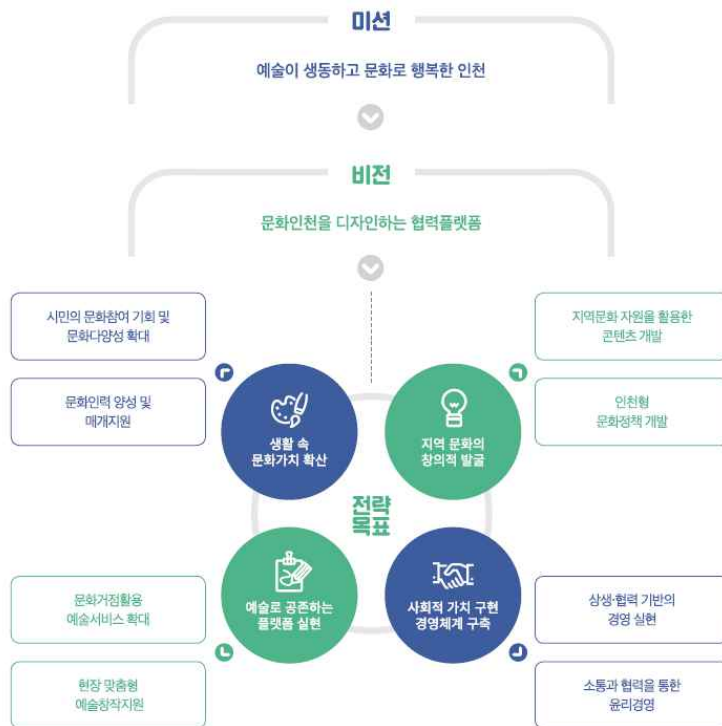
인천 SDGs와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연계성 분석

1. 인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연계성 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1. 인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 인천문화재단의 비전체계

-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인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기금을 출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19년-2021년까지 “예술이 생동하고 문화로 행복한 인천”을 미션으로 제시함
- “문화인천을 디자인하는 협력플랫폼”을 비전으로 구현하기 위해 창작지원, “예술로 구현하는 플랫폼 실현”, 시민문화,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지역문화, “지역 문화의 창의적 발굴”,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 경영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목표로 실행하고 있음
- 2019년-2021년까지 “문화인천을 디자인하는 협력플랫폼”을 비전으로 구현하기 위해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지역 문화의 창의적 발굴”, “사회적 가치 구현 경영체계 구축”을 전략 목표로 실행하고 있음



〈그림 4-1〉 인천문화재단 경영전략(2019-2021)

자료: 인천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2022년에는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도시 인천”을 미션으로 “문화자치를 촉진하는 협력플랫폼”을 비전으로 구현하기 위해 “예술지원의 안정화와 다양성기반 지원체계 구축”,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자원 활용 다각화”, “지속가능성 기반 문화역량 확보”, “미래대응 경영 실현”을 전략 목표로 실행하고 있음

미션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도시 인천
비전	문화자치를 촉진하는 협력 플랫폼
전략목표	전략과제
예술지원의 안정화와 다양성 기반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예술지원 강화
	예술지원 다각화
	예술인 복지 확대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자원 활용 다각화	협력형 시민문화활동 체계 구축
	창의적 문화교육 일상화
	문화자원 보급과 환류 활성화
지속가능성 기반 문화역량 확보	데이터 기반 구축 및 정책네트워크 확대
	다양성 기반 문화도시 지향
	평화교류 선도
미래대응 경영 실현	지속가능 경영 기반
	협력·상생 가치 실현

〈그림 4-2〉 인천문화재단 경영전략(2022)

자료 : 인천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인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한국문화근대박물관,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우리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지원활동, 문화 향유와 자발적 시민문화활동 기회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기획사업, 연구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2021년 인천문화재단의 전략 목표에 대한 전략 과제와 주요 사업은 [표 4-1]과 같음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주요 사업
〈창작지원〉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공연예술연습공간
		우리미술관
		청년문화창작소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원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예술인지원센터
		인천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예술활동지원
〈시민문화〉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시민문화활성화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야외공연
		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
		온라인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굴	지역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한국근대문학관
		인천문화유산센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
		인천평화학교 전시관 구성, 설치 사 업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기능 확대	문화정책 네트워크
		시민문화협의회 운영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조사
		문화예술기록사업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주요 사업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 경영체계 구축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 경영	사회적가치 가치실현
		안전경영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친환경경영
		직장 문화 조성
		공정채용
		회계제도 운영

[표 4-1] 2021년 전략 목표, 과제, 사업

자료: 인천문화재단 내부자료 재구성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연계성 분석

1) 연계성 분석 개요

□ 목 적

- 인천문화재단의 전략 과제·주요 사업과 UN-SDGs 목표, 세부목표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인천문화재단의 활동을 진단하고, SDGs와 인천문화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분석 방법

- 인천문화재단의 전략 과제·주요 사업을 UN SDGs 목표, 세부목표와의 연관성을 분류
 - 2021년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 과제와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SDGs 17개 목표, 세부목표와의 연관성을 핵심 목표, 관련 목표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음
 - 핵심 목표는 전략 과제, 주요 사업 간 관계가 직접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함(고재경 외, 2020: 96). 사업의 목적이 SDGs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방향과 결과가 SDGs와 직접 연관된다고 판단하여 핵심 목표로 분류하였음
 - 관련 목표는 전략 과제, 주요 사업 간 간접적이고 연관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함(고재경 외, 2020: 96). 주요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이 SDGs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결과가 SDGs와 간접 연관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목표로 분류하였음
 - 연구진이 1차 분류한 자료를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3인이 인천문화재단 보고서·UN SDGs와 1차 분류 결과를 재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분류하고, 최종 결정함
- 연결망 분석을 통한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목표·세부목표와의 연계성 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을 활용해 2021년 인천문화재단의 전략 과제·주요 사업과 SDGs 17개 목표 간 연계성을 분석함

- SNA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 연계성, 상호작용, 역할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스템 접근법임(Wasserman & Faust, 2006; 박치성, 2010; 유미현, 2013; 변장섭 & 나주몽, 2016 재인용). SNA는 구조적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측정하여, 구조적 관계가 왜 발생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곽기영, 2014, p17)으로 함
- SNA를 통해 인천문화재단의 전략, 주요사업과 SDGs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주요사업과 주체들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임
- SNA 분석은 NetMiner 4.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2) 연계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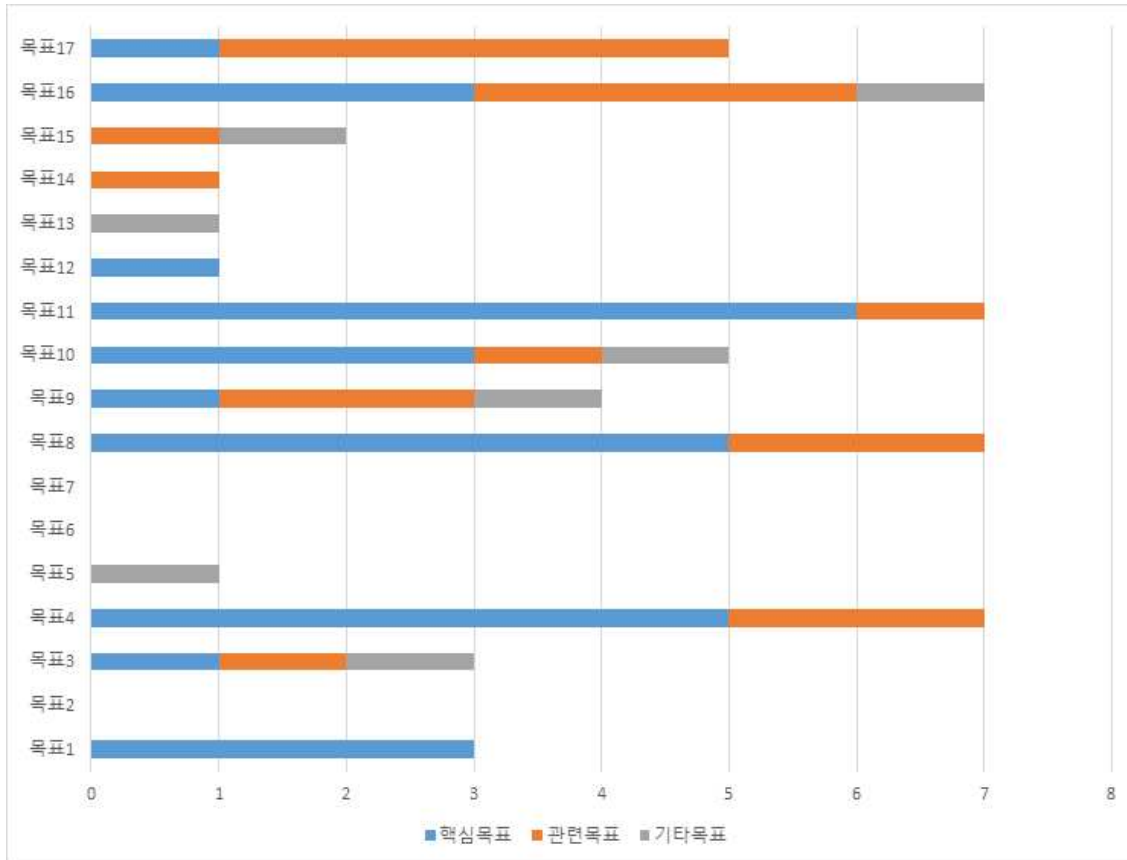
□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SDGs 목표·세부목표 연관성

- 인천문화재단 8대 전략과제와 SDGs 목표를 연결해보면 14개 목표가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 4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증진, 목표 8 경제성장,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축진의 경우 주요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SDGs와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목표 10 불평등 감소, 목표 9 회복력있는 사회 기반시설 구축과 산업 혁신 등 경제부문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 목표 16 평화, 인권, 포용적인 제도 구축과 목표 17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 부문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 목표 5 성평등의 경우 성평등 워크숍 등과 같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어 인천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전략과 사업에 성평등 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음. 또한 목표 2 식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은 전략과제에 대한 연결이 공백상태로 나타났으며, 목표 1 빈곤 종식, 목표 3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의 경우도 연계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 사회부문과의 연관성이 낮게 나타남

-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 목표 14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 15 육상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교육 등과 같이 프로그램 또는 단일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7 에너지와 관련한 전략 과제에 대한 연결이 공백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환경부문과의 연관성이 낮게 나타남

구분	유엔 SDGs					
	핵심 목표	핵심 세부목표	관련 목표	관련 세부목표	기타 목표	기타 세부목표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1.4.8. 10.11	4.3, 4.4, 4.5, 4.a, 8.3, 8.8, 10.2, 11.7, 11.4	9.16.17	4.3 4.a 8.3 8.9 9.c 16.7	5.13. 15	5.1 13.3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원	1.4.8. 10.11	1.3, 1.4, 4.3 4.4, 8.3, 8.8, 9.5 9.c, 10.1, 11.7	3	3.4 10.1 11.4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1.3.4. 8.9.10. 11	1.4, 3.4, 4.3 4.4, 4.7, 8.3, 9.c, 10.2 10.4, 11.4 11.7	16.17	16.7 17.7 17.17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력 제고	4.8	4.1, 4.2, 4.3 4.4, 4.5, 4.7, 8.3	11.17	8.6 8.9 11.4	3.9.1 0 16	3.4 9.c 10.2 16.6
지역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4.11	4.7, 11.4, 11.7	8.9.14 15.16.17	8.3 9.c 14.2 14.7 15.9 16.7 17.17 17.8 17.18		8.9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기능 확대	16.17	16.6, 16.7, 17.17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 경영	11.16	11.7, 16.5, 16.6, 16.7, 6.10	4.8.10	4.7 8.8 10.3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8.11.12 16	8.3, 8.8, 11.6, 12.1 12.5, 12.6, 12.7, 12.8, 16.5, 16.6, 16.7	4	8.4 4.7		

[표 4-2] 2021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UN SDGs 연관성



〈그림 4-3〉 UN SDGs 목표와 연관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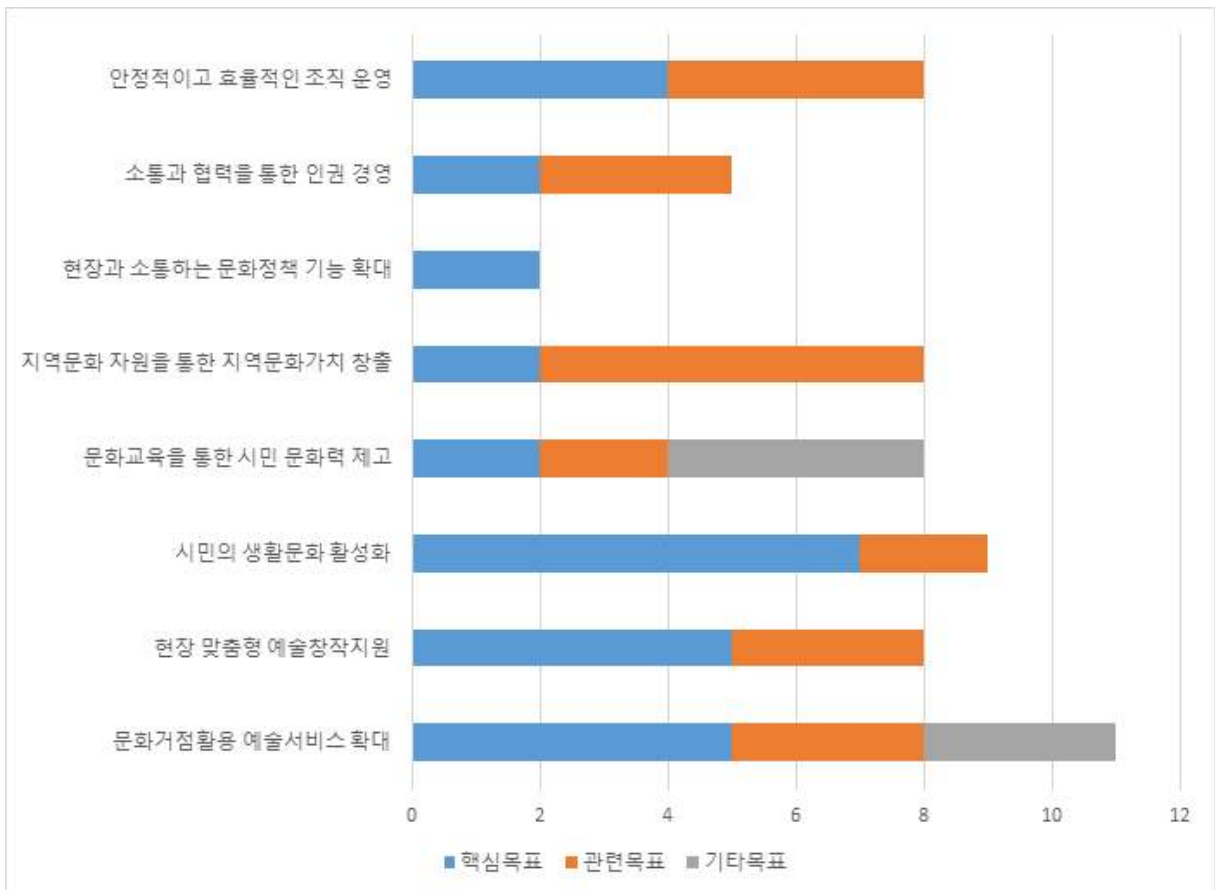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SDGs와의 연관성이 높은 목표는 목표 11, 목표 4, 목표 8, 목표 16임

-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 4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16 평화와 인권, 책임성있고 포용적인 제도 등 4개 목표가 7개 전략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목표 10 불평등 감소와 목표 17 파트너십은 5개의 전략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산업과 혁신 도모는 4개 전략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목표 1 빈곤 종식, 목표 3 삶의 질 보장은 3개 전략과제와 관련성이 있으며, 목표 15 육상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2개의 전략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 5 성평등 증진,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은 각각 1개의 전략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 2 식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전략과제와의 관련성은 공백상태로 나타남

○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별로 SDGs와 평균 7.5개 이상 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그림 4-4〉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UN SDGs 연관 목표 수

○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전략과제는 SDGs 11개 목표와 연계되어 가장 많은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전략과제와 연계되어있는 SDGs 목표는 목표 1 빈곤 종식, 목표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10 불평등 감소,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 등 5개 목표가 핵심

목표로 SDGs 목표가 전략 과제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음. 목표 5 성평등, 목표 13 기후위기 대응 목표 15 육상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세부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 기타목표로 분류되었음

○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과제와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전략과제는 각각 9개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과제는 목표 1 빈곤 종식, 목표 3 건강과 웰빙, 목표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9 산업과 혁신, 목표 10 불평등 감소,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 등 7개 목표가 핵심 목표로 분류되었음
-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력 제고 전략과제는 목표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등 2개 목표가 핵심 목표로 SDGs 목표가 전략 과제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격차 해소, 온라인 문화예술 설계 연구, 조례제정 간담회 등 목표 3, 목표 9, 목표 10, 목표 16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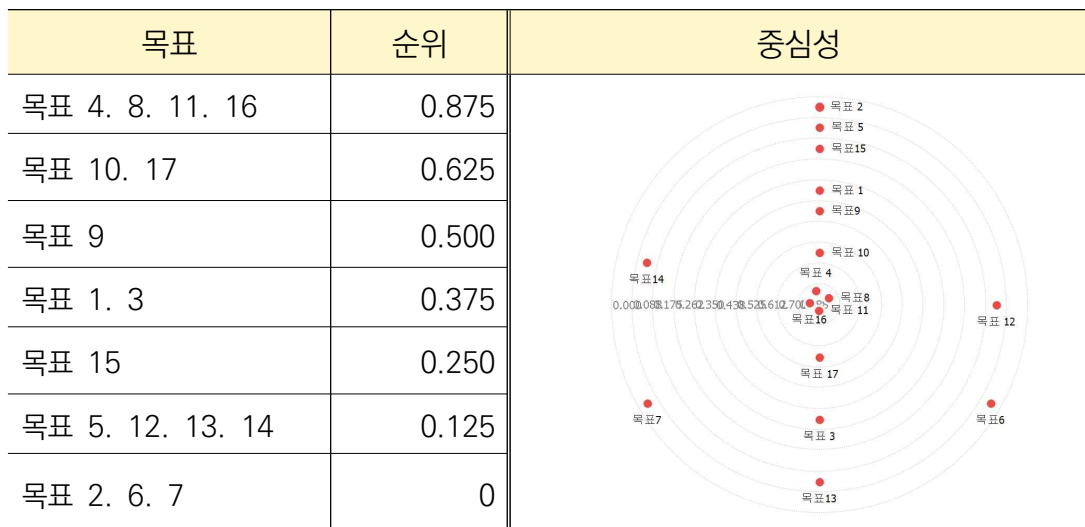
○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원 전략과제와 지역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전략과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전략과제는 각각 8개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원 전략과제는 목표 1 빈곤 종식, 목표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10 불평등 감소,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 등 5개 목표가 핵심 목표로 분석되었음
-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창출 전략과제는 목표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가 핵심 목표로 분석되었음, 문화자원의 디지털화는 세부목표 9.c 정보기술 접근성과 연계되고, 통계데이터 강화는 세부목표 17.18 통계데이터 역량 강화와 연결됨. 목표 8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9 산업과 혁신,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 목표 15 육상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16 평화와 인권, 책임성있고 포용적인 제도, 목표 17 파트너십 등 6개 목표가 관련 목표로 분석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전략과제는 친환경자원순환계획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목표 11과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포용적 근로환경, 참여적 의사결정, 책임있고 투명한 제도 측면에서 목표 8, 목표 16과 관련이 있음

□ 사회연결망 분석

- 인천문화재단 8대 전략과제가 SDGs 목표와 연결되어 SDGs 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실시함
- 분석요소는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SDGs 목표간 연결정도 중심성을 분석하였음. 연결정도 중심성은 연결된 결점의 수를 의미함.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SDGs간 연계정도를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분석함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는 목표 4, 목표 8, 목표 11, 목표 16과 가장 강한 연결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목표 10, 목표 17, 목표 9와 강한 연결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음



[표 4-3]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목표 중심성 - 1

- 전략과제와 목표 간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와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과제가 SDGs와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남

목표	중심성 벡터값	SDGs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0.647	1.4.5.8.9.10. 11.13.15.16.17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0.529	1.3.4.8.9. 10.11.16.17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0.471	3.4.8.9.10.11.16.17
지역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문화 가치 창출	0.471	4.8.9.11.14.15.16.17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원	0.353	1.3.4.8.10.11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0.294	4.8.11.12.16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 경영	0.294	4.8.10.11.16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기능 확대	0.118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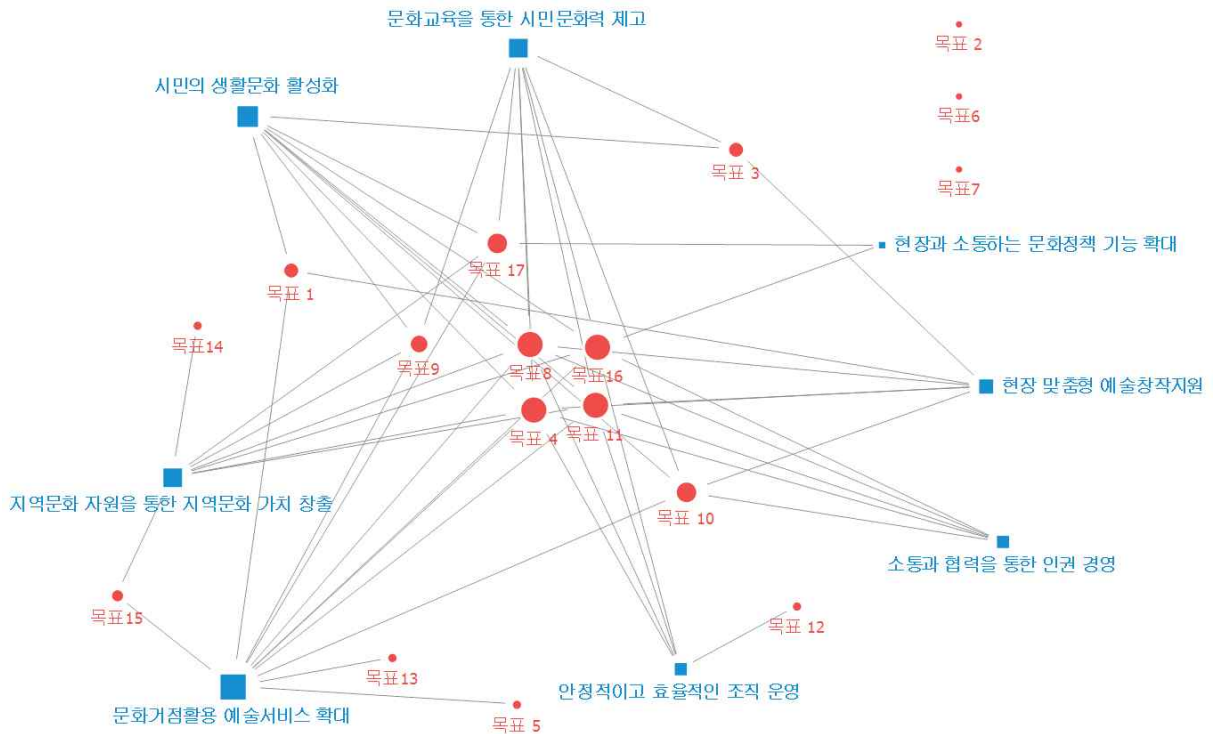
[표 4-4]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목표 중심성 - 2



〈그림 4-5〉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의 SDGs 목표 중심성-3

- SDGs는 목표간 상호 연계되어 있어 기관의 전략과 사업과 SDGs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넥서스 접근 방법이 필요함.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와 SDGs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전략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SDGs 목표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6>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전략과제를 통해 연계된 SDGs 목표가 상호 연결되면서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를 통해 목표 11, 목표 4, 목표 16, 목표 8과 목표 10, 목표 17, 목표 9가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4-6>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목표 중심성-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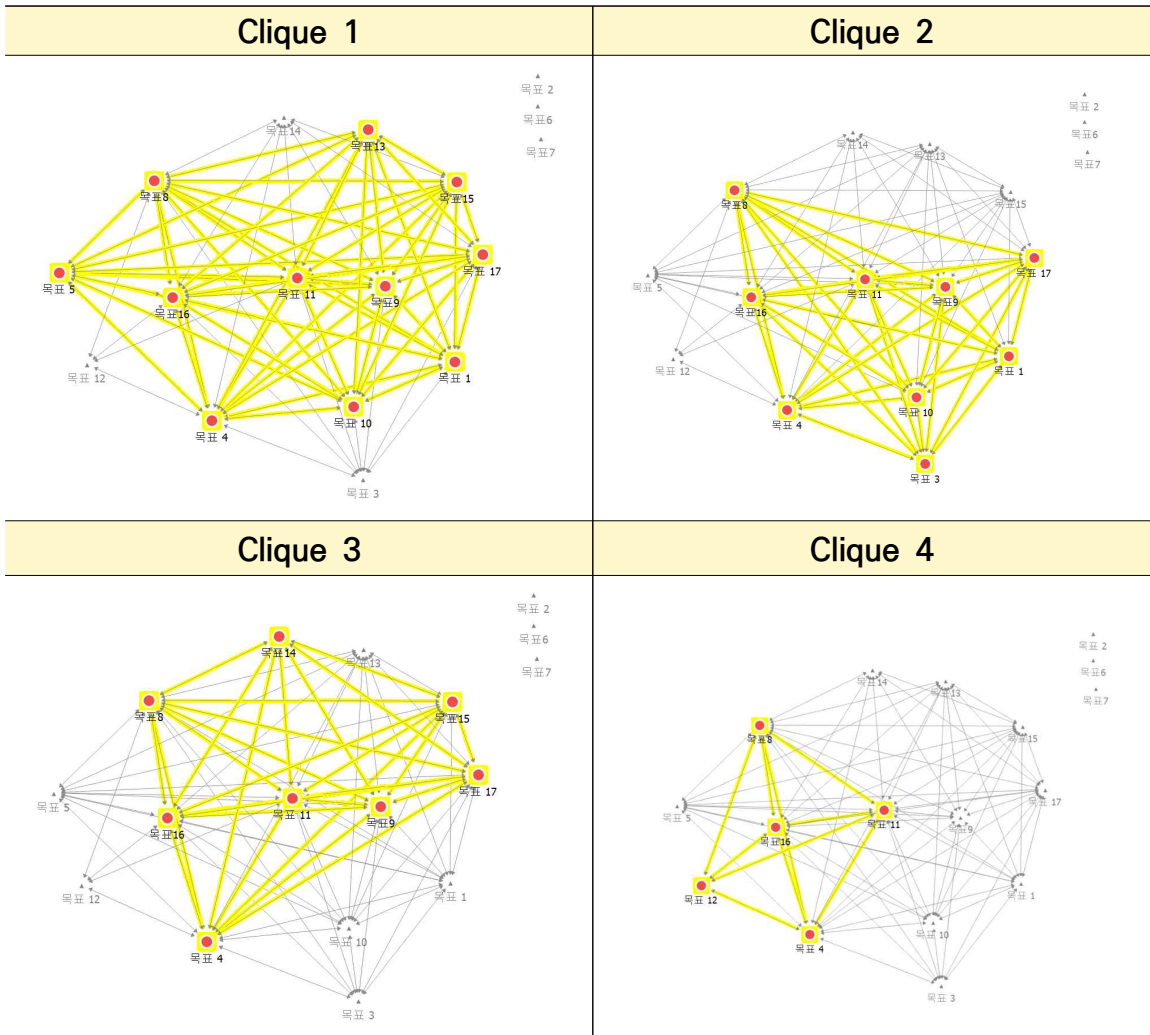
○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SDGs 목표간 응집그룹 분석

-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SDGs 목표가 평균 7.5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SDGs 목표간 넥서스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응집분석을 진행함. 응집분석은 clique를 측정하였음. 예를들어 SDGs 17개 목표가 목표1-목표4, 목표1-목표8, 목표5-목표8 목표5-목표11과 같은 연결관계를 가진다면 목표1, 목표4, 목표8, 목표 11은 서로 간 모두 연결된 Clique를 형성하게 됨
- SDGs 목표간 4개 이상 상호 연결된 군집을 추출한 결과 총 4개의 clique가 추출됨

Cliques	크기	SDGs	응집지수 (Cohesion Index)
Cliques 1	11	4. 8. 11. 16. 9. 17. 10. 1. 13. 15. 5	3.474
Cliques 2	9	4. 8. 11. 16. 9. 17. 10. 1. 3	2.118
Cliques 3	8	4. 8. 11. 16. 9. 17. 14. 15	1.895
Cliques 4	5	4. 8. 11. 16. 12	1.667

[표 4-5]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응집 분석

- 응집분석결과,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는 C(문화예술·도시공간)-E(교육)-W(고용과 일자리)-R(참여·제도)를 중심으로 CEWR 넥서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C(문화예술·도시공간)-E(교육)-W(고용과 일자리)-R(참여·제도)과 R(참여·제도)-P(파트너십)-I(산업혁신)-S(문화격차 완화) 연계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음



〈그림 4-7〉 인천문화재단 전략 과제와 SDGs 응집 분석

3)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와의 연계성

□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 연관성

- 인천문화재단 34개 주요사업은 1개 이상의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평균 3.5개 이상의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목표 11이 23개의 사업(67.7%)로 가장 많은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목표 8 19개 사업(55.9%), 목표 4 16개 사업(47%)로 연계성이 높게 나타남. 인천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예술인의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목표 16 11개 사업(32.4%), 목표 10 10개 사업(29.4%), 목표 목표 9 9개 사업 (26.5%), 목표 17 9개 사업(26.5%), 목표 1 6개사업, 목표 3 5개 사업, 목표 12 2개사업, 목표 5,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 1개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 목표 2, 목표 6, 목표 7은 주요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음

구분		유엔 SDGs					
		핵심 목표	핵심 세부목표	관련 목표	관련 세부목표	기타 목표	기타 세부목표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인천아트플랫폼	8.11	8.3 11.7	4.9.	4.3 4.a 8.9 9.c		
	트라이보울	11	11.4 11.7	4.8	4.3. 4.a 8.3 8.9	9.15	9.1 9.c
	공연예술연습공간	4.8.11.	4.3. 4.4 4.a 8.3 8.8 11.7	9		5. 10	5.1 10.2
	우리미술관	1.4.10. 11	1.4 4.3 4.4 4.5 4.a 10.2 11.7				
	청년문화창작소	4.8.11	4.3 4.4 4.a 8.3 11.7	9.16. 17	8.6 16.7	13	13.3

구분		유엔 SDGs					
		핵심 목표	핵심 세부목표	관련 목표	관련 세부목표	기타 목표	기타 세부목표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 원	문화예술지원사업	4.8	4.3 4.4 8.3	11	11.4		
	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	8.11	8.3 11.7				
	인천예술인지원센 터	1.8.	1.3 8.3 8.8	4.10	4.3 10.1 10.4	3	3.4
	인천예술인 긴급생계지원	1.10	1.3 10.1	3	3.4		
	온라인예술활동지 원	1.9	9.5 9.c 1.4	8	8.3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4.11	4.3 4.4 4.7 11.4 1.7	10.16. 17	10.2 16.7 17.17	1.8	1.4 8.3
	시민문화활성화 지원	4.11	4.3 4.4 4.7 11.4 1.7	10. 16.17	10.2 16.7 17.7	8	8.3
	통합문화이용권	1.3.10	1.4 10.2 10.4	11	11.4		
	찾아가는 야외공원	3	3.4	10.11	10.2 11.4		
	클라우드펀딩지원 사업	10.11	10.2 11.4	8	8.3		
	온라인문화공연콘텐츠 제작	8.9	8.3 9c	11	11.4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력 제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4.	4.1 4.2 4.3 4.4 4.5 4.7	8	8.9	3.10	3.4 10.2
	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	4.8.	4.4 4.5 8.3	11.17	8.6 11.4	9.16	9.c 16.6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4	4.2 4.3 4.4 4.5 4.7	8.11	8.3 11.4		
지역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 치 창출	한국근대문학관	11	11.4 11.7	4.8 17	4.7 8.3 9.c 17.8		
	인천문화유산센터	4.11	4.7 11.4	9 17	9.c 17.18	8	8.9
	평화문화예술교류 사업	11	11.4 11.7	14.15. 16.17	14.2 14.7 15.9 16.7 17.17 17.18	8	8.3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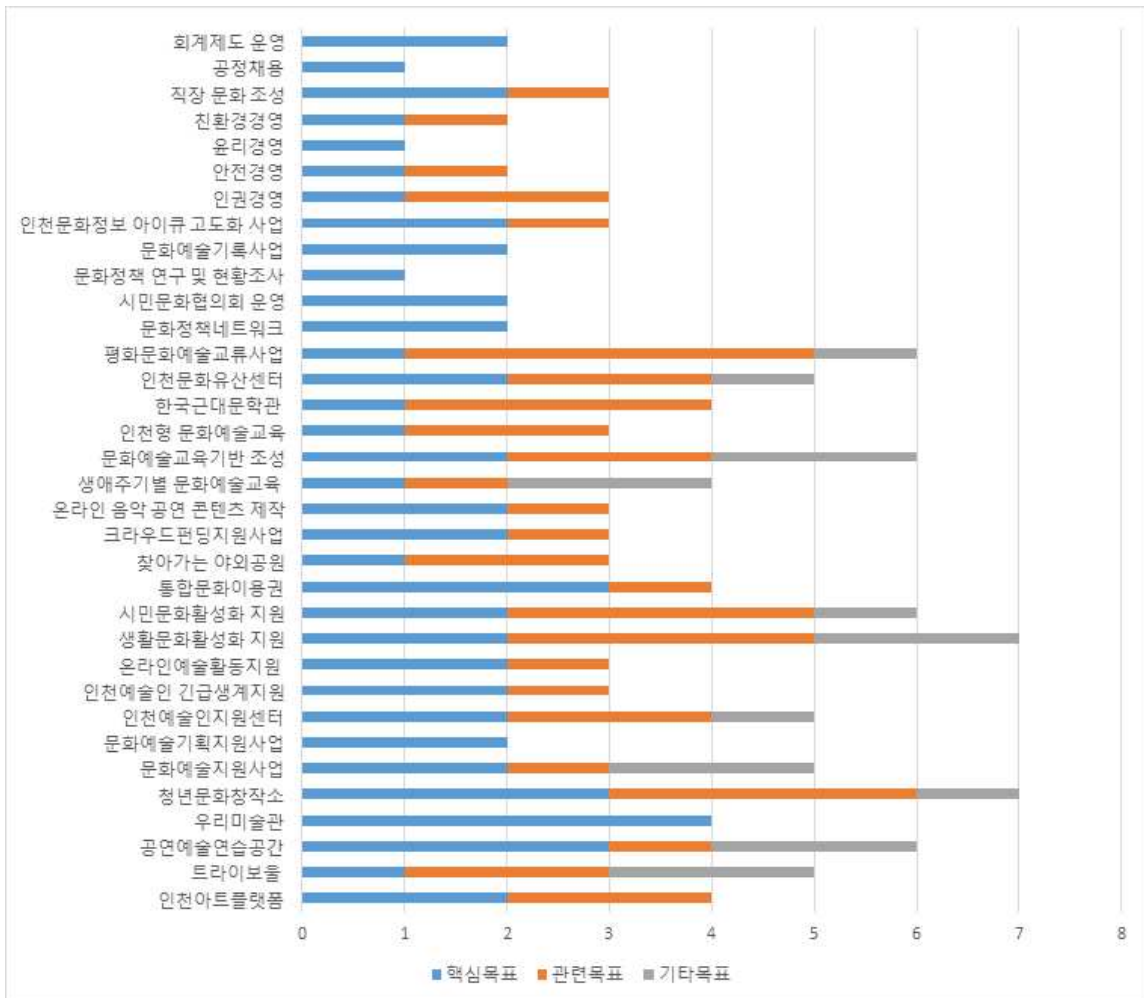
구분		유엔 SDGs					
		핵심 목표	핵심 세부목표	관련 목표	관련 세부목표	기타 목표	기타 세부목표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기능 확대	문화정책네트워크	16. 17	16.6 16.7 17.17				
	시민문화협의회 운영	16. 17	16.6 16.7 17.17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조사	11	11.4				
	문화예술기록사업	11.17	11.4 17.18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	9.11	9.c 11.4	8	8.3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 경영	인권경영	16	16.5 16.6 16.7	4.10	4.7 10.3		
	안전경영	11	11.7	8	8.8		
	윤리경영	16	16.5 16.6 16.7 16.10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친환경경영	11.12	11.6 12.1 12.5 12.6 12.8	8	8.4		
	직장 문화 조성	8.16	8.8 16.6 16.7	4.	4.7		
	공정채용	16	16.5 16.6 16.7				
	회계제도 운영	8.12	8.3 12.6 12.7				

[표 4-6] 2021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UN SDGs 연관성

○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 중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과 청년문화창작소사업이 각각 7개의 SDGs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은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기반 마련과 생활문화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매개 역할을 통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인천 시민의 생활 속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 생활문화 정책 수립 등 생활문화지원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운영, 예술동호회 지원 사업 등이 있음. UNESCO 2030의 ‘유·무형 자연문화유산의 보호 및 증진’(목표 11) 및 ‘문화와 교육간 연계 강화’(목표 4) 정책 목표와 연관이

있음. 생활문화정책 및 협력체계 구축은 목표 16, 목표 17과 관련이 있으며, 강사 지원 등은 목표 8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관련이 있음.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세부목표 9.1 사회기반시설의 접근성 및 10.2 사회적 포용성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연계 목표 수

○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와의 연계 목표수는 〈그림 5-9〉와 같음

- 청년문화창작소사업은 청년 창작문화 운영을 기반으로 청년창작자·기획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창작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사업의 목적이 목표 8, 목표 4, 목표 11과 연관이 있음. 세부 사업으로는 청년문화창작소 운영과 청년문화 창작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홍보 교육, 문화 기획 및 아카이빙 지원, 청년문화창작소 활성화를 위한 인천의 청년 문화 기반 조성 및 청년그룹 네

트위크 플랫폼 구축 등이 있음. 세부 사업의 내용은 목표 9, 목표 16, 목표 17과 관련이 있으며, 프로그램 중 일부 기후변화관련 교육이 진행되어 목표 13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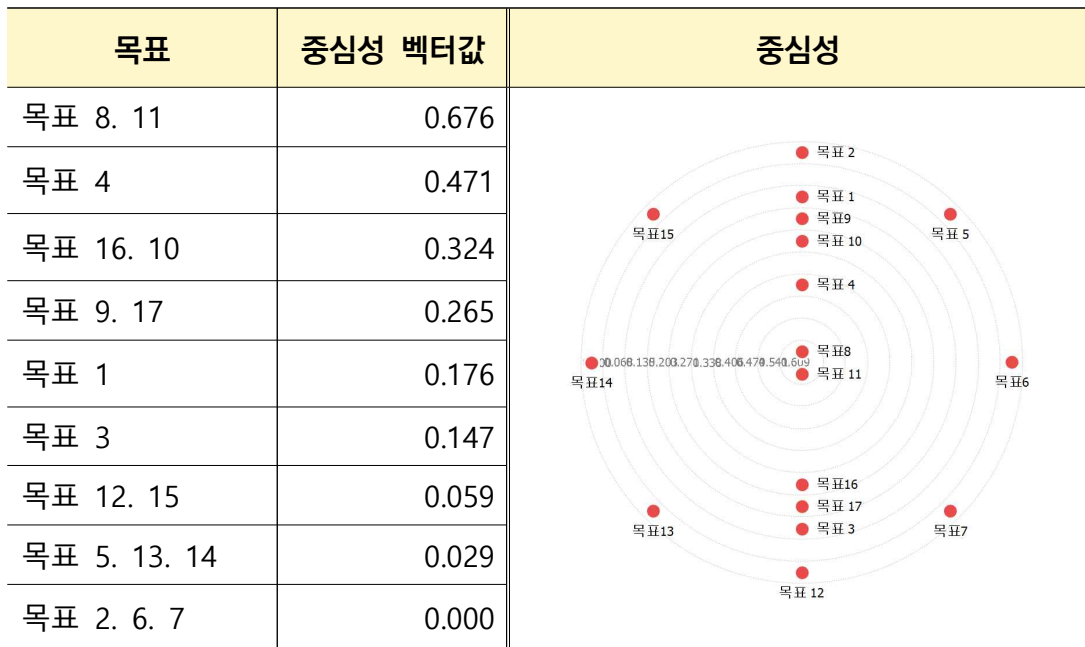
-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사업, 시민문화활성화지원사업, 공연예술연습공간사업은 각각 6개의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트라이보울, 문화예술지원사업,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인천문화유산센터는 SDGs 5개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아트플랫폼, 우리미술관, 통합문화이용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한국근대문학관 사업은 SDGs 목표 4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연결망 분석

- 인천문화재단 34개 주요사업과 SDGs 목표와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고, SDGs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실시함
- 분석요소는 인천문화재단 34개 주요사업과 SDGs 목표간 연결정도 중심성을 분석하였음
 -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목표 8, 목표 11과 가장 강한 연결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재단의 주요사업들이 문화예술활동과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강사 양성 등 문화와
 - 목표 4, 목표 8, 목표 16과 강한 연결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음. 인천문화재단 다수의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문화예술교육, 양질의 일자리 증진, 참여와 포용적 제도구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사업과 목표 10, 목표 17, 목표 9와 중간정도의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음. 권익보호, 노동권 지원 및 계층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성 강화한다는 점에서 목표 10의 불평등 감소와 연계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시민과 당사자들의 자치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목표 17

과 연계됨. 또한 문화예술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아카이브 구축 등 IoT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등 목표 9와 연계되고 있음

- 목표 3. 목표 15. 목표 1은 인천예술인근급생계지원, 인천예술인 e음 카드, 목표 3 통합문화이용권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의료 지원 등), 목표 15는 인천문화유산센터와 평화문화예술교류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
- 목표 5. 목표 13. 목표 14는 세부사업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음. 목표 5 성평등의 경우 공연예술연습공간 사업의 공연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공연 예술인 성평등 워크숍, 여성서사극제작이론 워크숍 등으로 포함되어 있음. 목표 13은 청년문화창작소의 인천청년별학교 기후위기 주제 강의, 워크숍 등에 포함되어 있음. 목표 14는 인천아트플랫폼의 공공예술사업에 공원기능활성화 및 도심 생태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4-7]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 연결중심성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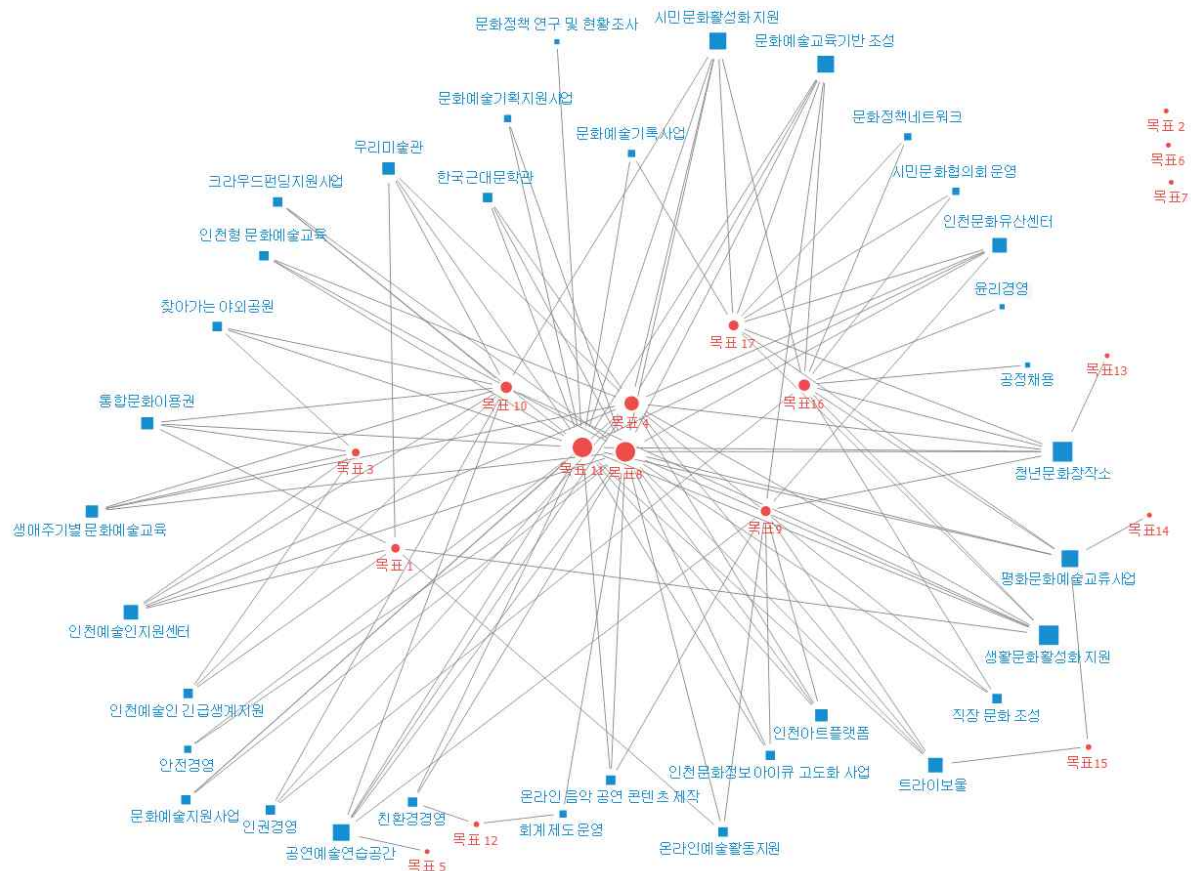
- 주요 사업 중 문화예술기반조성 사업이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인천평화학교 전시관 구성·설치사업, 공연문화예술연습공간 등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남

목표	중심성 벡터값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0.412
청년문화창작소	0.412
공연예술연습공간	0.353
시민문화활성화지원	0.353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0.353
평생문화예술교류사업	0.353
트라이보울	0.294
인천예술인지원센터	0.294
인천문화유산센터	0.294
인천아트플랫폼	0.235
우리미술관	0.235
통합문화이용권	0.23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0.235
문화예술지원사업	0.176
인천예술인 긴급생계지원	0.176
온라인예술활동지원	0.176
찾아가는 야외공연	0.176
클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0.176
온라인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	0.176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0.176
한국근대문학관	0.176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	0.176
인권경영	0.176
친환경경영	0.176
직장 문화 조성	0.176
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0.118
문화정책네트워크	0.118
시민문화협의회 운영	0.118
문화예술기록사업	0.118
안전경영	0.118
회계제도 운영	0.118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조사	0.059
윤리경영	0.059
공정채용	0.059

[표 4-8]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 연결중심성 - 2

○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은 목표11 C(문화예술·도시공간)-목표 8 W(일자리)-목표 4 E (교육)를 중심으로 CWE 넥서스 구조를 형성함

- 인천문화재단 34개 주요사업은 최소 1개 이상의 SDGs와 연계되어 있으며 평균 약 3개의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이는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을 통해 다수의 SDGs 목표를 이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SDGs 목표가 연계되어 SDGs를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림 5-3>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사업을 통해 연계된 SDGs 목표가 상호 연결되면서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을 통해 목표 11, 목표 8, 목표 4가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4-9>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목표간 연결중심성

○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간 응집그룹 분석

-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과 SDGs 목표가 평균 3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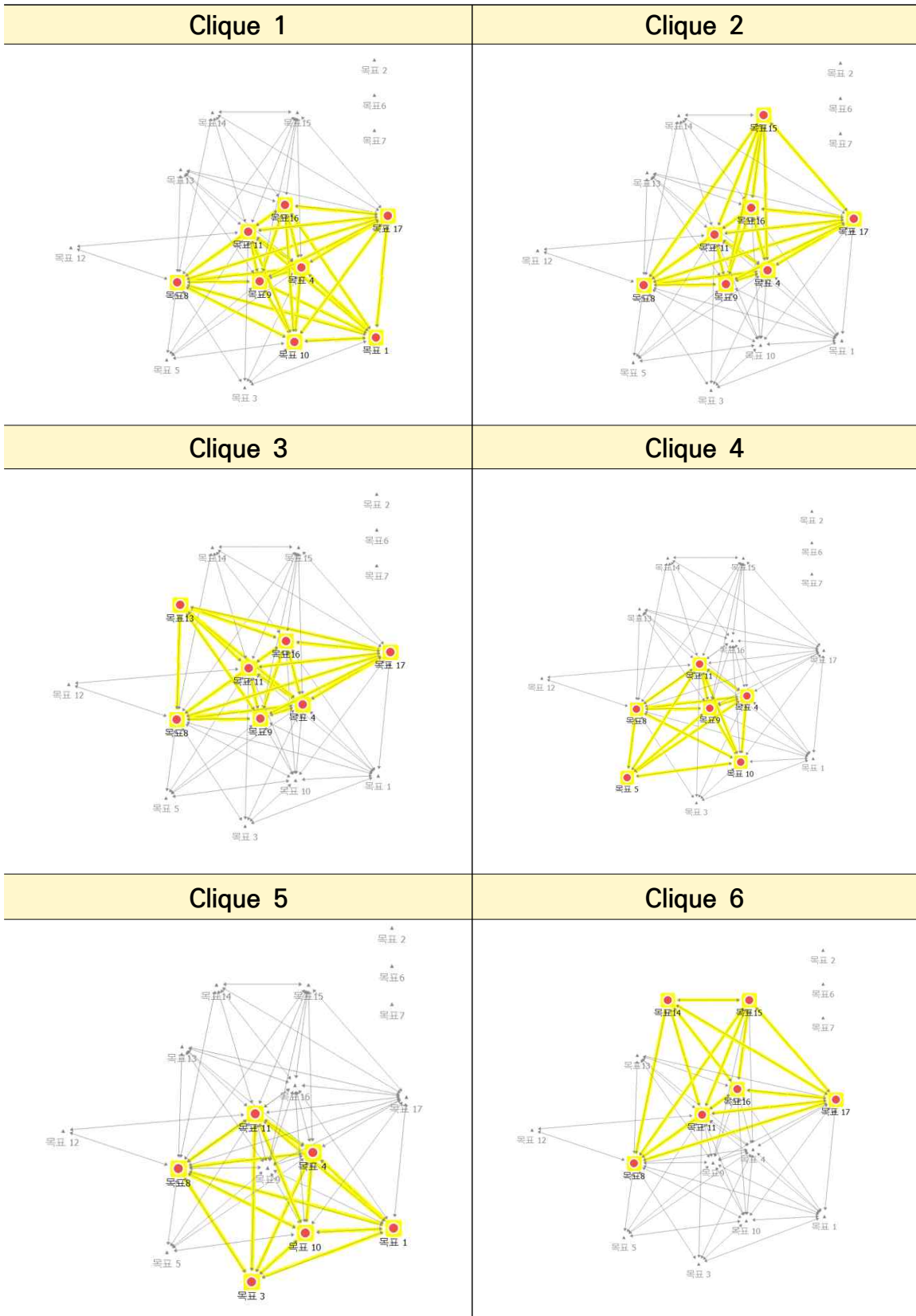
목표간 넥서스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응집분석을 진행함. 응집분석은 clique를 측정하였음. 예를들어 SDGs 17개 목표가 목표1-목표4, 목표1-목표8, 목표5-목표8 목표5-목표11과 같은 연결관계를 가진다면 목표1, 목표4, 목표8, 목표 11은 서로 간 모두 연결된 Clique를 형성하게 됨

- SDGs 목표간 4개 이상 상호 연결된 군집을 추출한 결과 총 6개의 clique가 추출됨

Cliques	크기	SDGs	응집지수 (Cohesion Index)
Cliques 1	8	8. 11. 4. 9. 16. 17. 1. 10	2.571
Cliques 2	7	8. 11. 4. 9. 16. 17. 15	2.188
Cliques 3	7	8. 11. 4. 9. 16. 17. 13	2.258
Cliques 4	6	8. 11. 4. 9. 5. 10	2.129
Cliques 5	6	8. 11. 4. 3. 10. 1	2.276
Cliques 6	6	8. 11. 14. 15. 16. 17	2.357

[표 4-9]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응집 분석

- 응집분석결과,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C(문화예술·도시공간)-E(교육)-W(고용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S(문화격차 완화)-R(참여·제도)-P(파트너십)-I(산업혁신)과 연계되어 넥서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표 4-10] 인천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SDGs 응집 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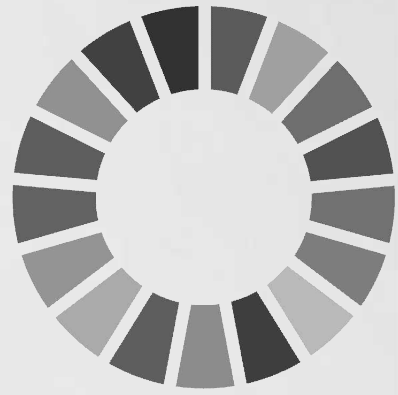
□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와 SDGs 연계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인천문화재단의 8대 전략과제는 SDGs 목표 14개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과제별로 평균 7.5개 이상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와 SDGs와의 연관성이 높은 목표는 목표 11, 목표 4, 목표 8, 목표 16으로 분석됨. 전략과제 중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전략과제가 SDGs 11개 목표와 연계되어 가장 많은 SDGs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와 SDGs 목표간 사회연결망분석(SNA) 분석 결과,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는 C(문화예술·도시공간)-E(교육)-W(고용과 일자리)-R(참여·제도)를 중심으로 CEWR 넥서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C(문화예술·도시공간)-E(교육)-W(고용과 일자리)-R(참여·제도)와 P(파트너십)-I(산업혁신)-S(문화격차 완화) 연계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전략과제와 SDGs 연계성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인천문화재단 8대 전략과제와 SDGs 목표와의 연계성 분석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포용성·안전성·회복력의 향상에 기여하고(목표 1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회 증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포용성·접근성 향상과(목표 4), 문화예술분야의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목표 8),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참여와 제도 개선(목표 16), 문화예술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아카이빙 등 혁신 기술의 도입(목표 9),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접근성 향상(목표 10) 등 불평등 감소 등을 전략 과제로 추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목표 5 성평등 관련 세부 프로그램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략 과제와 주요 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어떻게 내재화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또한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관련 재단의 일부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내재화하는 전략은 부재함
 - 목표 2, 목표 6, 목표 7,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와 전략과제와의 공백이 큼.

-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인천의 지리적·자연적 특성에서 해양(섬) 문화, 갯벌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 인천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에서 관련 목표와 전략 과제와의 접점을 넓혀가기 위한 고민이 요구됨

□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과 SDGs 연계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인천문화재단 34개 주요사업은 1개 이상의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평균 3.5개 이상의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목표 11이 23개의 사업(67.7%)로 가장 많은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목표 8 19개 사업(55.9%), 목표 4 16개 사업(47%)로 연계성이 높게 나타남. 목표 12, 목표 5,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은 연계성인 1-2개로 낮음. 목표 2, 목표 6, 목표 7은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음. 인천문화재단 주요사업 중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과 청년문화창작소사업이 각각 7개의 SDGs와 연계되어 가장 많은 SDGs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과 SDGs 목표간 사회연결망분석(SNA) 분석 결과,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C(문화예술·도시공간)-E(교육)-W(고용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CEW 넥서스 구조를 형성함
 - 응집분석결과,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C(문화예술·도시공간)-E(교육)-W(고용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S(문화격차 완화)-R(참여·제도)-P(파트너십)-I(산업혁신)과 연계되어 넥서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과 SDGs 연계성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예술인의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성평등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재함
 - 따라서, 주요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화예술 창작활동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주요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5

SDGs 달성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컨셉과 실천계획

1. SDGs 기반 문화 정책의 개요
2. 유네스코 문화 | 2030 지표에 따른 분류
3. SDGs 달성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실천계획

1. SDGs 기반 문화 정책의 개요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1982년 멕시코시티 선언 이후 문화의 역할은 강조되었고, 점차 강화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이후 더욱 크게 부각됨
- 유네스코는 2019년 ‘문화|2030 지표’를 제안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제시함¹⁵⁾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 동안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 노력한 결과,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Thematic Indicators for Culture in the 2030 Agenda)에 대한 ‘지표 프레임워크’ 초안 및 관련 기술 문서의 개발이 이뤄졌음
- 유네스코는 이 보고서를 통해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 개념과 접근방식을 제안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 문화와 발전에 관한 폭넓은 접근
 - SDGs에 대한 문화의 주제별 및 다각적인 연계성 제시

15) 문화|2030 지표,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19.

2. 유네스코 문화 | 2030 지표에 따른 분류

- 문화|2030 지표는 “i) 환경과 회복력, ii) 번영과 생활, iii) 지식과 기술, iv) 포용과 참여”라는 네 가지 주제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삼고 있음
 - 각 차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다면적이고 횡단적인 기여를 정확히 담아 낼 수 있도록 여러 SDGs 및 세부목표와 연결돼 있으며, 이를 통해 2030 의제 내 주제별 지표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 이 지표 체계는 문화부문에서 유네스코의 임무와 관련이 있으면서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가 이미 수집되고 있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그림 5-1〉 2030 의제의 주제별 문화지표, 1
 자료 : 유네스코(UNESCO, 2019), 「문화|2030 지표」.

- 따라서 본 연구는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해 제시한 ‘문화 |2030 지표 틀’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문화정책을 재정립하고 분석함
- 또한 용이한 분석을 위해 ‘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삶’,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

와 같은 4가지 주제 영역을 설정함

주제 차원	번호	지표	점검 가능한 요소
환경과 회복력	1	유산에 대한 지출	
	2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3	기후 적응과 회복력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4	문화시설	자영업자의 성별 이사 및 고위직 임원의 성비
	5	열린 문화공간	사용자 및 운영자의 성별(예: 시장 노점)
번영과 삶	6	GDP 내 문화 비중	
	7	문화 고용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8	문화 사업체	자영업자의 성별 이사 및 고위직 임원의 성비
	9	가계 지출	
	10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11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성별 기반 회계
	12	문화 거버넌스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지식과 기술	13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14	문화 지식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15	다중언어 교육	
	16	문화예술교육	성평등 지수
	17	문화 훈련	성평등 지수
포용과 참여	18	사회적 응집력을 위한 문화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19	예술적 치유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20	문화에 대한 접근성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21	문화 참여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22	참여적 과정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표 5-1] 젠더 대응표(젠더 관련 지표 및 점검요소)

출처: 유네스코(UNESCO, 2019), 「문화|2030 지표」.

○ 환경 및 회복력





- 환경 및 회복력 영역은 문화 및 자연 유산과 도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착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함
- 유형 및 무형 유산과 자연 유산을 지속가능발전의 지렛대이자 그 자체로 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안된 지표는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대한 국가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고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문화적으로 민감한 계획에 전통 지식을 포함한다는 증거를 제공함
- 이 영역은 공공 공간과 문화 기반 시설을 포함한 도시 환경의 질에 대한 물리적·공간적 측면을 평가함

○ 번영 및 삶

- 번영 및 삶 영역은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문화 상품,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함
- 이 영역의 7가지 지표는 경제의 주요 측면(GDP, 무역, 고용, 기업, 가계 지출)에 대한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마다 문화 부문 활동을 관리하는 제도적 구조와 프레임워크가 다르고 문화가 포용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지표도 이 영역에 포함됨
- 이 지표는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과 삶의 창출에서 문화의 번성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증거를 제공함

○ 지식 및 기술

- 지식 및 기술 영역은 지역 지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한 지식과 기술을 구축하는 데 있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함
- 특히 지역의 문화적 가치,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고 교육 훈련, 프로세스, 정책 및 자료를 통해 권한 부여를 촉진하는 데 문화가 기여하고,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초·중·고등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 지식을 통합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심층 개발에 중점을 둠

영역	주요내용	유엔 SDGs
환경 및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자연 유산과 도시 환경에 중점 지속가능한 인간 정착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 공공 공간과 문화 기반 시설을 포함한 도시 환경의 질에 대한 물리적·공간적 측면을 평가 	
번영 및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문화 상품,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촉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진하는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과 삶의 창출에서 문화의 번성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증거를 제공 	
지식 및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지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한 지식과 기술을 구축기 위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 문화 교육(고급 교육 포함 유산 보존) 및 창의적 분야의 기술과 역량을 증진 	
포용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고 포용과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 공공 생활에서 지역 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자극하는 문화의 능력을 평가 	

[표 5-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문화에 관한 목표와 세부 목표의 키워드

자료 : UNESCO(2019), culture 2030 indicators

- 이 지표는 문화 교육(고급 교육 포함 유산 보존) 및 창의적 분야의 기술과 역량을 증진함

○ 포용 및 참여

- 포용 및 참여 영역은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고 포용과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함
-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들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예술적, 창조적 자유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둠
- 이 영역은 문화적 관행, 장소, 요소 및 표현이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되는 가치와 기술을 전달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이 지표는 공공 생활에서 지역 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자극하는 문화의 능력을 평가함

3. SDGs 달성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실천계획

- 유네스코 문화|2030 지표에 따라 4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실천계획은 아래와 같음

지식과 기술

1.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2.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 (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
3. SDGs 이행을 위한 문화포럼 공론장 마련



포용과 참여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와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
5. 장애인과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강화
6. 사회적 다양성을 담기 위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번영과 삶

7. 빈곤 문화예술인의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보장
8. 문화예술분야 전문교육인력 처우 개선
9. 공정한 예술산업/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환경과 회복력

10. 학교-지역사회 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증진을 위한 친환경 페스타 개최
12.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개선 추진



이행과 평가

SDGs 이행을 위한 ESG 경영 구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구축

1) 지식과 기술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1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전체

○ 배경 및 필요성

-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토론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속가능발전’이란 보편적 가치를 문화화시켜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우리미술관, 청년창작문화소, 한국근대문학관,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그동안 교육사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접적인 연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기본원칙이 반영되어 진행되어 왔음
- 향후의 교육사업 진행시에는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더 풍부한 문화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SDGs 연계
인천문화재단	직원 학습공동체(CoP) 프로그램	•직원 역량강화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성평등 관점 사업 운영	•경력단절 예술인 대상 배우자, 자녀 상담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아카데미 기초/심화 과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초 :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성폭력예방) 교육 •심화 : 여성서사 담론의 역사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진행	5
인천문화재단		•사업 단위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30% 이상 확보 유지	5
	생활문화동아리 맞춤형 지원	•인천 관내 생활문화동아리 발표·모임 및 교육 지원	11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섬마을 음악동아리 교육 및 축제 개최, 신청단체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진행	4, 10, 16
	찾아가는문화활동	•노인층, 장애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찾아가는 공연, 예술 교육지원 등) •코로나19로 문화예술향유기반이 무너진 소외 계층에 문화예술체험·향유 기회 제공	1, 10, 11
인천아트플랫폼	문화예술교육	•신진 큐레이터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IAP 큐레이터 스쿨> •문화예술전문인력 육성 <인턴십 프로그램> •IAP 시민대상 프로그램	
트라이보울	아트클래스	•아트클럽-대상에 따른 생애주기별 소규모 유료 워크숍 운영 •공연·전시·축제 연계 프로그램-창의적 융복합 프로그램 진행 •공모사업 <트라이보울 초이스-문화예술교육> •공간적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온라인 프로그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미술관	문화나눔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악기/미술치료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미술 및 공예 프로그램 운영	1, 3
	상설교육 프로그램	•동구 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콘	4

기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SDGs 연계
		덴츠 활용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상설 교육 프로그램 진행	
청년문화 창작소	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청년창작자의 경력 시작 워크숍 진행 •창작공간 마련, 초기 활동방법, 프리마켓 및 아트페어 참가 방법, 크라우드 펀딩 조성 방법, 기초세무회계 교육 등 	4, 8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기획자 양성/지원, 레지던스 거주로 창작 활동 탐색 및 실현, 청년기획자들의 네트워킹 파티, 융합예술 창작, 지역탐구 및 협력활동 지원 •인천청년별별학교: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강의, 워크숍, 문화예술기획 통합과정 •인천청년문화살롱&나알람: 청년기획자 기획안을 바탕으로 기존 활동가와 네트워크 형성 •청년동네탐구생활: 청년들의 인천 지역 탐구와 리서치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8, 11, 13, 17
인천문화 예술 교육 지원센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 :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이 가능한 민간 문화예술단체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비 등 지원 •협력사업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진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 또는 기초문화재단 	4, 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아동, 청소년 혹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단체 공모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아이와락-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만3세~5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단체 대상 공모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유아교사, 예술강사, 부모, 조부모 등) 대상 연수 과정 기획 및 운영 	
	노년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노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유 및 교육 협력기관 발굴 운영 	3, 11
	학교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사워크숍 및 학급 실행 프로그램 지원 연계 •예술가의 작업으로 학교 내 일상적인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전환 	4

기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SDGs 연계
	문화예술교육 연구·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 수립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공동기획 및 운영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경인교육대학교 협력) •문화시설·기관 실무자(담당자) 대상 역량강화사업 신규 추진 	4, 8, 11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협의회의 운영 •지역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관련 이슈 발굴 및 논의(토론회, 콜로키움, 집담회 등)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준비 	11, 17
	인천시민문화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특강, 일상예술, 인문사회 등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 	4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전환기인 신중년(50~64세) 대상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특강 운영 •생애전환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협력기관 라운드테이블 등) 	4, 8, 17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및 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리 	4, 8
한국근대문학관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기획 강좌: 〈인문학이 있는 저녁〉 운영, 〈문학이 있는 저녁〉 운영 •공모강좌: 유익한 강의 콘텐츠를 보유한 개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문학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	평화문화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군구별 평화관련 지역자산 현황조사 	16
	평화예술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5도 등 접경지역 평화자산 대상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평화예술라키비움 	16
	평화문화예술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평화문화 발간 •평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16
	평화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아카이브 구축 계획 수립(남북 연관 문화 원형/생태·환경,이주자, 다문화, 소수자 등 	16

○ 실행방안 : 목표별 교육연계 프로그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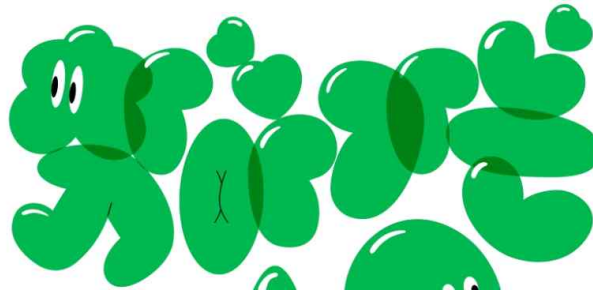
- 치유농업 예술제(SDG 2) : 서울 치유농업 예술제
 -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효과와 생활 예술과의 융합으로 농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농업의 치유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 공모분야

공모 주제	세부 내용
세부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힐링) 경험 · 치유농업 전문가의 하루 · 내 삶과 치유 농업 · 내가 사랑하는 식물 등
공모 분야	<input type="checkbox"/> 그림(생태세밀화 등)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문학: 시, 수필, 표어 <input type="checkbox"/> 푸드아트 <input type="checkbox"/> 스피치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 건강문화프로그램(금연, 약물오남용예방) (SDG 3) :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
 -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예술체험 키트와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꾸러미(키트) 배달 프로그램
 - 국민들이 배달된 예술꾸러미(키트)에 동봉된 안내서에 따라 직접 예술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예술가들이 의료진을 찾아가 함께 예술을 창작하고 결과물을 나누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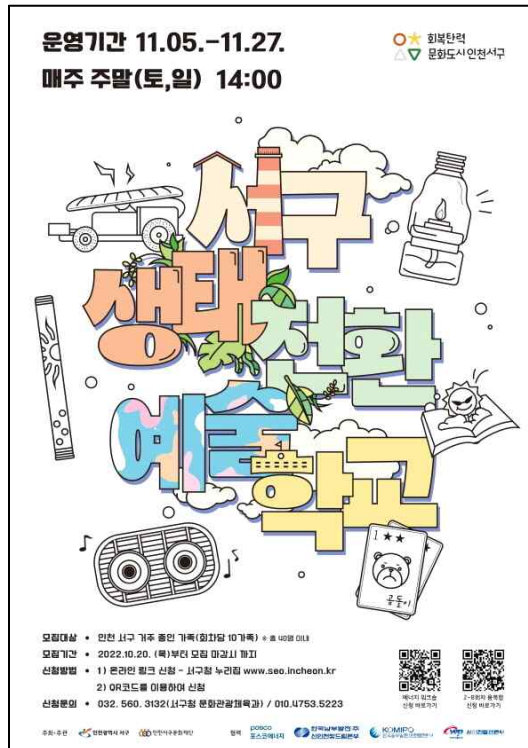
2021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그림 5-2〉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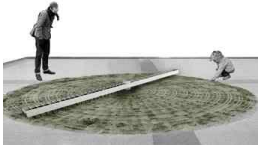

자료: 한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하천 문화·관광 어우러진 시민 휴식공간 조성(SDG 6) : 타오위안 수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 협력
 - 타오위안 하천교육센터(Taoyuan River Education Center)
 - "강"을 주제로 한 대만 최초의 교육 센터임.
 - 라오지에천(Laojie Creek)과 하카스 산헤위안(Hakka Sanheyuan)의 고대 벽돌 집에 인접한 토지와 공간의 역사적 건설을 통해 문화, 역사적 기지 및 하천 탐험 체험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공간과 경험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태로 탈바꿈할 수 있음
 - 인문학사에서 생태교육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원은 점차 교육적 효과를 달성함
 - 야외 해설 공간
 - 라오지에천(Laojie Creek)의 축소 버전. 라오지에천(Laojie Creek)을 실제 지형으로 변형하는 생태 공학적 방법을 제시함
 - 하천생태교육센터
 - 텍스트 설명, 쌍방향 기기 설치 및 미니어처 모델을 통해 방문자는 "Big Flip Cover Plan"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음
 - 라오지에 하천(Laojie Creek)의 스토리 하우스
 - 전통적인 건축 공간을 재건하고 역사적인 사진을 통해 라오지에천(Laojie Creek)과 과거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줌
- 에너지와 예술 결합 체험프로그램(SDG 7) : 인천 서구 생태전환예술학교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환경, 에너지 관련 체험형 예술융합 교육프로그램
 - 발전소 견학, 예술을 결합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등



〈그림 5-3〉 인천 서구 생태전환 예술학교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 역사문화 프로그램(SDG 11), 타오위안 청소년 액션팀
 - 타오위엔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한 활동팀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문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함
 - 이 계획은 옹호 모임, 워크숍, 훈련 캠프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사용하여 청소년 행동 팀이 지역 사회와 부족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산업과 대학을 연결하여 장소 만들기를 구현함
 - 이 계획은 청소년 활동 팀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활동 팀이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점차 성숙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 2019년에는 11개 그룹의 청소년 액션팀을 지도하고 10,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고향, 문화,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살핌을 일깨우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 예술로 기후행동(SDG 13)
 - 박물관의 기후행동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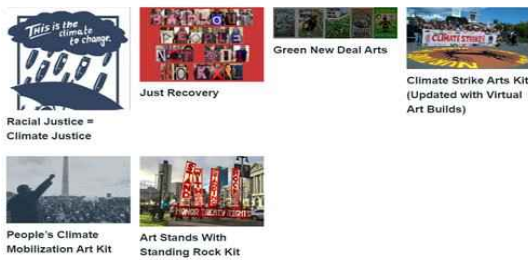
박물관	주요내용
	<p>함께하는 기후 경험(Weathering With Us) 기후행동이 건물의 구조와 경험으로 구체화되는 새로운 종류의 사색적 박물관 공간을 구상</p>
	<p>존재들(Existances)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준다. 아프리카-브라질리언,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의 다양한 우주론에 녹아들 수 있는 마이크로 박물관 네트워크를 구상</p>
	<p>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 코끼리 인형이 살아나서 박물관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마주하도록 촉구하는 이야기를 구상</p>
	<p>열린 창문의 박물관(Museum of Open Windows) 세계 박물관 기반시설이 기존에 추구하던 목적을 변경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행동에 대한 공동체 간 협업과 시민 연구를 지원</p>
	<p>던디교통박물관(Dundee Museum of Transport) 던디교통박물관의 재건은 전통적인 박물관이 지속가능한 교통이라는 현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짐</p>
	<p>이야기:망(Story:Web) 기존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신만의 기후 이야기, 경험, 네트워크를 국제적 범위에서 큐레이팅할 수 있도록 함</p>
	<p>집단적·비통계적 증거들(A Series of Collective, Non-Statistical Evidence) '수집, 전시, 참여'라는 익숙한 박물관 작업을 대화의 장을 상상하는 데 적용. 이렇게 만들어진 대화의 장에서는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p>
	<p>자연적 미래 박물관(Natural Future Museums) 기후행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의 토착지에 박물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p>

[표 5-3] 박물관의 기후행동 프로젝트

출처: 기후행동을 위한 박물관 프로젝트 아르떼365(<https://arte365.kr>)

- 예술을 활용하는 기후변화 운동:

- 기후변화 운동에 예술을 결합하기 시작한 환경단체들도 있음. 국제기후변화운동네트워크 '350'은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함



〈키트로 만든 예술〉



〈가상 예술 만들기 '워치웨이튼 기후 보호 연대'〉

〈그림 5-4〉 예술을 활용하는 기후변화 운동

출처: [이미지출처] 국제기후변화운동네트워크 '350'
아르떼365(<https://arte365.kr>)

- 연안 환경 교육, 습지 보전(SDG 14) : 타오위안 조류 산호초 생태환경교실
 - 가이드 투어
 - 조류 산호초 생태환경교실은 2019년 한 해 동안 50명의 가이드투어, 30명의 해안생태가이드, 4,900명의 방문을 진행함
 - 지역사회 발전 촉진
 - Xinwu 지역의 Yongxing 커뮤니티 개발 협회와 협력하여 조류 산호초 생태환경교실의 운영 및 관리를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진함
 - 활동보조금
 - 환경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타오위안시의 지역 학교와 단체에 2,791명의 참가자를 지원함
 - 가이드 교육
 - 총 38명이 연안생태지도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연안생태지도자 예비직원 자격증을 취득함
- 생태예술을 활용한 환경교육(SDG 15) : 안양예술공원
 - 자연을 보전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예술공원



안양파빌리온. 안양예술공원 대표 건축물

〈그림 5-5〉 자연을 보전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예술공원

자료: 안양문화예술재단

-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 대화(SDG 16) : 부평구문화재단



- 공감이 필요한 순간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이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라는 인문학적 토대와 즉흥연극을 결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행

〈그림 5-6〉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 대화

자료: 부평구문화재단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SDGs 연계 프로그램 수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중 SDGs를 연계 한 프로그램의 수	재단에서 직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2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 (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		16, 17번 목표 그림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것임을 공감하고 이행과제의 실천력 제고에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을 시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상시적 기회 필요
- 기존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 수렴 및 공론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의식과 동참을 촉구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의 소양교육과 함께 실생활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주체적·능동적 토론문화 형성 필요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인천문화포럼’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정책 현안 연구
 - 민·관 협력 문화정책 네트워크로서 예술창작,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문화확산·활용의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인천의 문화현장과 밀착하여 실질적·가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제 선정을 위한 포럼 운영, 시민 대상의 성과 공유회 운영
 - 현장에 밀착되는 실질적 의제 선정을 위한 포럼이라는 점에서 제안 사업 일맥상통하지만 재단의 사업은 대상 주제가 문화예술 부문으로 한정적이고 성과 공유회 수준의 제한적 시민 참여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됨
 - 행정 및 관련 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의 특성을 고려,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을 통해 수렴되는 주요 의제에 대해 ‘인천문화포럼’을 통해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연계 가능
-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사업은 시민들이 인문·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문·예술로 함께하는 열린 학습 플랫폼

- 삶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사회 아카데미’나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함께 운영하는 ‘지역연계 아카데미’, 지역문화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도시 세미나’와 같은 범주별 강좌 운영
- 이 중 ‘인문·사회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관심사 확장을 위한 소양교육이라는 점에서 제안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제 선정에 대한 토론의 기본 정보로서 직접 강의가 아닌 진행자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 제공됨
- ‘문화도시 세미나’의 경우 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토론형 강좌라는 점이 유사한 반면 제안 사업은 토론의 주제를 참여자인 시민이 선정하고 구체화시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토론 장소와 시기(시간) 등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중요요인에 대한 결정권자가 시민에게 있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의식과 참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기성세대 대상의 평생교육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므로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의 한 범주로서 운영하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기존 강좌와의 차별화 필요



〈그림 5-7〉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포럼’ 및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웹홍보물
출처: 인천문화재단(<https://if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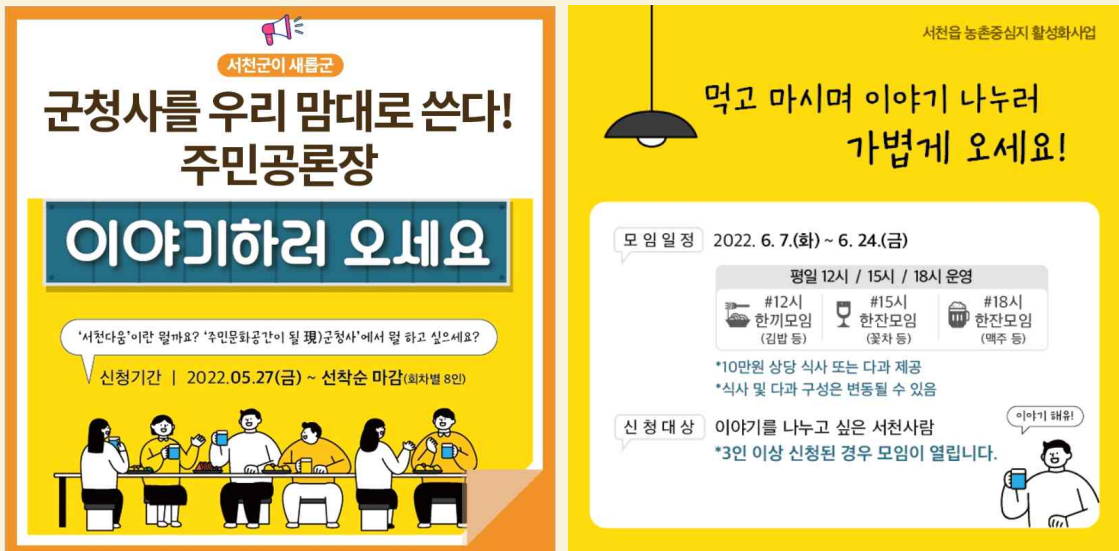
○ 실행방안

- (사업내용)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인천시민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형 평생교육아카데미로서 성인 대상 지속가능발전 관련 소양교육, 생활밀착형 의제 선정과 공론화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 토론 문화 형성 기능

- (운영방식)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으로서 토론 주제와, 날짜 및 시간, 장소를 참가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여 상시적인 토론 문화와 공론화 분위기 형성
 - 개인별 또는 그룹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자가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최소인원 충족 시 토론회 개최 확정
 - 모임 장소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동네방네 아지트’ 활용을 권고하되 참여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 토론회 시간에 따라 다과, 식사, 주류 등을 구분 제공하여 유연한 토론 분위기를 형성하는 한편 참가자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
 - 기존 모임의 활동 지원과는 구분되는데 모임 진행자가 배석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초정보 제공과 토론의 가이드라인 제시, 의견 수렴 역할
- (토론주제) 지속가능발전 관련 범주 내에서 인천문화재단이 방향 제시, 참가 시민이 주제를 구체화하여 논의

전북 서천군, 주민공론장 지원 사업

- 전북 서천군에서는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내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과 고민을 청취할 수 있는 주민공론장을 운영
- 관련 주제(서천살이, 서천군청사 활용 방안, 서천군에서의 문화생활 등)에 대한 다과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3~8명) 신청 시 모임장소와 다과, 진행자 지원
- 주최 측이 정하는 시간, 장소에 따른 공론장이 아니라 참여자 편의에 따라 개설되는 모임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최소 인원(3인)이 충족되면 모임이 성사되며 토론의 주제 역시 주최 측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범위 내에서 참여자가 지정,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차별화



〈그림 5-8〉 서천군 주민공론장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 서천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seocheonpr/222756144837>)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관련 소양교육 및 의제 공론화에 대한 시민 참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론장 참가 신청자 수 • 시민공론장 개최 수

구분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3	SDGs 이행을 위한 문화포럼 공론장 마련		 

□ SDGs와 문화를 상호 연계하는 공론장 마련의 필요성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역할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논의하는 공론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기후변화, 도시의 위기,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환경문제, 경제 문제까지 다루고 있으나 문화예술을 직접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 증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문화의 상호 관계를 진단하고,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문화영역의 역할과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문화 분야 차원에서 문화 분야의 역할을 제고하고 논의할 필요는 더욱 커지고 있음
- 지속불가능성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제고하는 공론장 마련 필요
 - 문화적 측면에서 SDGs 달성을 위해 해야할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지역 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
 - 지속가능성과 문화의 접점을 찾는 공론장 형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동시에 SDGs 달성의 문화 거버넌스 모델 제시

□ 인천문화재단의 문화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현황

-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의 핵심 문화예술 거버넌스인 <인천문화포럼> 운영을 지속하고 인천 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문화정책 토론회를 운영
-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참여 네트워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인천문화포럼 운영

- 예술가, 시민, 문화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분과별 의제발굴 및 논의를 통한 문화정책 공론화, 거버넌스 실현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참여
 - 인천광역시가 직면한 시정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관내 15개 공공기관 특성에 기반하여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
 - 정책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 공동사업 추진
-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참여
 -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광역 시도 문화재단 연합회 참여
 -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문화정책 공동연구 실행, 사업 소통 및 협력 등
- 인천 지역문화재단 협의회 운영
 - 인천 지역 광역문화재단 및 4개 기초문화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공동사업 추진 등

○ 지역문화 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 지역 내 각 조직들이 서로 연결성을 확보하고 기능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
- 지역단위의 문화협력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역문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별, 직능별(행정, 연구, 예술 현장 등), 세대별 다양한 구성을 통한 대표성 확보
-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교류 및 협력방안 마련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사업추진을 통한 창제작자, 기획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하며, 문화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상시 협력 체계 운용

○ 문화정보화를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 문화 정보 영역의 거버넌스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연계를 통한 문화 정보 협력

체계 구축

- 인천 문화정보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연구와 함께 인천의 문화 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의 인천문화재단 기능 및 역할 강화

○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협력망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에 따른 기반 구축 및 가치 확산,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망 구축
-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협의 및 회의, 토론회 등 행사),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뉴스레터 등)
- 인천역사 시민대학 운영을 통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분야 국내외 교류 및 협력

- 국내 문화재단 및 기초 문화재단과의 교류 협력 체계 구축과 해외 유관기관과의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 해외 기관과의 작가교환 프로그램 및 기관교류 프로그램 운영
- 작가교환 프로그램(인/아웃 바운드 작가 지원), 초청 프로그램(국제큐레이터 및 작가 초청), 국제 협력 프로젝트(신규 교류 기관 확장 및 교류 방식 다변화) 등



〈그림 5-9〉 인천문화포럼



〈그림 5-10〉 인천문화예술 40년사 정책토론회

출처 : 인천문화통신 3.0, <http://news.ifac.or.kr/archives/25586>

□ 지역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SDGs 문화 포럼의 운영

- SDGs 달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비정규적인 포럼이 국내에서 개최되었으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공론장 형성에 이르지 못함
 - 주로 개별적인 국내외 포럼에서 주제로 선택해 개념과 실천사례를 논의하고 확산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2022), 아시아문화포럼, 다시,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 전국문화도시협의회(2021), 제2차 문화도시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역화와 문화도시 세션
- 지역 차원의 SDGs 이행을 위한 공론장 형성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
 - 기후위기, 사회적양극화, 청년실업, 인구고령화, 저출생 등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 필요
- SDGs 문화 포럼의 운영 방안
 - 17개 목표별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각 이해관계자별 분야별 논의의 장 마련과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모델 제시
 -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필요를 고려하는 포용 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적 관점의 토론장 형성
 -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문화의 새로운 역할 제시
 - 기존 인천문화포럼의 영역 및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 차원의 SDGs 이행 방안의 제시
 - 예술가, 시민, 문화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문화포럼을 (가칭) SDGs 인천문화포럼으로 전환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단체, 기업, 유관기관 등 지속가능성을 고민하

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 참여를 통한 의제 설정과 문화정책에 관한 공론장을 형성

○ SDGs 문화 포럼을 통한 기대효과

- 문화적 관점의 공론장 형성을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 형성
- SDGs 이행 활동에 관한 인천문화재단 모델을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SDGs 문화포럼 운영	SDGs의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관점의 포럼 개최	포럼 개최 수 (분과 회의 포함)

2) 포용과 참여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와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		 

○ 배경 및 필요성

-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갖지 못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가문화, 사회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됨에 따라, 비대면 활동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화격차(Culture Divide)가 발생
- 문화안전망 강화로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디지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향상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자료의 생산과 관리, 시민 활용,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의 기능을 담은 자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지속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디지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기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천문화유산센터	인천역사자료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시민의 역사정보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향상
	강화관방유적 조사연구	•디지털자료(캐드데이터, 3D 스캔데이터, 3차원 모델링 영상) 확보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예술콘텐츠 제작지원	•공연분야 <아트온에어> :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공연 작품의 온라인 영상 제작 지원

기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시각분야 <인천아트아카이브> : 단순한 인물 중심 편철이 아닌 동시대 예술 흐름을 관통하는 디지털 자료화 예정
	인천형예술인지원	•인천형 예술인 공모 •문화예술계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창작활동 포함 지원 방식 도입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생활문화센터 운영	•디지털역량강화 강화교육사업 강의실 제공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운영	•인천 생활문화정보의 집적화 및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온라인음악공연 콘텐츠제작	•온라인 음악 공연 콘텐츠 25편 제작(개별 영상 조회수 약 1만 이상)
	예술로돌봄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며 마음챙김과 함께 '나'를 찾고 친환경 인쇄로 완성하는 독립출판 ((주)플러스프레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내가 만드는 디지털 아트! (느낌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 시대 문화예술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 실천가이드」 연구('21): 디지털 시대 문화예술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적 가이드 제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설계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운영: 참여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및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함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사업	•IAP 공간 스터디 프로젝트: 전통목선(2016년 영림목제 기증)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통과 현재를 아우르는 디지털 매체를 조성하고 새로운 형식 실험을 시도
	기획공연	•5개 영상 제작 및 온라인 상영
	E스마트 미술관 구축 사업	•360° 3D 가상현실(VR) 전시 아카이브 구축: 미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감상이 가능한 온라인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관람객 참여도 및 미술관 이용률 제고
트라이보울	홍보네트워크	•트라이보울 홍보 활성화: 홍보용 디지털 영상 정보시스템(사이니지) 설치(대여)를 통한 공연 및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 홍보 확대
우리미술관	전시	•비대면 온라인 전시 병행 운영

○ 실행방안

• 첨단기술 문화체험 공간 조성

-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지역의 유휴 공간 활용
- 아날로그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실감콘텐츠로 전통 유산을 흥미롭게 즐기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 수행 가능



01 샌드아트



02 조각사냥꾼



03 도전! 야구왕



04 완성된 청자를 구하라



05 나만의 청자공방



06 물속 청자문양미디어



07 화면속 청자찾기



08 나만의 청자무늬그리기

〈그림 5-11〉 고려청자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전남 강진)

출처: 고려청자박물관(<https://www.celadon.go.kr/>)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지원

-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및 빠른 속도의 인터넷에 대한 지원, 미술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제공

• 교수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며,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해하고 구조화하여 관리하는 능력 배양
-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 및 소통하는 능력 개발

- 업무 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윤리의 필요성 이해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배양
-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습득

데이터 리터러시 & AI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기획과 수집 · 데이터 분석 훈련 · 데이터 시각화 및 활용 · AI 원리 이해 · AI 생태계 및 활용 · AI와 협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성 · 미디어 편향과 비판적 사고 ·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참여 · 디지털 시대의 소통과 협력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사례 및 역할연기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윤리의 이해 ·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 사이버범죄 예방 대응

〈그림 5-12〉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과정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https://www.nhi.go.kr/upload/eduList/05/06-10.pdf>)

-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문화 콘텐츠 제작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제공
 - 공연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 일반도서를 디지털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시각 장애인용 전자책을 만들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내레이션 제공
 - 자원봉사자 활용, 청각 장애인을 위해 영화 속 소리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막으로 입히기

2021 이:음 #1 접근성 과정 예술창작 아카데미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인의 관점에 접근해보고,
시각장애인이 공연을 충분히 느끼고 관람할 수 있도록
무대에서의 움직임, 상황 등을 글로 번역하고 음성으로 해설해보는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감각에 대해 인식하고 배리어프리를 시도해보고 싶은
공연관계자 및 창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림 5-13〉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출처: 이음아카데미(<https://linkareer.com/activity/63179>)

유카탄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 Espacios Educativos 프로그램

- Espacios Educativos 프로그램을 통해 재단은 유카탄의 농촌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전인적 교육을 경험하고 기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간, 독서 촉진, 세대 간 사회적 상호 작용, 문화 간 접근으로 교육의 형식적이고 실용적인 가치 강화.
- 활동의 일환으로,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이 있는 교육 공간은 이러한 서비스가 없는 유카탄의 시골 지역에 건설 및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지역 기부를 통해 설립.
- 보고 기간 동안 12개 커뮤니티의 소녀, 소년 및 청년을 위한 여름 과정의 설계 및 구현이 지역 청년 네트워크와 함께 만들어졌으며, 이들에게 11개의 기술 패키지가 제공되어 인터넷, 기술, 재료 및 용품, 교육 프로모터 교육 접근성이 보장됨.
- 주의 마야 공동체에서 4,773명의 남성과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취업, 괜찮은 직장과 기업이 정신에 필요한 기술, 특히 기술 및 전문 기술을 갖춘 청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목표 4.4를 달성함.



〈그림 5-14〉 유카탄 Espacios Educativos 프로그램

자료 : Yucatan, 2020, Voluntary Sustainabl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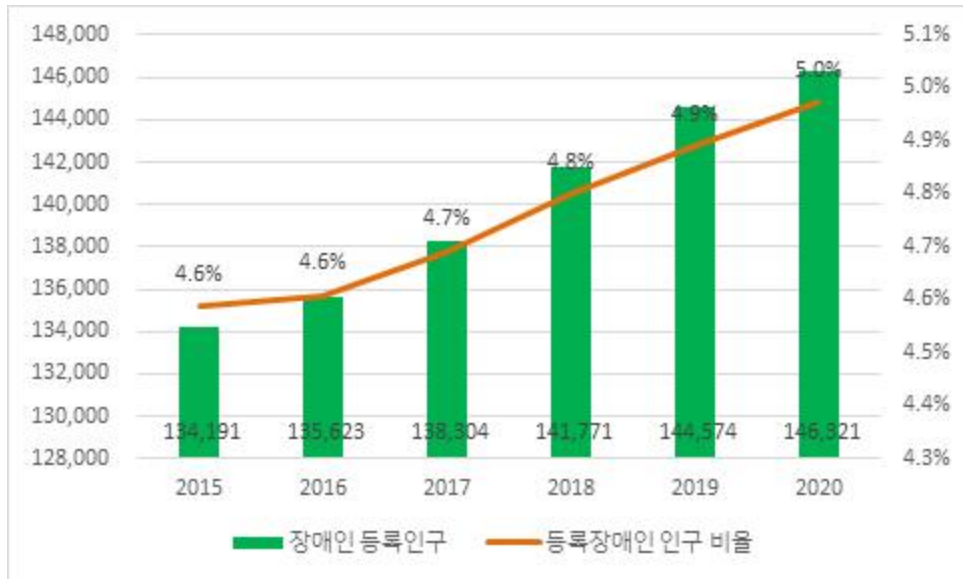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배리어프리 문화 콘텐츠 제작 수	시각·청각 장애인을 배려한 문화 콘텐츠 수	콘텐츠 제작 수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5	장애인과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강화	10 포용적 성장의 동행성 증진	9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촉진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6 평화·정의·포용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약 0.1%씩 증가하고 있음(출처 : 제61회 인천통계연도 2021, 인천광역시)



〈그림 5-15〉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 현황(단위 : 명,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함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시행일: 2023. 1. 28.] 제15조

○ 재단의 현 사업과 연계성

- 명시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지만 사업 내용 중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미흡

○ 실행방안

- 장애유형별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점검 및 개선
 - 무장애 시설 점검(진입로 및 점자블록 보수, 픽토그램과 점자로 안내판 개선 등)



<그림 5-16> 점자 표지 휴지통

출처: 마포중앙도서관

-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¹⁶⁾) 도입
 - 책처럼 엮은 AAC 그림판, 스마트폰을 이용한 AAC앱, 글씨로 입력하고 소리내서 읽어주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활용, 재단 운영 공간 및 전시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 ACC 그림판은 문화재단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AAC BOARD change(<https://aacexchange.net/>)를 통해 공유 가능
 - 이용대상 : 장애, 비장애인, 외국인, 비문해



〈그림 5-17〉 ACC 사례
출처: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장애인복지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촉각 지도(이미지) 및 음성 안내 지원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과 큰 글씨 제공
 - 센서 인식으로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모니터 높낮이 조절
 - 이용대상 :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외국인

16) 말을 하거나 글을 쓰더라도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몸짓과 사진, 그림을 이용해 비장애인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칭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910101503011#c2b>, 경향신문, 2019.10.10. 검색일 : 2022.11.15.)



〈그림 5-18〉 독립기념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출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i815.or.kr/upload/kr/magazine/magazine/52/post-556.html>

- 인천문화재단 점자 안내 책자 발행
 - 글자, 점자, 일러스트, 픽토그램 활용, 인천문화재단 사업 소개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경로 안내 등
 - 대상 : 장애인, 비장애인, 외국인
 - 인천문화재단 운영 시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 제공
 - 자치구별 문화재단과 연계, 자치구별 문화자원 포함 가능



〈그림 5-19〉 광주관광재단 점자 안내 책자(2021.12.21.)

출처: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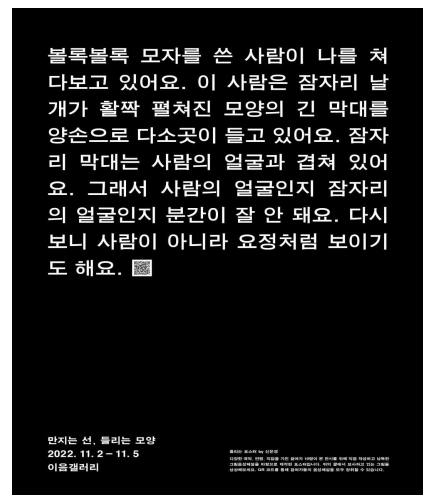
https://www.gjto.or.kr/file_bbs/board.php?bo_table=P3_PressRelease&wr_id=21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0%90%EC%9E%90&sop=and

- 문화계 배리어프리 활동 연계

-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활동을 유치하여 지역 내 관심 유도, 관련 지역 문화예술계와 협업 추진

- 사례

- [전시] 만지는 선, 들리는 모양¹⁷⁾
-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전시… 손끝으로 보는 미술 작품¹⁸⁾
- 공연계 한 칸에 늘어나는 ‘배리어 프리’¹⁹⁾



〈그림 5-20〉 ‘만지는 선, 들리는 모양’ 포스터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7) 출처 :

<http://www.i-eum.or.kr/board/read?boardManagementNo=18&boardNo=318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level=2&menuNo=13>, 검색일 2022.11.16.

18) 출처 : <https://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825145400516744>, 검색일 2022.11.16.

19) 출처 :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65819.html, 검색일 2022.11.16.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시설 방문자 중 장애인 비율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각종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한 장애인 비율	$(\text{장애인 관람객} / \text{전체 관람객}) \times 100$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6	사회적 다양성을 담기 위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문화재단의 다양한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공유되면서 사업 기획부터 추진 및 평가가 연계되는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내재화하면서 인천문화재단의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향을 상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3개 부서에서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약 2,000여 개인과 단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선정 비율은 약 28%임(2022년 사업 기준)
- 지원 사업 내용이 인천문화재단의 지향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업 기획이 수립되어야 함

○ 재단의 현 사업과 연계성

- 인천문화재단의 사업 계획 작성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 효과를 내재화하면서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 기존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가 관심을 갖도록 함
 - 장애인 참여 비중이 높거나 장애인단체와 컨소시엄 등으로 사업 계획 수립시 심사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

○ 실행방안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점검항목 작성 및 공개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점검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업 목표	◎ 본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합니까? - 해당 목표 표기(중복 가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SDG1 빈곤종식 <input type="checkbox"/> SDG2 식량 농업 <input type="checkbox"/> SDG3 건강 웰빙			
	<input type="checkbox"/> SDG4 교육 <input type="checkbox"/> SDG5 성평등 <input type="checkbox"/> SDG6 물			
	<input type="checkbox"/> SDG7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SDG8 양질의 일자리/경제성장 <input type="checkbox"/> SDG9 산업인프라/혁신			
	<input type="checkbox"/> SDG10 불평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SDG11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input type="checkbox"/> SDG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input type="checkbox"/> SDG13 기후변화 <input type="checkbox"/> SDG14 해양생태계 <input type="checkbox"/> SDG15 육상생태계			
	<input type="checkbox"/> SDG16 정의/제도 <input type="checkbox"/> SDG17 글로벌파트너십			
	사업 기획	◎ 시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관련 위원회 회의,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지속 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했습니까?				
◎ 재단 내 타부서, 자치구 문화재단, 민간단체 등과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자원 활용 방안, 사업 효과성 증대 등				
◎ 사업 내용 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안내 또는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가 단계	◎ 사업만족도 조사에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장애여부 등을 구분하도록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업참여자의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장애여부 등에 대한 분리통계가 가능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지원신청서 변경
 - 지원신청서 작성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표기 이유 및 세부설명 포함
 - 특정 목표와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사업 공모 가능
 - (예시) 2023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양식 1. 예술창작 일반지원 (단년) 문학

**2023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술창작 일반지원 문학분야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정보

개인	이름			
단체	단체명			
	대표자		실무자	

2. 장르

장르	<input type="checkbox"/> 소설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수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시조 <input type="checkbox"/> 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3. 작품 내용

작품명				
작품주제 및 목차 등				
지원신청금	00,000,000원	총사업기간	2023. mm. dd. ~ 2023. mm. dd.	
출판예정일	2023. mm. dd. ~ 2023. mm. dd.	출판량	__부	
출판사			확정 <input type="checkbox"/>	미확정 <input type="checkbox"/>

4.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²⁰⁾

- 해당 목표 표기(중복 가능)		
<input type="checkbox"/> SDG1 빈곤종식	<input type="checkbox"/> SDG2 식량 농업	<input type="checkbox"/> SDG3 건강 웰빙
<input type="checkbox"/> SDG4 교육	<input type="checkbox"/> SDG5 성평등	<input type="checkbox"/> SDG6 물
<input type="checkbox"/> SDG7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SDG8 양질의 일자리/경제성장	<input type="checkbox"/> SDG9 산업인프라/혁신
<input type="checkbox"/> SDG10 불평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SDG11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input type="checkbox"/> SDG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input type="checkbox"/> SDG13 기후변화	<input type="checkbox"/> SDG14 해양생태계	<input type="checkbox"/> SDG15 육상생태계
<input type="checkbox"/> SDG16 정의/제도	<input type="checkbox"/> SDG17 글로벌파트너십	

※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 세부 목표로 제시

20) 작품 내용과 연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표시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한 공모사업 건수	전체 공모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사업 신청 개수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공모사업 수 / 전체 공모사업 수) × 100
공모 선정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	전체 공모선정 사업 참여자 중 장애인 참여자 수	(장애인 참여자 수 / 전체 공모사업 참여자 수) × 100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 사업목적
 - 공공적 이슈를 반영한 예술기획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의제화 기능 제고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단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 ※ 여러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 가능, 개인지원 불가
 - 자격요건 : 3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신청대상
 - ※ 관련 사업 수행실적은 공공적 주제·기획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예술 프로젝트를 의미함
 - ※ 신청주체 명의의 사업 기획·수행 실적 기준(단순 사업참여 제외), 신청주체가 단체일 경우 사업 대표기획자의 사업 수행실적도 인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공공예술 사업주제(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
 - 사업기획주제: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포용사회 거버넌스, SDGs를 위한 파트너십
- 선정사업
 - (재)전라남도문화재단 : 바람의 노래 (Song of Wind)
 - (주)유쾌한: 만아츠 만액츠 〈? The Next !〉
 - 히스테리안: 예술로 가르치르기 :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 - 출몰지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

3) 번영과 삶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7	빈곤 문화예술인의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보장		



○ 배경 및 필요성

- 오랜 기간 직업적 특성으로 정부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계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임
- 문화예술인 또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므로, 그들의 경제·사회적 한계상황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의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와 직결됨
 - 그간의 예술인 복지확대에 관한 노력과 요구로 2012년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큰 성과 중 하나일 것임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특히 원로 및 여성예술인 등이 고용상황, 예술분야 참여, 복지 욕구 등에서 비예술인과 비교하여 열악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예술인 복지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범정부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성,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임(문화체육관광부, 2016).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예술인 복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요구를 파악하여 예술인 상담 운영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프로그램,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의료지원을 진행하였고, 예술노동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예술인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인천예술인플랜(2022~2024) 수립 연구를 진행하여 인천 예술인을 위한 관련 정책의 목표와 비전, 과제를 제시
- 현장 밀착형 홍보시스템의 정비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아트레인 성과 확산

을 통해 지역 예술 기부문화를 활성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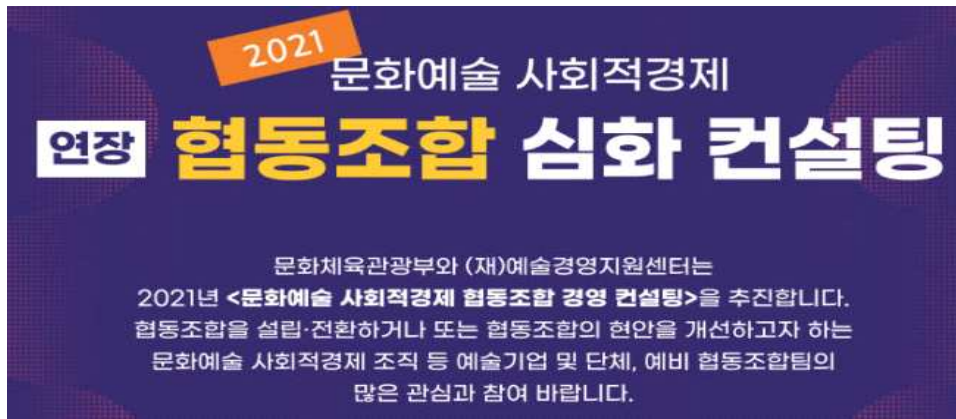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인천 예술인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인천 예술인 종합 지원체계 마련 및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 예술인 고용보험, 복지법, 권리보장법 등 정부 정책 변화를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환경 강화
 - 광역재단 내 예술인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중앙사업과 지역사업의 연계 추진 및 지역 맞춤형 예술인 지원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예술인 의료지원
 - 예술인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협력 체계 검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유관기관 의료지원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원 범위 및 방식 보완 검토
 -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SDGs 목표 01.
 - 예술로돌봄  SDGs 목표 01.
 - 코로나19로 활동이 단절된 예술인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제공
 - 문화예술 취약계층에게 예술체험 및 향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빈부격차 축소
- ⇒ 경력단계별, 대상별 예술인 지원사업을 다양화·정교화하여 타 지역으로의 예술인 이탈 방지 필요

○ 실행방안

- 예술인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연계
 - 프리랜서 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을 기준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 있음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국민연금, 고용보험료)
 - 4대 보험 중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 대상으로 함. 표

- 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0~50%를 지원함
 - 계약 및 저작권, 노무 관련 교육 이수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각각 3개월, 최대 6개월 보험료를 지원함
 - 예술인 산재보험
 -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돕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본인 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 중증질환부터 우선 지원하며, 의료심의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질환상태·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함.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됨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구두계약이나 무계약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함.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음
- 인천 문화예술 사회적금융 운영방안 마련
 - 기존 금융시스템을 통한 투자, 보증, 융자 등의 자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지속적 활동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금융 운영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투융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디지털컨텐츠진흥원의 공모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금 이외에도 창투사를 통한 문화컨텐츠 모태펀드도 운영
 - 인천광역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예술인 자녀 복지 지원
 - 예술인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한 자녀 보육 지원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인천지역 유자녀 예술인을 대상으로 시간 연장 보육사업 시 운영비 지원

- 인천예술인 사회적 경제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육성 지원을 통한 예술인 자생력 강화
 - 예술 사회적 기업은 예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 및 조직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업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경제조직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술경영 아카데미 운영 연계
 - 교육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기획(시각/공연예술기획), 홍보마케팅, 예술기술(블록체인, 인공지능, IoT, 로봇예술, 빅데이터, 3D프린팅, 뉴미디어(AR/VR)) 등




[그림 5-21]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https://www.gokams.or.kr/>)

- 향토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조직의 사회적 기업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립
-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사회적 기업 참여 유도
- 전문가 확보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간접지원 확대
- 박물관, 체험관 등의 위탁 운영을 통해 공간 제공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 증명을 발급한 인천 거주 예술인 수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8	문화예술분야 전문교육인력 처우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예술강사지원사업 총괄 주체와 인력운영 주체, 근로계약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예술강사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예술강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예술강사 노동조건은 열악함. 정부는 이들의 시간당 강사료를 2021년 4만 3천원으로 책정함. 예술강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수준임. 예술강사의 노동시간은 강의시간(시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고정돼 있음.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함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생활문화지원> - 생활문화동아리 맞춤형 지원, 생활문화매개자 운영
-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시민문화대학>,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등 지역 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매개자 교육과정>을 운영함
 - 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며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가-학교 연계, 예술가/예술강사와 협업하는 교사 역할 확대 등 학교문화예술 운영모델도 안정적으로 운영함
-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 운영한 ‘인천시 공직자 문화예술 역량 강화 사업’이 있음

- 인천시 공직자 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 2018년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 협약을 통해 2019~2020년 추진함.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 인천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함. 교육 강사를 예술인으로 초빙하여 예술인의 일자리가 창출효과를 기대함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은 미흡하였음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예술인(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술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예술인(단체)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예술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함

○ 실행방안

- (예술강사 근로여건 개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한 예술강사 지원 근거 마련, 고용주체 일원화 추진, 처우개선 등
 - 「인천문화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규칙」 확인 필요
- 예술강사의 근로시간 기준을 실질적인 업무에 근거해 조정하고,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해 10개월 기준 계약기간을 바꿀 필요가 있음.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이 곧 처우개선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
- 전임강사 제도 도입
 - 문화예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전임강사 제도를 활용해 강사 스스로 임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전임강사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발굴
 -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 핵심 사업 운영을 위한 자원 조사 및 연구
 - 지역 예술 강사 네트워크 및 활동 분야별 예술강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전임강사 모집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핵심과제로 협력망 구축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학습자와 지역 기관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총괄 기획자 역할을 담당할 전임강사를 모집함
- 매년 성남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과제에 따라 전임강사 역할을 설정하여 예술강사들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남꿈꾸는예술터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장비 구축 기획, 예술강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전임강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함

역할	내용
조사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학습자 및 학습 기관에 대한 조사와 연구 •학습자 관련 프로그램 사례 조사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학습자 기관과의 협력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육 강사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예술강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활동과의 협력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 기관과의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시범프로그램 및 확장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 •교육 성과 및 가치 공유

- 전임강사 기본 자격 요건

조건	응시자격
예술(교육) 관련학과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문화예술교육 경력 2,000시수 이상 •문화예술분야 현업 및 예술활동 8년 이상 예술가 (단, 문화예술교육 경력 720시수 이상)
비예술 관련학과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문화예술교육 경력 4,200시수 이상

출처: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https://www.snarte.or.k>)

- 방과 후 예술강사 처우 개선

- 문화예술강사 일자리 지원 정책 내실화 위해 평생교육사업에 문화예술분야 지원이 필요함
-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으로 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방과후강사들의 법적 지위 보장 등 처우 개선 필요
- 예술강사·방과후강사·돌봄전담사 등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해, 이들이 수행하는 교육·돌봄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문화예술교육 전임강사 강사료	전문인력임을 감안하여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매년 변경)	주 24시간, 4주 96시간 근무 기준 예시: 5,102,238원 ÷ 96시간 ≒ 53,150원/시간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9	공정한 예술산업/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과 관련 산업이 가지는 특수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다른 분야의 독과점은 소비자 피해, 경제력 집중 등 물리적 피해를 가져오지만, 문화예술의 독과점은 문화의 핵심인 다양성과 창조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함(정광렬, 2013:107)
- 따라서 시장지배적 독과점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창의성과 다양성, 자율성 등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향상을 위해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적발 시 합당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예술인이 부당한 대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예술인 권리보장법(2021.9.24.) 제정에 따른 예술인 권익보호 체계 구축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신규 구축을 통해 지원센터 사업 소개, 프로그램 신청, 예술인 고용보험안내 등 상시 지원시스템 마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협단체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인구 확대 및 관리 노력 강화
 - 불공정행위 관련 표준대응매뉴얼 구축 검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상시 안내·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원활한 사회안전망 진입 도모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술인의 창작활동 재진입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내 자격 기준 별도 마련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공정 생태계 창작환경 조성 지원 등 종합적인 예술인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의 기반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예술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초과정 중 ‘예술인 고용보험법 적용 실무’ 에서 고용보험법 적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 강의 진행
-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예술생태계 불공정행위 및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예술인의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의 특별 상담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함
 - 인천 지역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지역 창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체계 구축
 - 심리상담 협력 범위 확대를 통해 비폭력 대화, 여성 창작자 집단 워크숍 등의 일상적 권익보호 지원프로그램 마련 필요
- 문화예술계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금지 등 안내 철저
 -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금지를 보다 철저하게 안내
 -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관련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신고·조사절차 매뉴얼 수립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모
 -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일대일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여 공정한 매칭 진행

○ 실행방안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향상
 - 예술인 신고·상담 지원: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 지역 예술계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전문 신고·상담 지원, 예술활동증명 관련 상담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관련 미비 사항 도출, 예술인 지위·권리 침해 방지 제도 마련
 -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고용보험 상담 지원: 예술활동증명 관련 상담 지원,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상담 지원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신문고>

- 예술활동 시 발생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분야별 법률자문단, 상담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예술활동 시 발생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분야별 법률자문단, 상담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 5-22> 예술인 신문고

출처: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http://artbodum.or.kr/>)

- 공정 단가표 마련
 - 기존 단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가격책정에 대한 근거 확인
 -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정한 단가 기준 책정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등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적용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예술산업/콘텐츠산업의 창·제작자 피해 신고 및 분쟁조정 현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 부당한 계약 경험률 표준계약서 활용률	예술인 실태 조사

4) 환경과 회복력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10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연계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 기후변화와 대응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 배경 및 필요성

- 자연(생태) 자원은 문화유산처럼 원형보존이 아닌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작용, 활동을 통해 유지·보전되며 훼손 이후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님
- 현세대의 책임의식과 행동은 물론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도 조기에 자연(생태) 자원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식적 행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자연(생태)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 주도의 모니터링 체계로 연계, 자연(생태) 자원의 동적보전 체계 확립 가능
- 자원의 특성상 ‘살아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모델(운영체계, 프로그램 등) 개발 필요
-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운영과정이 안정적(참여자 모집, 교육시간 확보 등)일 뿐 아니라 초-중-고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용이하여 생애주기 상 어느 교육대상보다 효과가 뛰어남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우리미술관’ 사업을 통해 지역 친화형 전시 및 문화예술교육 일상화 의도
 -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작은미술관을 지향하는 우리미술관은 전시 및 인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 인천을 소재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 관내 초등학교를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지역사회 기반 환경교육 실천계획과 연계 가능성이 있음
 - 인천의 환경(자연, 생태)을 주제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정 상 지역사회 구성원 간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구축 가능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실현

- 이 중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주말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예술 소양 함양, 여가문화 조성을 의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제안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제안 사업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
-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교육내용*의 경우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주말 이용 동아리 활동, 방학 중 캠프의 형태로 ‘꿈다락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운영 가능
 - * 현장조사관찰, 계절/시간대의 영향을 받는 식·생물 등의 생육 활동 등
-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민유형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초등가족을 대상으로 한 환경 주제 문화강좌 등이 진행됨
 -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심각성을 인식하기, 고래와 환경(이산화탄소 연계)과의 관계 알아보기, 폐병으로 조명 만들기 활동 등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
 - 교육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며 환경을 주제로 한 강좌라는 점에서 제안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단발성 교육이라는 차이와 한계가 있음
 - ‘문화강좌’를 통해 시민 대상의 소양교육과 심화교육을 계획해 인천의 자연(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제고,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그림 5-23〉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전시포스터 및 활동사진
출처: 인천문화재단(<https://ifac.or.kr/>)

○ 실행방안

- 통합교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색기회가 주어지는 중학교, 고교학점에 따라 진로·적성별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등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제별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데 문화·예술에 기반 한 환경교육으로서 인천의 중요 자연(생태) 자원인 연안습지(갯벌)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음악, 미술, 체육 활동 개발
-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의 4개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각 활동을 수단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환경교육을 지향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식 결정
 - (환경) 갯벌의 생태적 가치, (문화) 갯벌의 자원을 소재로 한 미술·체육·음악·문학 활동, (경제) 갯벌을 중심으로 한 관광 및 어업행위 등의 지역경제, (사회)갯벌과 관련한 어업·공동체 문화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능
 - 부안군의 사례를 참고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관내 중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연안습지(갯벌)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환경 구축방안을 모색

전북 부안군,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양잠농업 교육프로그램

- 전북 부안군에서는 관내 중학교와 연계하여 자유학년제 '주제활동'을 통한 양잠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반한 것으로서 환경, 문화, 사회, 경제 영역으로 구성, 참고사진은 그 중 문화 영역의 봉잎 갈란드 만들기 미술 활동임
- 팬데믹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전문강사(마을주민 등)가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지역 업체가 체험키트를 준비, 지원기관(국립농업과학원 등)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공하고 해당 중학교 교사가 지원내용을 토대로 교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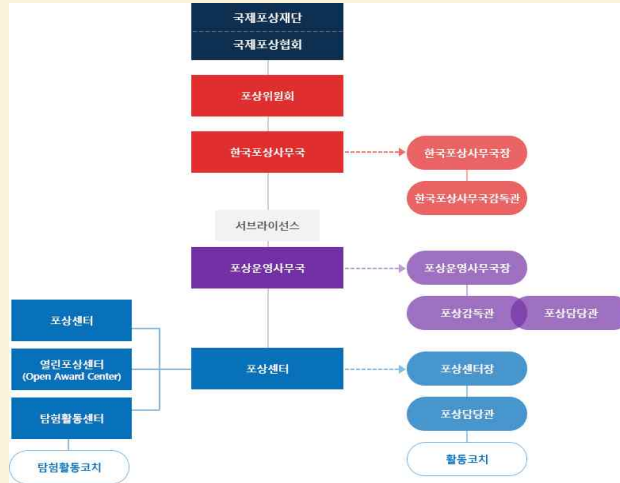
〈그림 5-24〉 전북 부안군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양잠농업 교육프로그램 중 미술활동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기회요인이 있으나 시범 도입단계일 뿐 아니라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으로서 고교생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자의 동기 부여, 초-중-고교 연계과정으로 중장기적 이행 여건 마련
 - 재단에서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기관 등으로 등록, 지역 청소년이 중장기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체계 마련
-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교육활동 정례화를 위해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관계 기관·단체, 사업체 및 학교 등 구성원 간의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형성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 체계 마련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 공인 자기 성장 프로그램임
- 만14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탐험활동 등의 영역에서 일정 목표치 달성 시 포상이 주어지는데 국제포상재단 등의 인증서 발급 및 시상, 국제행사 참가자격 제공



〈그림 5-2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체계 및 역할

자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https://www.youth.go.kr/m/main/main.mo)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교육과정 기반 환경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교육과정-지역사회 연계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및 시민 참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육과정 개설 학교 수 • 총 교육시간(참여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총합) •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사 및 시민강사 수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11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증진을 위한 친환경 페스타 개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3 기후변화와 대응

○ 배경 및 필요성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과 기업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이 절실한 반면 실제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지지, 참여 수준은 관련 지표에 기준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10여 년 간(2012~2020년)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분담률 지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상 중장기 목표를 크게 하회하며 환경영향 증대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역시 동 기간 중 우상향하며 증가하는 추세로서 기본계획 상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 동 기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지표 역시 기준 목표치와의 격차가 벌어지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도 중장기 목표와의 격차가 상당한 등 전반적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표의 이행수준이 매우 저조한 바, 범시민적 이해 제고와 관심 촉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과 여건 마련이 절실함
- 탄소중립과 관련한 시민 개인을 비롯한 가정과 주거 공동체, 학교 및 직장 공동체 등으로 확산되는 환경 친화적 건강한 문화 형성을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필요
 - 인천의 중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관내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관련 이벤트를 관통하고 방향 제시하는 등 총괄적·미래지향적 역할 자처
- 가칭 친환경 페스타는 친환경 도시로서 인천의 지역브랜딩을 견고히 해나가도록 정체성을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해가는 계기와 기회로 활용
 - 가령 이탈리아의 경제 수도,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로서 매년, 시즌별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전 세계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위한 교류의 장(場)으로서 전 세계 패션 사업체 및 관계자 간 네트워크의 중추 결절 역할

- 인천광역시 친환경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 사업체 등과 공유하는 행사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 도시 간 교류의 장(場)으로서 관련 문화와 산업을 선도
- 기후와 환경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이 직시하고 체감할 수 있으며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확산하는 계기 마련
 - 친환경 건축, 제로웨이스트, 비건 문화 등 시민에게 관련 선례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의지 제고 및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은 인천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발표 활동을 위한 비용 및 모임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축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인천 생활문화축제’로서 시민 간, 공동체 간 교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수의 문화예술동아리가 참여
 - 가령 ‘인천지구 재나공’은 환경을 생각하는 동아리로서 환경아트 관련 재능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 기후변화 등 인천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환경 운동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
 - 환경 친화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방법론을 고민하는 생활문화동아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역을 별도로 기획,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친환경 페스타로서 기획 및 운영 등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의도



〈그림 5-26〉 ‘인천생활문화축제’ 포스터 및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중 ‘재나공’ 홍보 카드뉴스

출처: 인천문화재단(<https://ifac.or.kr/>)

○ 실행방안

- (제로웨이스트 축제) 국내·외에서 주최하는 제로웨이스트 관련 축제의 전국·세계대회의 성격으로서 국가별, 지역별 제로웨이스트 문화와 사례를 공유하는 문화교류의 장
 - 국내 제로웨이스트 지향 플리마켓 기획자·관계자 간 네트워크 및 성과 공유(대구 달성 ‘수창청춘맨숀’, 전북 완주 ‘얼만큼만나장’, 경남 창원 ‘당연한 장터’ 등)
 - 지역축제를 비롯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선도하는 행사로서 다회용기 사용 및 반납 서비스를 비롯하여 현수막의 업사이클링 등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실제 구현, 모델화
 - 행사의 운영과정 상 제로웨이스트 실천(인쇄물 제작 최소화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은 물론 제로웨이스트 관련 공연 및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 촉구, 인식 개선 및 참여 지지
 - ※ 기후위기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 공연·전시, 인천 비건지도(웹) 제작 및 웹 지도 연동 업데이트, 다회용기(밀랍포장지 등) 제작 체험, 의류 교환 행사, 소분 및 리필 체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강연 및 체험 등
- (비건 축제) 탄소 저감을 위한 비건 문화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비건’을 일종의 콘텐츠로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와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전시 및 홍보, 체험하는 기회
 - 비건 지향 레시피와 식재료 및 요리 소개를 비롯하여 비건 화장품 및 의료, 비건 생활을 위한 비건 마켓, 관련 강연 및 공연, 상영회, 전시

- 문화다양성 관점의 행사로서 미국, 몽골, 영국 및 유럽, 대만 등 외국과 연계한 월드페스티벌로서 기획, 비건 지향 식사에 대한 국가별 식(食)문화 소개와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
- (정책설명회 및 시민공론장) 탄소중립 실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대시민 설명회를 비롯하여 시민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공론장 운영
- (친환경 홍보관)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현시키는 ‘의(미세플라스틱 제로 섬유 등)’, ‘식(비건 식재료 등)’, ‘주(친환경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친환경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전시, 체험을 통해 소비 행동의 변화 지지
 - ※ 친환경 건축물이란 건물을 지어서 활용 및 철거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 건축물인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면서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저감토록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
- 친환경 박람회의 성격으로서 탄소 저감과 관련한 국내·외 친환경·업사이클 사업체 및 상품·서비스 전시 및 체험 기회를 통해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
- 과포장 지양 패키징 또는 無포장 사례를 전시·홍보하는 착한 포장디자인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체의 참여와 방법론 제시
- 환경 친화적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비롯하여 설계 및 디자인 사례, 건축 기술 및 자재 등에 대한 홍보 기회를 통해 관련 부문 소비 행동의 변화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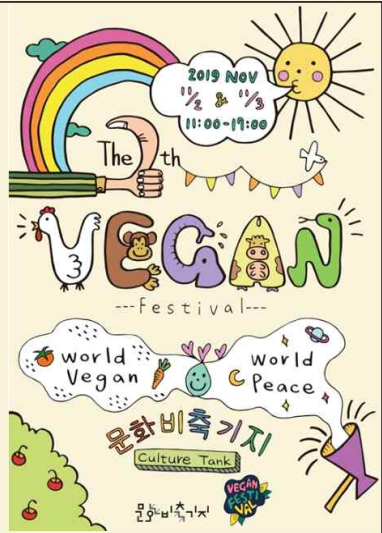
환경 주제의 지자체별 축제와 콘텐츠, 친환경 건축물 사례

- (서울시, 제로슈 제로웨이스트 마켓)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및 재활용 패션제품 등을 판매하는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비건 베이커리, 일일 강좌, 의류교환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 소개
- (서울시, 비건 페스티벌) 비건문화 확산을 통해 환경보호, 동물권 존중, 소수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목적에 따라 비영리 운영
- (수원시, 수원연극축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며 자연친화적인 예술축제 개최. 축제의 먹을거리는 다회용기로 제공, 채식 메뉴를 필수적으로 준비해 탄소 저감 노력에 동참
- (전주시, 불모지장)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의미의 ‘불모지장’에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비건,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지향하며 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는 방안을 실천하며 비건식과 구제 물품, 친환경 채소 및 모종 등의 물건 판매

자료: 이치저널(<https://www.eachj.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7>)



서울시, '제로쇼 제로웨이스트 마켓' 웹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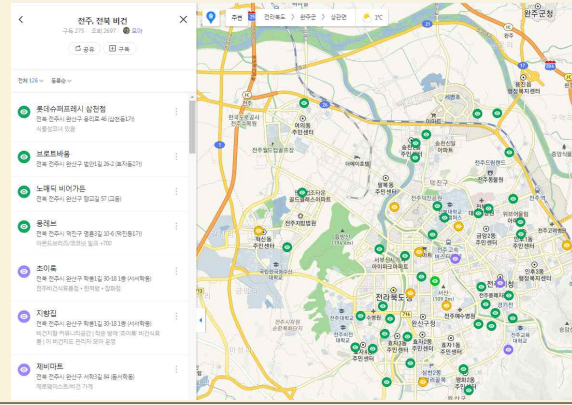
서울시, 비건 페스티벌 '문화비축기지' 웹홍보물



수원시, 수원연극축제 '숲속의 파티' 웹홍보물



전주시, '볼모지장'의 재사용 현수막과 다화용기 사용



전주시, 전주전북 비건 지도(카카오맵)와 서울 환경운동연합, '지구를 구하자' 중 '지구환경을 살리는 착한 디자인전'



친환경 건축물 사례(좌)_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의 녹색 커튼(외벽을 따라 옥상까지 이어진 계단식 옥상정원)
친환경 건축물 사례(우)_멜버른 시청(건물 정면 벽 전체에 재생 목재로 만든 차양을 설치해 여름철 햇
빛 차단, 목재 차양은 태양 전지를 사용해 햇빛의 양에 따라 자동 개폐)

〈그림 5-27〉 환경 주제 지자체별 축제와 콘텐츠, 친환경 건축물 사례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13>)
- 서울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culturetank/221690819423>)
- 전주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jeonju_city/222736754022)
- 플라스틱 프리 플랫폼(<https://pfree.me/>)
- 월드투데이(<https://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291>)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친환경 페스타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에 대한 시민 참여, 국내·외 단체 간 교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동아리 참여 수 • 참여 국가 및 지자체와 관련 단체 수 • 전시·공연 등 관람객 및 프로그램 체험객 수

	실천계획	주요 SDG	연계 SDG
12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개선 추진	 13 기후변화와 대응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모델 제시
- 녹색 경영을 통한 환경 보호 실천 및 에너지 절약 적극 수행
- 재단 운영 및 위탁 시설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그린 리모델링 등 모델 제시

○ 재단의 현 사업과의 연계성

-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총 7개소의 근대건축물 및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건축물은 모두 공공건축물에 해당
 - 현재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고, 건축물, 난방 및 급탕설비, 냉방 및 공조설비, 수배전 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등을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5년 마다 점검하도록 함
-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공공 500㎡ 이상에 대해 (5등급), 2030년까지 3등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2050년에는 전 건물의 1등급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공공 임대주택 22.5만 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 여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
- 현재 인천문화재단은 에너지 사용에 관해서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단순히 사용량 관리만을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제로에너지건축물로의 단계별 변화가 필요함

시설/사업명		운영 현황	
	인천 아트플랫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문화시설)
		소재지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해안동)
		시설성격	1종 미술관(등록연월일 2012.7.26)
	트라이보울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연장
		소재지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송도동)
		시설성격	공연장(공연법),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한국 근대문학관	용도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재지	중구 신포로15번길 76(해안동)
		시설성격	전시관, 수장고, 교육시설, 사무실
	동구 우리미술관	용도	전시관, 교육관
		소재지	동구 화도진로186번길 10(만석동)
		시설성격	전시장, 레지던스/스튜디오, 교육공간
	인천 공연예술 연습공간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연습실)
		소재지	남구 경인로222(도화동)
		시설성격	공연연습실, 교육공간, 사무실 등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용도	인천아트플랫폼 내 조성
		소재지	인천아트플랫폼 A동 1~2층, H동 1~2층
		시설성격	연습실, 커뮤니티공간, 전시실 등
	인천 청년문화 창작소	용도	강당(구 인천여고 건물)
		소재지	중구 참외전로100(전동)
		시설성격	창작공간, 커뮤니티공간, 사무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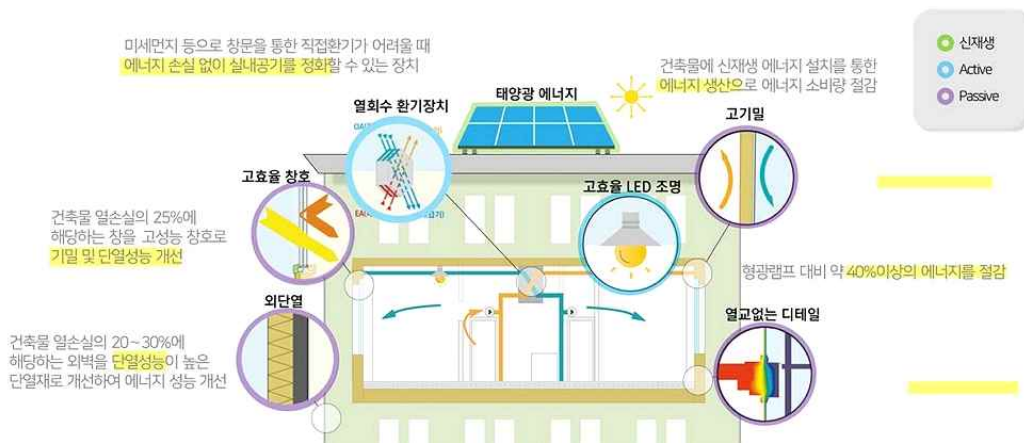
[표 5-4] 인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위탁 시설

○ 실행방안

- 그린 리모델링의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모델 발굴
 -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

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운영 및 위탁 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절약) 및 에너지 전환의 방안 강구
- 문화예술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컨설팅 시행 및 에너지효율화 방안 마련



<그림 5-28> 그린 리모델링의 예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기후위기대응과 문화시설을 접목해 시민 인식 제고
 -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에 기여
 - 녹색건축에 대한 체감 및 홍보 확대를 통한 근대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모델 사례 제시
- 시설 개선 사업 예산 확보에 따른 중장기 방안 마련 필요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연간 2,276억 원(총사업비 3,400억 원 규모, 2020~22년 사업비 동일 규모)을 지원했고, 이후 사업 지원 규모 확인 필요
- 근대문화유산의 제로에너지건축물화 사례는 국내 거의 없으나, 향후 모델 사례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그린리모델링 및 건축물 생애관리 관련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 등과 연계함으로

써 과업 성과 달성의 효율성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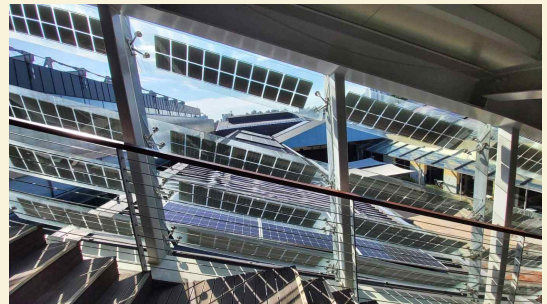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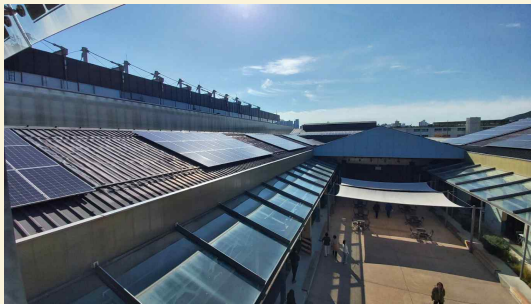
- 그린 리모델링 적용이 현재 주로 오래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으나, 근대문화유산인 공공건축물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적용시 면밀한 검토 필요

○ 성과지표

지표명	설명	산출방안
녹색건축물 인증 수	재단 우수탁 관리 건물을 중심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획득	녹색건축물 인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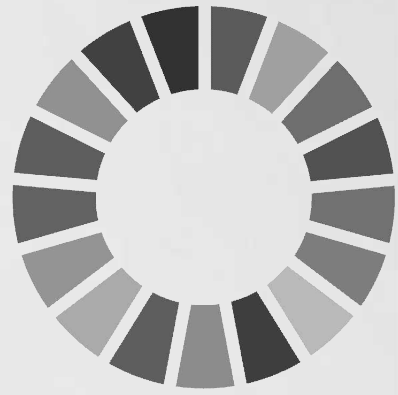
부산 F1963

- 부산의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동안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으로 산업단지 재생의 모델
- 시설 곳곳에 에너지전환과 자원순환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적 요소를 가미하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점, 도서관, 전시, 공연, 카페, 식당 등 복합 문화공간에서 모든 세대가 즐기는 프로그램 운영
- 지성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공존의 장으로 미술 (전시) + 공연 (연극, 클래식, 대중음악) + 인문 (책과 도서관) + 아카데미
- 친환경과 슬로우라이프를 위한 도심 속의 숲으로 야외 대나무숲과 키친가든 등 그린존을 구성



〈그림 5-29〉 F1963의 전경과 내부모습

자료: 연구진 및 F1963 홈페이지



6

이행과 평가

1. SDGs 이행을 위한 ESG 경영 구현
2. SDGs 이행을 인천문화재단의 실천행동
3. 문화 관점의 지속가능성 이행체계를 위한
통계 구축과 평가방안

1. SDGs 이행을 위한 ESG 경영 구현

□ ESG 경영의 등장과 SDGs와의 관계

- 최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함께 경제적 이익 창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이하 ESG)에 참여하는 기업 증가
 - 2006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발표하였다. 이때 ESG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제시
 - ESG는 ‘환경’, ‘사회적’, ‘거버넌스’의 약어이며, 자산운용의 세계에서는 매출, 이익, 현금 흐름과 같은 양적 금융 정보가 주로 투자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임
 -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약 40조 5000억 달러(약 5경 5000억 원)에 이룸
 -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은 2030년까지 ESG 투자 규모가 13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 ESG는 비재무 정보이지만 회사에 투자할 때 회사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데,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이 환경 및 사회 문제와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SG 투자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음
- ESG란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다양한 실천
 - 환경(E)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감소,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개선,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등의 환경 대책, 재생에너지 사용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가 포함
 - 사회(S)적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양질의 노동 조건 및 성평등과 같은 직장 내 인권 조치, 다양성, 일과 삶의 균형, 아동 노동 문제, 지역사회에 공헌 등

- 거버넌스(G)로서 비즈니스 성과 악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패,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기업의 민주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동자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도 포함



〈그림 6-1〉 SDGs와 ESG의 관계

- SDGs는 2015년 9월 유엔 참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이며, ESG는 SDG에 명시된 목표를 경영전략에 통합해 기업의 가치 개선 효과를 증대
 - ESG와 SDG는 기업의 고유가치라는 차원에서 유사하며, 최근 두 개념은 유사하고 연결된 개념으로 인식되고 동시에 관심을 끌고 있음
 - SDGs는 2015년 9월 유엔 참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말하며, 2001년에 공식화된 MDGs의 후속작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의 글로벌 목표를 제시하고, SDGs는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 지역 및 기업 목표를 포함한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나타냄

- ESG는 SDG에 명시된 목표를 경영전략에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가치 개선 효과를 키우며, 이해관계자(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직원, 지역 등)를 고려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임
- ESG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개발하는 기업은 결과적으로 SDG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이 SDGs-ESG 경영에 대응함에 따른 자체 기대효과는 기업 이미지 향상.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기업의 생존전략. 새로운 사업 기획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경영 현황

-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경영 체계는 주로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유연한 조직 운영 및 업무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ESG 경영 체계 속에 활용할 수 있는 변화 모색이 요구됨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가치 구체화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시책 적극 참여
 -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설물 관리 강화 및 미래 환경 보호 적극 추진
 - 사회적 가치 창출 요구에 부합한 다각적 경영혁신 추진
 - 조직, 예산, 사업관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 및 업무 지원
 -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행
 - 조직 성과관리 강화
 - 사회적 가치 전략 체계화 등 협력·소통·상생의 경영 실현
 -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 및 업무 지원
 - 능동적 사회적 가치 실현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목표 달성 및 관리 등, 친환경 자원순환 사무공간 조성 및 에너지 절약
 -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운영

- 지속가능 인사/노무 환경 운영
- 업무 행정 지원 기능 강화

□ 새로운 ESG 경영 체계의 도입

- 지난 12월 8일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맞아 CI 개편과 함께 ESG 경영 선언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 현황 점검 과정과 중대성 평가 결과값을 토대로 인천문화재단의 Cultural-ESG경영 체계 및 3단계 로드맵 수립



〈그림 6-2〉 인천문화재단 창립 18주년 기념 및 CI 개편 선포식 (ESG 경영 선언)

- ESG 경영 체계 확립을 통해 문화와 지속가능성이 접목되는 새로운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교두보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체계 수립으로, 지역연계형 문화적 ESG경영 브랜딩 시도
 - 경영평가 및 내부 성과지표와 연계된 사업관리를 통해 내재화 강화
 - ESG경영 선포 이후의 3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그림 6-3〉 인천문화재단 문화-ESG경영 체계 및 로드맵(안)

출처 : 인천문화재단 18주년 기념 및 CI 개편 선포식 자료

- 향후 재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범위 확대를 통한 실천계획의 내용 확대와 성과관리 메뉴얼 수립
 - 임직원 ESG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방안의 마련
 - 부서별 ESG경영 연계사업 발굴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부산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

- 부산문화재단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문화가 지속가능성을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지역의 문화재단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고려하고 제시한 첫 번째 사례이며, 재단 비전 2030를 통해 5가지 실천계획 20가지 추진과제 65가지 실천계획을 발표

진행과제 1-1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추진과제 1-1 UN에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문화적으로 실천 하겠습니다

16 문화 예술

“예술을 통해 사회의 포용성이 촉진되고, 시민 누구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 활동이 많아져서, 시민들의 삶을 변화게 하는 재단이 되어주세요”
 2018년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문화예술이 가치재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문화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됨. 그동안 문화적 가치만을 강조한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

UN SDGs 문화적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스 재태버는 "Revisi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rt" 라는 캠페인을 통해 시각 예술을 이용한 SDGs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일본 공예예술 도시 시즈오카시는 SDGs를 도시 정책 이념으로 채택 해 "세계에서 빛나는 시즈오카"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 가치의 변화

• S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 17개 최대 공동 목표

• 17가지 목표 중 문화 해당 코드(번호) 빈곤(1), 건강과 웰빙(3), 양질의 교육(4), 성평등(5),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8), 불평등 완화(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 지속가능한 소비(12), 기후변화 대응(13),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

부산문화2030 비전과 전략 18

〈그림 6-4〉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의 일부
 자료 : 부산문화재단

2. SDGs 이행을 인천문화재단의 실천행동

○ 종이없는 회의

- 친환경 가치확산 및 문화행정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종이없는 (paperless)' 업무환경 전환을 추진
 - 스마트 행정환경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종이없는(Paperless) 회의 시스템'을 도입
- 각종 회의·보고 시 '종이없는(paperless)'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
 - 추후 연차별 확산계획에 따라 시행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운영방식을 고도화하여 업무환경 전반에 확대

○ 불필요한 인쇄물 감소

- 인쇄물의 제작에 있어 디지털 자료의 사용을 고려하고, 각 부서에서 나오는 인쇄물의 양을 파악하여,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
 - 종이 리플릿을 디지털 리플릿, QR코드 등 디지털 자료만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에 대해 고려
- 인쇄물을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하고, 도록과 리플릿의 제작 시 필요한 최소 수량을 고려하여 발주
 -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한 책자를 인쇄

○ 에너지절감

- 실내온도(여름철: 25~28℃, 겨울철: 18~20℃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 대중교통(버스, 자전거, 도보)을 이용한 관람자를 위한 이벤트를 고려
 - 방문객 또는 행사 참가자의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
- 직원은 본인의 다회용 물병을 사용하고, 방문객 및 행사 참가자에게 다회용 물병의 사용을 권유
- 건축물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체크하여 기록/관리

- 이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정보가 되어 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임
- 전시관람시간의 통계를 내어 방문 빈도가 낮을 때 감지센서를 통해 전력이 온-오프 될 수 있도록 관리

○ 녹색구매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조달 발주 또는 직접 구매
-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카트리 지 등
 -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그림 6-5〉 환경표지제품 마크

○ 인천문화재단 직원의 실천행동(안)

- 실천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며, 지역에서 실천하는 삶'의 시작을 재단 내부에서 시작할 수 있음

실천행동	실천방안
물낭비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양만큼 적정수압으로 사용 - 양치컵 사용 및 물 틀어놓고 양치질 하지 않기
종이낭비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 - 이면지 활용 및 2면 찍기로 사무용지 절감 - 화장지 / 페이퍼타올 적정량 사용 - 페이퍼타올 대신 손수건 휴대 및 사용
전기낭비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시 팀별 소등 - 퇴근 시 팀별 소등 - 개인용 냉난방 기기/사무기기 사용 줄이기 - 불필요한 대기전력 차단(PC, 사무기기 등)
에너지세이빙 옷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쿨맵시 시행(하절기 노타이/간소복 착용) - 온맵시 시행(동절기 내복/방한의류 착용)
친환경저탄소 출퇴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요일제 참여 및 에코드라이빙 실천 - 자전거 출퇴근 및 대중교통 이용 - 실내계단 이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 최소화)
e비즈니스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출력 대신 그룹웨어 및 e-mail 이용 - 인쇄물 대신 e-메일/e-레터 발송 - 모바일 오피스 적극 이용
자원절약/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분리수거 실천 - 식사시 적당량 주문 및 잔반 없애기 - 친환경 사무용품 사용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 6-1] 인천문화재단 직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행동(안)

3. 문화 관점의 지속가능성 이행체계를 위한 통계 구축과 평가방안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문화재단 사업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기반한 계획수립 및 평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환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안정적인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 사업별 통계가 전사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문화접근권 현황 파악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장 여부 등을 가늠하면서 인천문화재단의 영향력을 측정, 확대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참여자의 성별, 장애여부, 연령대, 주거지 통계 등을 통해 자치구 문화재단과 연계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용이함
- 문화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인천문화재단만의 특성을 반영해 도출한 결과로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재단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역량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재단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통계 구축 방안

- 인천문화재단의 운영시설 방문객, 사업 참여자 단체, 교육사업 참여자 수 등을 일관된 통계 수립원칙에 따라 취합, 관리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운영시설 방문 인원 집계 및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주거지(인천 내, 인천 외) 통계 구축 시스템 마련
 - 키오스크 등을 통한 방문객 직접 입력 및 QR코드 활용 등
- 사업종료 후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에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주거지(자치구) 표기
 - 서면, 온라인 링크 등

○ 문화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 지속가능성 지표의 의의
 - 사회, 환경,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
 - 지속가능성 달성 현황 및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 제시

- 환경, 경제, 사회, 추진기반 각 지표 간 상호연계성 중시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필요성
 - 상이한 분야 간 의사소통 촉진 및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
 - 서로 다른 발전요소 간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
 - 기본계획의 전략-목표-과제-이행성과 모니터링 및 정책방향 제시
- SDGs 기반 인천문화재단의 실천계획과 지표를 주기적으로 평가(매년 또는 2년 단위)하고, 이를 ESG 경영 보고서를 통해 발표

No	실천계획	지표명	설명
1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SDGs 연계 프로그램 수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중 SDGs를 연계 한 프로그램의 수
2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 (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	생활밀착형 시민공론장 참여율	지속가능발전 관련 소양교육 및 의제 공론화에 대한 시민 참여 수준
3	SDGs 이행을 위한 문화포럼 공론장 마련	SDGs 문화포럼 운영	SDGs의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 관점의 포럼 개최
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와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	배리어프리 문화 콘텐츠 제작 수	시각·청각 장애인을 배려한 문화 콘텐츠 수
5	장애인과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강화	시설 방문자 중 장애인 비율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각종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한 장애인 비율
6	사회적 다양성을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 공모 사업 중

No	실천계획	지표명	설명
	담기 위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반영한 공모사업 건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사업 신청 개수
		공모 선정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	전체 공모선정 사업 참여자 중 장애인 참여자 수
7	빈곤 문화예술인의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보장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8	문화예술분야 전문교육인력 처우 개선	문화예술교육 전임강사 강사료	전문인력임을 감안하여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매년 변경)
9	공정한 예술산업/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예술산업/콘텐츠산업의 창·제작자 피해 신고 및 분쟁조정 현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 부당한 계약 경험률 표준계약서 활용률
10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연계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 기반 환경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초·중·고 교육과정-지역사회 연계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및 시민 참여 수준
11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증진을 위한 친환경 페스타 개최	친환경 페스타 참여율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에 대한 시민 참여, 국내·외 단체 간 교류 수준
12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개선 추진	녹색건축물 인증 수	재단 위수탁 관리 건물을 중심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획득

[표 6-2] SDGs 기반 인천문화재단의 실천계획과 지표

□ 연구진

역할	성명
책임연구원	윤희철
공동연구원	박수진
	박차옥경
	이채연
	정연경
	한순금

□ 본 연구에 자문과 도움을 주신 분(가나다 순)

성명	소속 및 직책
강영구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형래	글로벌 에코투어 연구소장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송영석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윤종필	꾸물꾸물 문화학교 교장
이경옥	인천자바르떼대표
장구보	구보댄스아카데미 대표
장정구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처장
차성수	인천YMCA 사업국장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
허명희	인천생활예술협회 이사